

2007년 경제전망

2006. 12.

한국경제연구원

집 필 진

선임연구위원	허 찬 국
연구위원	배 상 근
연구위원	안 순 권
연구위원	정 연 호
연구위원	송 원 근
선임연구위원	김 창 배

< 제 목 차 례 >

요약	vii
제 I 장 최근 경제동향	1
1. 실물경제	3
2. 물가 및 임금	16
3. 노동시장	20
4. 금융시장	22
5. 외환시장	34
6. 해외경제	39
7. 경기에 대한 종합 판단	44
제 II 장 국내경제전망	45
1. 대내외 여건	47
2. 국내경제전망	50
3. 위험요인(Downside Risk)	53
<특별부록> BRIC▪Ks Reports	55
1. 브라질	57
2. 러시아	71
3. 인 도	84
4. 중 국	96
<부록> 주요 경제지표	115

< 표 차례 >

<표 I-1> 지출항목별 증가율	4
<표 I-2> 지출항목별 기여도	5
<표 I-3>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7
<표 I-4> 소비	8
<표 I-5> 투자	10
<표 I-6> 품목별 수출	12
<표 I-7> 지역별 수출	13
<표 I-8> 용도별 수입	14
<표 I-9> 최근 경상수지	15
<표 I-10> 물가 추이	17
<표 I-11> 상용종업원 월평균 임금(10인 이상 사업체)	19
<표 I-12> 전국 주택매매가격 증가율	19
<표 I-13> 취업자 추이	20
<표 I-14>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21
<표 I-15> 주요 통화지표 증가율 추이	22
<표 I-16> 주요 금리 현황	25
<표 I-17>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추이	26
<표 I-18> 기업자금조달 추이	28
<표 I-19> 직접금융 자금조달 실적	28
<표 I-20> 은행의 가계대출	29
<표 I-21> 금융기관 수신고	30
<표 I-22> 은행 및 자산운용사 수신	31
<표 I-23> 금융기관의 단기수신 비중	32
<표 I-24> 주식시장 주요지표	33
<표 I-25> 원/달러 환율	35
<표 I-26> 자본 유출입 추이	38
<표 I-27> 미국의 경제지표	39

〈표 I-28〉 일본의 경제지표	40
〈표 I-29〉 EU의 주요 경제지표	41
〈표 I-30〉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42
〈표 I-31〉 유가 및 CRB 지수(기말기준)	43
〈표 II-1〉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	48
〈표 II-2〉 2007년 국내경제전망	52
〈표 A-1〉 용도별 생산지수 변화추이	59
〈표 A-2〉 브라질 외채동향	63
〈표 A-3〉 수출입 통계	63
〈표 A-4〉 2006년 브라질 국제수지 현황	64
〈표 A-5〉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입 추이	65
〈표 A-6〉 한·브라질간 주요 품목(중분류)	66
〈표 A-7〉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 5대 품목	67
〈표 A-8〉 한국의 대브라질 수입 5대 품목	68
〈표 A-9〉 한국과 브라질 양국간 직접투자	68
〈표 A-10〉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72
〈표 A-11〉 고용 추이	73
〈표 A-12〉 외채현황	75
〈표 A-13〉 수출입 추이	76
〈표 A-14〉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입 추이	79
〈표 A-15〉 한국의 대러시아 5대 수출품목	80
〈표 A-16〉 한국의 대러시아 5대 수입품목	80
〈표 A-17〉 한국과 러시아 양국간 직접투자	81
〈표 A-18〉 러시아의 2007년 경제전망	82
〈표 A-19〉 인도의 산업별 성장률	85
〈표 A-20〉 인도의 산업별 생산 추이	86
〈표 A-21〉 인도 재정수지 추이	88
〈표 A-22〉 인도의 외채현황	88
〈표 A-23〉 인도의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추이	89

〈표 A-24〉 인도의 외환보유액 추이	91
〈표 A-25〉 한국의 대인도 수출입 추이	91
〈표 A-26〉 한국의 대인도 5대 수출품목	92
〈표 A-27〉 한국의 대인도 5대 수입품목	93
〈표 A-28〉 한국과 인도 양국간 직접투자	94
〈표 A-29〉 중국의 1인당 소득 추이	97
〈표 A-30〉 중국의 기업형태별 생산증가율 추이	99
〈표 A-31〉 중국의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100
〈표 A-32〉 중국의 통화량 추이	101
〈표 A-33〉 중국의 수출입 추이	102
〈표 A-34〉 달러 대비 환율 추이	103
〈표 A-35〉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추이	105
〈표 A-36〉 한국의 대중국 수출 5대 품목	105
〈표 A-37〉 한국의 대중국 수입 5대 품목	106
〈표 A-38〉 한국과 중국 양국간 직접투자	107

<그림 차례>

<그림 I-1> 국내총생산 증가율 추이	4
<그림 I-2> 생산증가율 추이	6
<그림 I-3> 소비증가율 추이	8
<그림 I-4> 투자증가율 추이	10
<그림 I-5> 최근 수출 추이	12
<그림 I-6> 최근 수입 추이	14
<그림 I-7>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17
<그림 I-8> 상용종업원 월평균 임금(10인 이상 사업체)	18
<그림 I-9> 시장금리 추이	23
<그림 I-10> 장단기 금리차 추이	24
<그림 I-11> 신용스프레드 추이	25
<그림 I-12> 주가지수 추이	33
<그림 I-13> 주요 통화 대비 원화환율 추이	36
<그림 I-14>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추이	44
<그림 A-1> 브라질의 GDP증가율 추이	58
<그림 A-2> 최근 실업률 변화	60
<그림 A-3> 소비자물가 상승률 변화 추이	61
<그림 A-4> 공공부문 부채 동향	62
<그림 A-5> 레알/달러 환율	64
<그림 A-6> GDP증가율 추이	71
<그림 A-7> 물가증가율 추이	74
<그림 A-8> 재정수지 추이	74
<그림 A-9> 무역 및 경상수지 추이	77
<그림 A-10> 외환보유액 추이	78
<그림 A-11> 루블화 환율 추이	78
<그림 A-12> 인도의 GDP증가율 추이	84
<그림 A-13> 인도의 물가상승률 추이	87

〈그림 A-14〉 인도의 루피화 환율 추이	87
〈그림 A-15〉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추이	90
〈그림 A-16〉 중국의 GDP증가율 추이	96
〈그림 A-17〉 중국의 산업별 성장률 추이	98
〈그림 A-18〉 중국의 물가상승률 추이	100
〈그림 A-19〉 중국의 외환보유액 추이	104

I. 최근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3분기 성장률, 2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

- 전기비 연율: 6.7%('05년 4분기) → 4.9%('06년 1분기) → 3.4%(2분기) → 4.4%(3분기)
 - 설비투자 호조 지속, 건설투자 증가 반전 등에 기인
 - 내수의 기여도가 크게 제고되고 수입증가율 둔화로 순수출 기여도 상승

■ 제조업 생산호조, 서비스업 둔화 추세

- 제조업 생산은 올 3분기 중 11.0%, 10월 중에는 4.8% 증가. 10월 중 증가율이 낮은 것은 추석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에 기인
- 서비스업은 1분기 6.1%, 2분기 5.3%, 3분기 4.4%, 10월 3.2%로 둔화

■ 소비증가세 둔화

- 지난해 4분기를 정점으로 소비증가세가 점차 둔화
 - 소비재판매: 6.8%('05년 4분기) → 4.6%('06년 3분기) → 4.5%(10월)

■ 설비투자 증가세, 확대

- 올 상반기 4.3%에서 3분기에는 10.0%, 10월에는 6.1%로 상승

■ 건설투자, 비교적 높은 증가세

- 수해복구 등의 영향으로 일반토목공사 중심으로 증가
 - 6.9%('05년 4분기) → 5.8%('06년 1분기) → 1.4%(2분기) → 6.4%(3분기) → 7.4%(10월)

■수출호조세 유지

- 10~11월 수출증가율은 15.3%로 3분기 수출증가율(16.6%)에 이어 호조
 - 10~11월 일평균 수출금액도 사상 최초로 13억 달러대 진입
 - 반도체, 자동차는 호조세, 반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는 부진 지속, 석유제품은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증가율 급감

■수입증가율,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10월 이후 둔화

- 3분기 21.4%에서 10월 13.5%, 11월 12.7%로 둔화

■9월 이후 경상수지 흑자 전환되었으나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악화

- 7, 8월 연속 적자를 보였으나 9월 13.7억 달러, 10월 17.3억 달러 흑자 전환
- 하지만 지난해 3분기(26.5억 흑자), 10월(26.9억 달러)에 비해 악화

■소비자물가 상승률, 10~11월 중 하락

- 3분기(2.5%)에는 2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10~11월에는 2.1%로 하락
 - 상품부문이 국제유가의 하향안정, 출하증가에 따른 농수산물물의 가격 하락, 원화 절상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데 기인

■생산자물가, 국제유가 안정 및 원화절상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 크게 둔화

- 전년동기비(%): 1.7%('06년 1분기) → 2.4%(2분기) → 3.1%(3분기) → 1.9%(10~11월)

■고용,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인 35만 명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듯

- 금년 11월 전체 취업자가 전년동월 대비 26.7만 명 증가에 그침.
- 실업률은 안정적이지만 취업여건이 기대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아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시장금리는 10월 이후 상승세 지속

- 10월 하순 이후 경기지표 호전,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도 등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으며 11월 23일 기준을 인상 등으로 다시 상승
 - 국고채(3년)금리는 10월말 4.62%에서 12월 26일 현재 4.94%로 상승

■ 원/달러 환율, 하락추세

- 글로벌 달러약세 요인이 크게 작용
 - 미국의 경기둔화와 금리인상동결, 미·유럽간 금리격차 축소, 해외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액 다변화 움직임 등

2. 해외경제

■ 미국경제: 성장세 둔화, 물가상승세 지속

- 실질GDP성장률(전기비 연율) 둔화: 2분기 2.6%, 3분기 2.2%
 - 산업생산 증가율도 3분기 3.6%, 10월 0.0%, 11월 0.2%로 둔화 지속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분기 3.3%, 10월 1.3%, 11월 2.0%로 상승세 지속

■ 일본 경기회복세 지속

- 3분기 성장률(전기비 연율)은 2.0%로 2분기 0.8%에 비해 상승
 - 수출증가율(전년동기비) 두 자릿수 지속: 3분기 15.7%, 10월 11.5%
 - 광공업 생산증가율(전년동기비) 확대: 3분기 5.4%, 10월 7.4%

■ EU 경제, 회복세 소폭 둔화

- 3분기 성장률(전기비)은 0.5%로 2분기 0.9%에 비해 둔화
 - 산업생산도 3분기 0.8% 증가 후 10월에는 0.1% 감소로 반전

■ 중국경제,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성장세는 소폭 둔화

- 3분기 성장률(전년동기비)은 10.4%로 2분기 11.3%에 비해 둔화
 - 산업생산은 3분기 16.2%에서 10~11월에는 14.8%로 둔화
 - 1~11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26.6%)이 1~9월(28.2%)에 비해 하락

■ 국제유가 10월까지 급락했으나 11월에는 반등

- 중동안정,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10월까지 하락하던 국제유가가 11월에는 OPEC의 감산, 원유재고 감소, 계절적 수요로 상승
 - 두바이유: 9월말 59.93달러, 10월말 54.55달러, 11월말 58.57달러

3. 경기에 대한 종합 판단

■ 경기정점은 이미 지나 현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 수출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당초 기대에 비해 내수회복세가 미약해서, 경제주체들이 경기회복을 제대로 체감하지도 못한 채, 경기정점이 이미 지나 현재의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

II. 2007년 경제전망

1. 2007년 대내외 여건

■ 주요국 경제: 글로벌 금리인상 등으로 성장세 소폭 둔화

- 미국경제: 주택경기의 하강, 인플레이 우려에 따른 현 정책금리 수준의 유지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 둔화
- 중국경제: 세계 경제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출증가율 하락, 기준율 인상에 따라 유동성 축소 등으로 성장률이 올해에 비해 소폭 하락할 전망
- 일본경제 및 유로지역 경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출증가율 하락으로 올해보다 성장률 낮아질 전망

■ 국제유가: 하락, 상승요인 혼재된 가운데 국제유가는 60달러(두바이유 기준) 내외에서 유지

- 하락요인: 수요 증가세 둔화 지속 및 OPEC 원유생산 증가 전망
- 상승요인: OPEC 감산 및 지정학적 위협에 따른 공급불안 등

■ 국제금융시장, 고금리 및 달러약세 등으로 불안정성 증대

- 인플레이 우려, 과잉유동성 해소 등을 위해 글로벌 금리인상 추세 지속
- 미-EU, 미-일간 성장 및 금리 격차 축소, 외환다변화 등으로 글로벌 달러약세 기조

■ 한국경제의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 증대

-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정책혼선과 사회혼란
 - 하지만 대통령 선거결과가 확정되면 불확실성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
- 경기둔화에 따른 경기부양적 정책 추진 가능성

-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리스크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음.

2. 2007년 경제전망

■ 성장률 둔화: 2006년 5.0% → 2007년 4.1%

- 주택보유자 세 부담 증가, 고용증가세 둔화, 가계부채 증가 등 ⇒ 민간소비 둔화 지속
- 불투명한 경기, 기업투자환경 개선 미흡, 대선정국과 관련한 정책혼선 등 ⇒ 설비투자 회복세 미흡
- 수요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 등 ⇒ 건설투자 부진 지속
- 미국, EU 등 우리의 주요 교역국의 경기둔화 등 ⇒ 수출둔화

■ 소비자물가 안정세 지속: 2006년 2.3% → 2007년 2.3%

- 성장둔화, 원화절상, 국제유가 안정 등이 물가안정요인

■ 경상수지 적자 전화: 2006년 59억 달러 흑자 → 2007년 29억 달러 적자

-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 ⇒ 상품수지 흑자폭 감소
 - 2007년 수출증가율 9.8% < 2007년 수입증가율 12.2%
- 서비스 부문의 낮은 경쟁력 ⇒ 서비스수지 적자확대 추세 지속

■ 시장금리 하향 안정세: 2006년 5.2% → 2007년 5.1%

- 전반적으로 경기둔화, 물가안정 추세 등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전망
 - 하지만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금리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내년 초반까지는 상승세 지속

■ 원화환율 하락: 2006년 955원 → 2007년 929원

- 글로벌 달러 약세요인이 가장 큰 요인

- 하지만 한국의 경기둔화, 경상수지적자 전환 등은 환율하락을 제약

〈표 1〉 2007년 국내경제전망

(전년동기비 %, 억 달러)

	2005년	2006년		2007년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GDP	4.0	5.7	4.5	5.0	3.9	4.3	4.1
(SA, 전기비 연율%)		4.9	4.1		3.7	4.8	
민간소비	3.2	4.6	3.9	4.2	3.6	4.0	3.8
건설투자	0.4	-1.9	-0.5	-1.1	0.5	1.4	1.0
설비+무형고정자산	4.9	7.1	7.8	7.5	5.5	6.4	5.9
수출(재화+서비스)	8.5	13.7	11.6	12.6	8.5	8.3	8.4
수입(재화+서비스)	6.9	12.9	10.1	11.5	8.7	9.3	9.0
소비자물가	2.8	2.3	2.4	2.3	2.2	2.4	2.3
생산자물가	2.1	2.1	2.5	2.3	1.9	1.7	1.9
경상수지(억 달러)	165.6	-4.3	62.9	58.6	-12.2	-16.7	-28.9
상품수지(억 달러)	334.7	126.4	163.3	289.6	133.0	113.4	246.4
수출(억 달러, BOP 기준)	2,890.0	1,579.3	1,746.6	3,325.9	1,751.5	1,901.0	3,652.5
증가율%	12.1	13.9	16.2	15.1	10.9	8.8	9.8
수입(억 달러, BOP 기준)	2,555.2	1,452.9	1,583.4	3,036.3	1,618.4	1,787.6	3,406.1
증가율%	16.4	19.6	17.5	18.8	11.4	12.9	12.2
서비스 및 기타수지	-169.1	-130.6	-100.4	-231.0	-145.2	-130.1	-275.2
환율(원/달러, 평균)	1024.0	963.1	946.7	954.9	937.5	920.0	928.8
회사채수익률(3yrs, AA-)	4.7	5.3	5.1	5.2	5.2	5.0	5.1
실업률(%)	3.8	3.7	3.3	3.5	3.8	3.4	3.6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분기모형

3. 위험요인(Downside Risk)

- 북핵실험과 같은 지정학적 위험은 속성상 돌발적 변수가 많아 우리 경제에 커다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소비와 투자심리의 위축, 주가, 환율 등 금융변수의 변동성 확대, 국가신용등급의 하락 및 자본유출 등을 통해 성장률을 추가적으로 하락시킬 우려

- 주택 가격의 경착륙 가능성
 - 가계부문의 부실, 건설경기 위축 등을 통해 성장률을 하락시킬 가능성

제 I 장

최근 경제동향

1. 실물경제
2. 물가 및 임금
3. 노동시장
4. 금융시장
5. 외환시장
6. 해외경제
7. 경기에 대한 종합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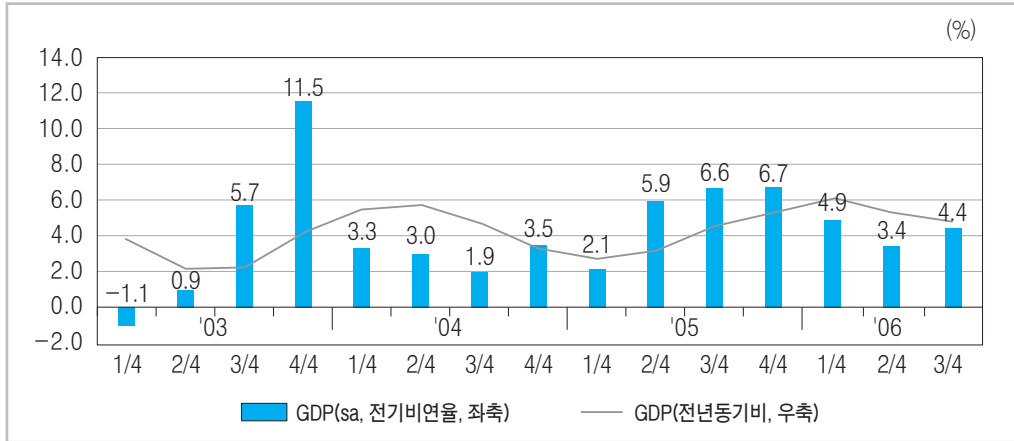
1. 실물경제

(1) 국내총생산

■ 3분기 성장률, 2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

- 3분기 실질GDP증가율(계절조정, 전기비 연율)이 4.4%를 기록, 2분기(3.4%)에 비해 1.0%p 상승
 - 전기비 연율: 6.7%('05년 4분기) → 4.9%('06년 1분기) → 3.4%(2분기) → 4.4%(3분기)
 - 전기비: 1.6%('05년 4분기) → 1.2%('06년 1분기) → 0.8%(2분기) → 1.1%(3분기)
- 부문별로는
 - 설비투자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두 자릿수 증가율 지속
 - 건설투자도 3분기에는 증가세로 반전
 - 민간소비도 2분기(3.7%)에 비해 상승
 - 수출과 수입증가율은 모두 둔화
- 소비, 투자 등 내수부문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제고되고 순수출의 기여도도 상승
 - 3분기 증가세로 반전된 건설투자의 기여도가 가장 많이 개선되었음.
 - 수출증가세 둔화로 수출의 기여도가 2분기에 비해 하락했으나 수입증가율이 더 크게 하락하면서 순수출의 기여도는 2분기에 비해 상승

<그림 1-1> 국내총생산 증가율 추이



<표 1-1> 지출항목별 증가율

(계절조정, 전기비 연율 %)

	2005년				2006년		
	1/4	2/4	3/4	4/4	1/4	2/4	3/4
민간소비	1.9	5.8	4.1	4.6	5.2	3.7	4.4
건설투자	1.8	7.4	-3.3	0.0	2.3	-14.7	2.5
설비투자	9.6	9.9	3.2	17.8	-1.6	10.5	12.2
수출(재화와 서비스)	8.6	5.0	23.1	5.2	13.4	23.5	14.7
수입(재화와 서비스)	-8.7	19.1	16.7	-3.6	19.5	23.3	12.3

〈표 1-2〉 지출항목별 기여도

(계절조정, 전기비 연율 %p)

	2005년				2006년		
	1/4	2/4	3/4	4/4	1/4	2/4	3/4
내수	2.2	5.2	1.8	4.1	2.8	0.4	4.4
민간소비	1.0	2.9	2.1	2.3	2.6	1.8	1.3
건설투자	0.3	1.2	-0.6	0.0	0.4	-2.3	1.8
설비투자	1.0	1.1	0.4	1.9	-0.2	1.1	1.6
수출(재화와 서비스)	4.5	2.7	12.3	2.9	7.4	13.2	6.5
순수출	12.5	-4.2	5.2	5.4	-1.1	2.4	3.7

(2) 생산

■ 제조업 생산, 호조 지속

- 제조업 생산은 올 3분기 중 11.0%, 10월 중에는 4.8% 증가. 10월 중 증가율이 낮은 것은 추석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에 기인
 - 반도체·영상·음향통신 업종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정보통신업종을 대표하는 ICT제조업지수도 두 자릿수 증가율 지속
 -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의 부진은 지속
 - 경공업 부문은 10월 중 감소세로 반전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80%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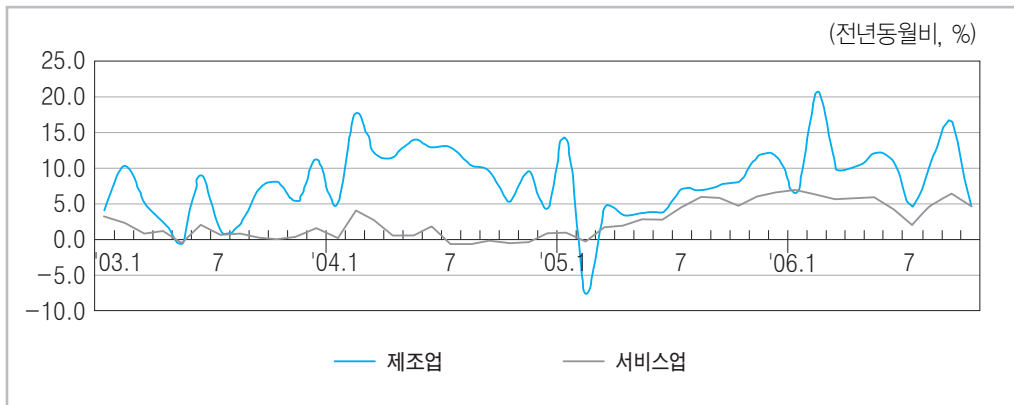
■ 그러나 서비스업 활동 증가율은 둔화추세 지속

- 서비스업 활동지수(통계청 발표) 증가율은 1분기 6.1%, 2분기 5.3%, 3분기 4.4%, 10월 3.2%로 둔화
 - 월별로는 1월(6.9%)을 고점으로 하락세

— 업종별로는

- 도소매업과 통신업은 여전히 낮은 증가율 지속
- 올 1분기까지 높은 증가세를 보이던 금융 및 보험업은 둔화 추세
- 지난해 4분기 이후 회복조짐을 보이던 숙박 및 음식점업도 다시 부진
- 반면 부동산 및 임대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높은 증가세 유지

<그림 1-2> 생산증가율 추이



〈표 1-3〉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전년동기비, %)

	2005년					2006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제조업 전체	3.3	3.4	7.3	10.4	6.2	12.6	11.4	11.0	4.8
중공업	5.6	4.9	9.4	13.1	8.4	14.7	14.0	13.0	7.1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4.9	-6.6	-11.7	-11.7	-8.6	-17.3	-9.6	6.6	11.5
반도체·영상·음향, 통신	13.3	9.4	23.8	32.3	20.1	32.4	32.1	22.6	14.9
자동차 및 트레일러	10.7	11.1	2.6	8.8	8.4	15.4	8.4	7.3	4.4
경공업	-6.3	-2.9	-1.1	-1.0	-2.8	3.3	0.1	1.9	-6.3
ICT지수	10.9	7.7	20.1	27.7	16.9	27.4	28.2	21.0	14.2
평균가동률	79.6	79.4	79.9	80.2	79.8	82.0	80.5	80.5	81.6
서비스업 전체	0.7	2.5	5.4	5.8	3.6	6.1	5.3	4.4	3.2
도소매업	-1.3	2.3	3.2	3.4	1.9	3.3	3.7	4.0	2.7
숙박 및 음식점업	-1.2	-0.6	-0.1	3.0	0.3	3.9	2.4	2.3	-4.0
운수업	3.1	3.4	4.8	5.4	4.2	6.4	6.3	5.9	3.1
통신업	4.7	4.2	2.7	4.7	4.1	2.3	2.9	3.3	1.0
금융 및 보험업	0.4	1.8	13.6	13.9	7.3	13.2	9.3	4.8	4.2
부동산 및 임대업	6.6	7.9	10.0	9.2	8.5	10.5	8.4	8.9	8.4
사업서비스업	1.8	1.5	2.7	4.7	2.7	5.6	6.2	9.3	5.4
교육 서비스업	-0.4	0.0	3.1	-0.1	0.7	1.4	2.3	-6.6	7.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5	8.0	9.1	9.4	7.3	11.2	7.6	10.1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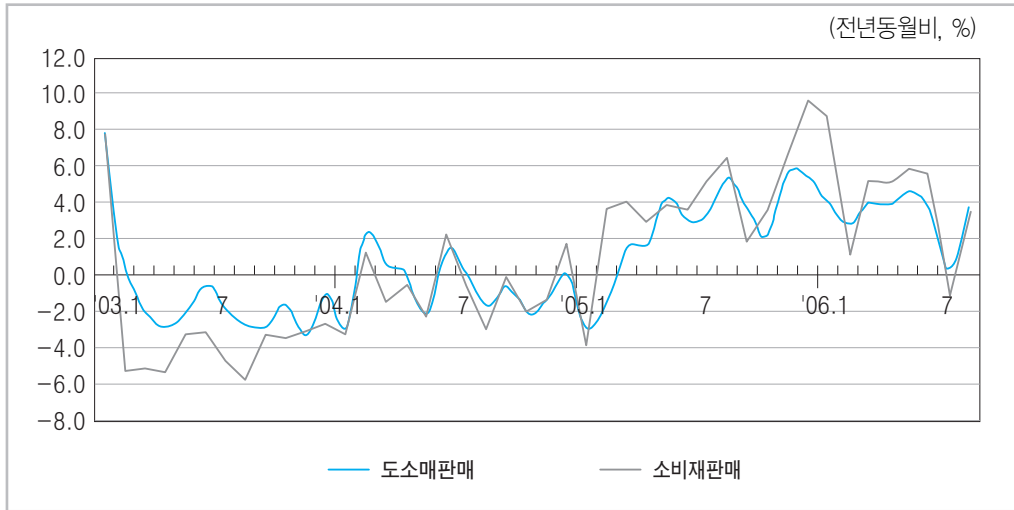
(3) 소비

■ 소비증가세 둔화

- 지난해 4분기를 정점으로 소비증가세가 점차 둔화
 - 도소매판매: 4.5%('05년 4분기) → 4.5%('06년 3분기) → 2.8%(10월)
 - 소비재판매: 6.8%('05년 4분기) → 4.6%('06년 3분기) → 4.5%(10월)

- 업체별로는, 무점포판매, 대형할인점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백화점매출은 개선된 반면 기타소매점(재래시장 포함)의 부진은 지속

<그림 1-3> 소비증가율 추이



<표 1-4> 소비

(전년동기비, %)

	2005년					2006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도소매판매	-0.8	3.0	4.0	4.5	2.7	3.6	4.1	4.5	2.8
소비재판매	1.2	3.4	4.4	6.8	3.9	5.0	5.5	4.6	4.5
백화점	-1.3	0.8	3.9	8.2	3.0	7.9	5.6	6.5	-2.2
대형할인점	6.7	7.7	7.2	11.6	8.3	6.3	9.0	3.6	15.5
무점포판매	10.8	9.8	13.2	21.9	14.1	18.6	18.8	19.0	2.5
기타소매점(재래시장 포함)	-0.8	1.2	-1.0	0.1	-0.1	-3.0	-0.3	3.9	0.4

(4)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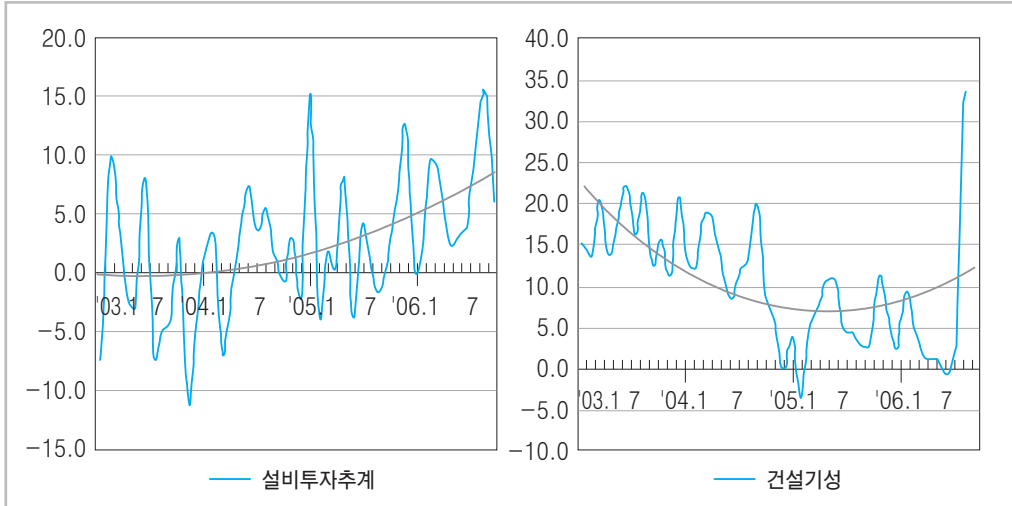
■ 설비투자 증가세, 확대

- 설비투자추계(통계청 발표) 증가율이 올 상반기에는 4.3%, 3분기 중에는 10.0%, 10월 중에는 6.1%로 상승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경상금액 기준)도 3분기 중 15.6%, 10월 중 35% 증가하면서 증가율이 확대
 - 민간부문 제조업의 발주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발주도 10월 중 큰 폭 증가한 데 기인

■ 건설투자, 비교적 높은 증가세

- 국내건설기성(경상)은 수해복구 등의 영향으로 공공 및 민간 건설이 일반토목공사 중심으로 크게 증가
 - 6.9%('05년 4분기) → 5.8%('06년 1분기) → 1.4%(2분기) → 6.4%(3분기) → 7.4%(10월)
-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금액도 3분기 중에 크게 반등했으나 10월에는 증가세 크게 둔화
 - 건설수주는 올 2분기 중에도 14.1% 감소했으나 3분기 중에는 36.2% 증가, 10월에는 1.5% 증가에 그침.
 - 2분기까지는 민간부문, 공공부문, 민자에 관계없이 건설수주 감소
 - 3분기 중에는 공공부문의 발주뿐 아니라 민간 및 민자부문의 주택, 창고, 공장 등의 발주도 증가
 - 10월 중에는 공공 및 민자부문의 발주가 증가한 반면 민간부문의 발주는 감소

〈그림 1-4〉 투자증가율 추이



〈표 1-5〉 투자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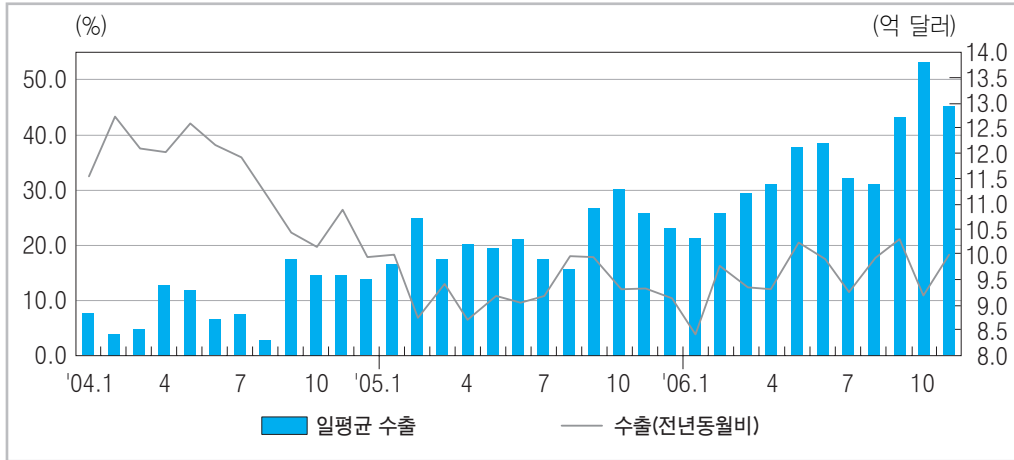
	2005년					2006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설비투자추계(불변)	3.9	1.5	1.0	7.0	3.3	4.3	4.2	10.0	6.1
국내기계수주(경상)	-6.9	-12.2	14.0	17.5	1.5	11.2	20.8	15.6	35.0
공공	7.8	-51.3	38.9	17.1	-3.1	-57.9	43.3	16.1	160.3
민간	-8.4	-7.1	11.7	17.6	2.0	19.9	19.3	15.5	16.8
제조업	-10.3	-6.5	2.7	1.4	-3.8	30.0	26.6	31.3	39.7
비제조업	-6.6	-7.6	20.3	35.2	7.7	10.5	12.0	2.8	-0.6
건설기성액(경상)	1.9	9.6	3.8	6.9	5.7	5.8	1.4	6.4	7.4
건설수주(경상)	22.3	38.5	15.8	-17.9	9.5	-9.7	-14.1	36.2	1.5
공공부문	22.2	73.7	0.0	-26.3	1.6	-11.3	-28.3	22.3	34.5
민간부문	18.3	30.9	29.1	-5.8	16.2	-6.0	-5.6	36.0	-10.9
민자	151.8	9.3	-84.1	-71.0	-36.3	-64.6	-71.4	55.3	141.1

(5) 수출

■수출호조세 유지

- 10~11월 수출증가율은 각각 10.7%, 18.7%로 3분기 수출증가율(16.6%)에 이어 호조세를 유지
 - 11월 일평균 수출금액도 12.9억 달러를 기록, 최대치인 10월(13.7억 달러)보다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
- 품목별 수출
 - 반도체는 성수기 전환 및 PC/Mobile/MP3용 수요확대의 지속으로 인해 3분기 19.6%에 이어 10~11월에는 각각 33.6%, 55.6%의 증가율 기록
 - 자동차는 3분기 수출증가(15.3%)에 이어 10월(14.5%), 11월(18.9%)에도 높은 증가세 지속
 - 석유제품은 유가하락에 따른 제품가격 하락으로 수출증가세가 10월에 7.5%로 둔화된 후 11월에는 감소세($\Delta 0.6\%$)로 전환
 - 무선통신기기는 최대시장인 EU로의 수출 감소로 감소세 지속
 - 컴퓨터는 저가분야 가격경쟁력 열세 및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감소세 지속
- 지역별 수출
 - 대ASEAN 수출은 동남아 수출호조로 높은 증가세
 - 대일본 수출은 10월에 둔화되었으나 11월 두 자릿수 증가세 회복
 - 대중국 수출은 높은 증가세(10~11월 10.3%, 16.7%)를 보이고 있으나 대미국 수출은 10월 이후 감소로 반전
 - 대EU 수출은 선박·자동차 수출의 호조로 3분기에 이어 10~11월에도 두 자릿수 증가세 지속

〈그림 1-5〉 최근 수출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자원부

〈표 1-6〉 품목별 수출

(전년동기비, %)

	2005년					2006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수출전체	12.7	9.0	15.4	11.4	12.0	10.6	16.9	16.6	10.7	18.7
반도체	20.1	7.7	16.5	9.0	13.1	14.0	16.3	19.6	33.6	55.6
자동차	30.2	18.8	-1.6	1.2	11.0	10.7	7.6	15.3	14.5	18.9
무선통신기기	13.1	1.9	1.9	3.4	4.9	1.5	-1.9	1.9	-6.5	-5.4
컴퓨터	-25.6	-26.5	-8.7	-6.3	-17.6	-3.9	-15.4	-14.4	-11.9	-6.7
선박	11.7	5.3	25.4	14.0	13.2	-1.6	49.0	12.4	31.5	90.5
석유제품	30.9	46.9	77.1	44.5	50.6	34.8	54.3	48.8	7.5	-0.6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1-7〉 지역별 수출

(전년동기비, %)

	2005년					2006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중국	23.6	23.5	27.9	22.6	24.4	12.6	11.4	11.9	10.3	16.7
일본	9.5	12.6	14.0	7.3	10.7	11.6	9.5	13.7	4.5	10
미국	10.7	-12.7	-6.0	-3.8	-3.5	0.1	10.9	9.1	-7.9	2.5
ASEAN	10.0	14.0	25.0	8.0	14.2	10.3	14.2	17.9	26.4	22.5
EU	19.9	12.2	18.9	11.8	15.4	7.4	16.2	13.3	13.1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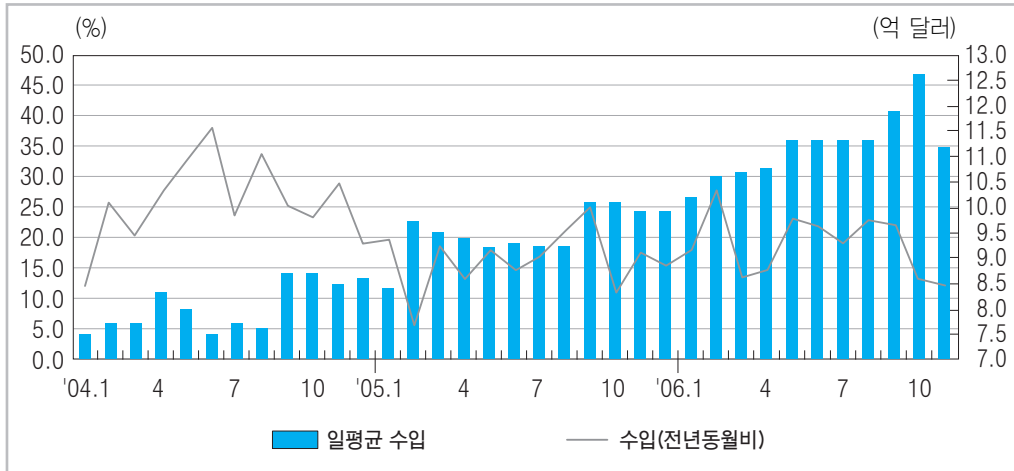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6) 수입

■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수입증가세 10월 이후 둔화

- 수입(통관기준)은 3분기 21.4% 증가에 비해 10~11월 증가세 둔화
 - 일평균 수입금액: 10월 12.5억 달러 → 11월 11.2억 달러
- 용도별로는 원자재·자본재 증가세 둔화
 - 소비재수입은 원화강세와 수입품 선호 경향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원자재수입 증가율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수입 감소로 10월 16.6%에서 11월 14%로 하락하였고 자본재수입의 증가율은 10~11월 11%, 7.7%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임.

〈그림 1-6〉 최근 수입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자원부

〈표 1-8〉 용도별 수입

(전년동기비, %)

	2005년					2006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수입총액	14.8	15.2	21.1	14.6	16.4	19.0	19.8	21.4	13.5	12.7
원자재	19.4	21.0	28.4	15.6	20.9	23.5	23.8	27.3	16.6	14
자본재	11.3	9.3	13.4	12.9	11.7	11.9	11.8	14.4	11	7.7
소비재	8.7	12.6	16.2	15.2	13.3	19.2	21.5	20.7	14	24.4

자료: 한국무역협회

(7) 경상수지

■ 9월 이후 경상수지 흑자 전환

– 7월과 8월 연속 적자를 보였던 경상수지가 9월 흑자(13.7억 달러) 전환 후 10월 17.3억 달러 흑자를 보임.

- 지난해 3분기와 10월의 경상수지는 각각 26.5억 달러, 26.9억 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에 비해 경상수지 악화
- 상품수지 흑자의 축소 및 서비스수지 적자의 확대에 기인
 - 상품수지는 흑자규모는 3분기 63억 달러로 전년동기(75.8억 달러)에 비해서는 약 12.8억 달러 축소
 - 서비스수지 적자는 2분기 38.8억 달러에서 3분기 54.9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를 보임.

〈표 1-9〉 최근 경상수지

(억 달러)

	2005년				2006년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경상수지	26.0	26.5	54.3	165.6	-11.2	6.9	3.4	17.3
상품수지	86.4	75.8	80.9	334.7	52.2	74.1	63.0	26.6
서비스수지	-32.4	-43.6	-24.9	-130.9	-50.0	-38.8	-54.9	-11.9
운수수지	9.2	7.3	11.0	39.2	3.0	5.8	7.4	3.5
여행수지	-24.9	-29.2	-22.2	-96.5	-29.5	-28.4	-37.8	-9.6
금융서비스	3.0	3.8	4.4	14.3	4.4	5.6	3.2	1.6
특허권등사용료수지	-5.4	-7.0	-3.4	-25.7	-8.1	-5.6	-7.5	-1.0
사업서비스수지	-13.7	-19.5	-14.5	-61.5	-15.1	-15.1	-18.5	-5.9
소득수지	-20.9	0.3	5.0	-13.2	-4.8	-16.5	6.1	4.6
경상이전수지	-7.1	-6.0	-6.7	-25.0	-8.1	-11.9	-10.8	-1.9

자료: 한국은행

2. 물가 및 임금

■ 소비자물가 상승률, 10~11월 중 하락

- 3분기(2.5%) 소폭 상승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11월에는 상품가격의 안정에 힘입어 2.1%로 하락
 - 상품부문은 국제유가의 하향안정, 출하증가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격 하락, 원화 절상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 등으로 증가세 둔화
 - 하지만 집세, 공공 및 개인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 가격 오름세 지속
-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의 증가율은 소폭 상승
 - 1.6%('06년 1분기) → 1.9%(2분기) → 2.2%(3분기) → 2.3%(10~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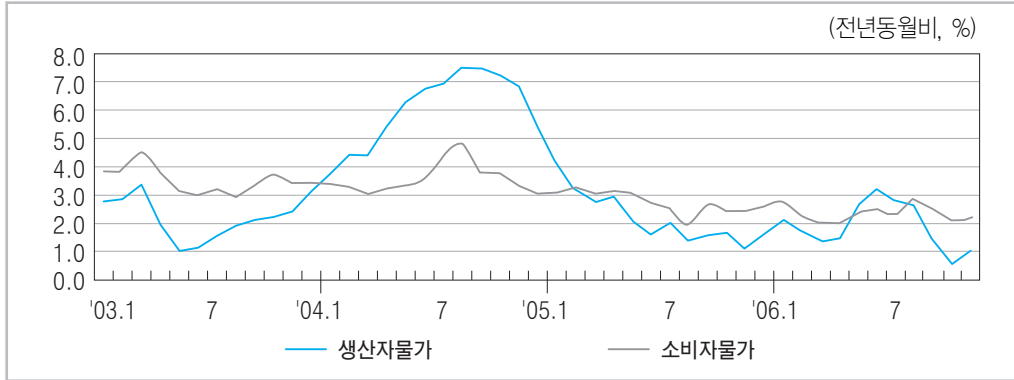
■ 생산자물가, 오름세 크게 둔화

- 국제유가 안정 및 원화절상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 크게 하락
 - 1.7%('06년 1분기) → 2.4%(2분기) → 3.1%(3분기) → 1.9%(10~11월)

■ 수입물가(원화기준), 10~11월 중 마이너스 증가율

- 둔화추세를 보이던 수입물가 상승률이 10~11월 중에는 원화절상과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마이너스를 기록
 - 달러기준 혹은 계약통화 기준 수입물가는 약 10%의 증가세를 지속

〈그림 1-7〉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표 1-10〉 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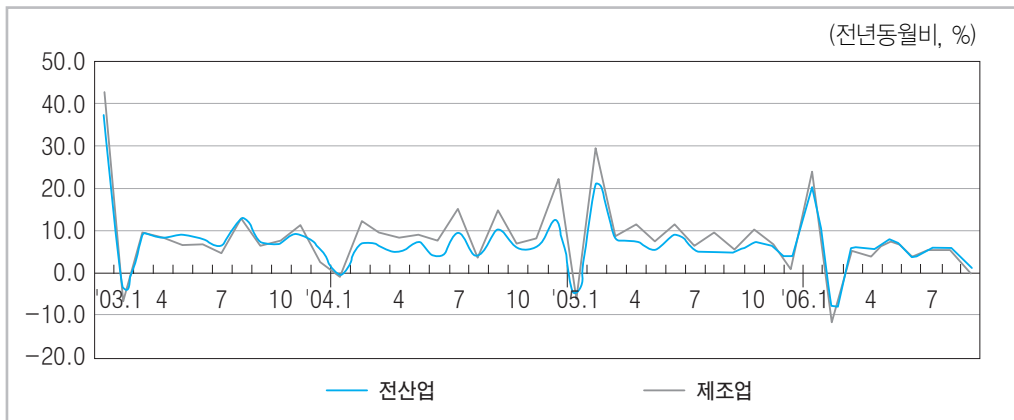
(전년동기비, %)

	2005년			2006년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소비자물가	2.4	2.5	2.8	2.4	2.3	2.5	2.1	2.2	
상품	2.8	3.1	3.2	2.4	1.6	1.8	0.6	1.0	
농축수산물	-0.2	0.6	1.9	0.5	-2.4	0.0	-0.1	1.7	
공업제품	3.9	3.9	3.7	3.1	3.1	2.4	0.8	0.9	
서비스	2.1	2.0	2.4	2.4	3.0	3.2	3.5	3.1	
집세	-0.5	-0.3	-0.2	-0.2	0.3	0.6	1.0	1.1	
공공서비스	2.9	2.2	3.2	3.0	4.1	4.8	5.6	4.4	
개인서비스	2.9	3.0	3.2	3.3	3.6	3.6	3.6	3.4	
근원인플레이션	2.0	1.9	2.3	1.6	1.9	2.2	2.2	2.3	
생산자물가	1.7	1.5	2.2	1.7	2.4	3.1	1.9	1.9	
수입물가	원화기준	4.2	6.2	2.9	8.1	8.8	5.1	-1.4	-0.3
	계약기준	17.1	13.7	15.2	14.7	16.2	13.6	8.1	10.4
	달러기준	17.0	12.2	15.0	13.0	15.4	13.3	8.1	10.9
가공단계별	원재료	20.7	22.8	18.0	22.4	19.0	9.5	0.1	0.0
	중간재	0.1	-0.2	0.9	1.6	3.5	4.8	1.7	0.0
	최종재	0.2	0.9	0.3	0.3	0.5	0.6	0.1	0.0

■ 임금상승률, 소폭 둔화

- 지난해 3분기 이후 5%대의 임금상승률이 올 2~3분기에는 4%대로 하락
 - 건설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이 높은 증가세를 보임.
 - 반면 제조업은 증가세가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은 부진을 지속,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감소세

<그림 1 -8> 상용종업원 월평균 임금(10인 이상 사업체)



〈표 I -11〉 상용종업원 월평균 임금(10인 이상 사업체)

(전년동기비, %)

	2004년	2005년					2006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전산업	6.5	7.4	7.4	5.3	5.7	6.4	5.5	4.1	4.3
제조업	10.0	9.9	9.9	7.1	4.9	7.8	4.9	3.8	3.5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5.3	4.5	12.0	10.3	2.6	7.2	1.6	-5.4	-1.3
건설업	2.7	1.6	1.9	-1.4	1.7	1.0	6.9	6.2	8.9
도매 및 소매업	4.0	9.6	12.6	9.0	16.0	11.8	6.3	6.5	3.1
숙박 및 음식점업	4.6	8.2	4.3	6.6	3.4	5.6	3.5	1.8	0.5
운수업	5.2	7.3	8.8	9.9	9.5	8.9	4.3	1.0	1.4
금융 및 보험업	7.4	8.1	4.8	0.6	9.4	5.7	12.1	9.7	-2.6
부동산 및 임대업	2.7	9.8	10.2	7.3	10.5	9.4	11.8	13.0	5.6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10~11월 중 부동산 가격 오름세 크게 확대

- 계절적 수요, 전세물량 부족에 따른 매매물량으로의 전환수요 증가, 3.30대책 및 판교분양 여파로 억눌렸던 수요 등에 기인

〈표 I -12〉 전국 주택매매가격 증가율

(전기비, %)

	2005년		2006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국	0.0	0.2	0.3	0.5	0.6	0.9	1.0	0.5	0.2	0.2	0.5	1.3	3.1
서울 강북(14개구)	0.1	0.1	0.2	0.3	0.5	0.7	0.7	0.6	0.4	0.3	0.7	1.5	4.1
서울 강남(11개구)	0.3	0.7	1.0	1.2	1.8	2.3	2.2	0.8	0.3	0.2	0.9	0.2	5.4

자료: 국민은행

3. 노동시장

■ 일자리 창출 부진으로 향후 뚜렷한 내수회복세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금년 고용 창출이 30만 명 수준에 불과해서 향후 민간소비 증가 등 가시적인 내수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금년 11월 전체 취업자가 전년동월 대비 26.7만 명 증가해서, 지난해 11월(38.9만 명)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해마다 새로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40~50만 명을 충분히 흡수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
 - 더욱이 금년 11월에 청년층(15~29세)의 고용증가율이 -3.4%로 감소한 반면에, 중년층(30~49세) 고용증가는 제자리걸음에 멈추고 있고, 장년층(50세 이상) 일자리 창출이 6.3%나 증가해서, 일자리의 질이 저하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올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인 35만 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절대적인 일자리 창출의 양이 부족한 상황

〈표 1-13〉 취업자 추이

(천 명, 전년동기비, %)

	2005년			2006년				
	연간	3/4	11월	2/4	3/4	9월	10월	11월
취업자수	22,856	23,026	23,191	23,409	23,314	23,330	23,463	23,458
증감차	299	379	389	283	288	282	278	267
36시간 미만	8.7	16.8	3.7	4.5	2.1	-14.0	4.6	6.1
36시간 이상	0.3	-0.4	1.6	1.0	1.2	3.6	0.8	0.2
15~29세	-2.8	-3.1	-4.3	-4.6	-3.8	-3.7	-4.9	-3.4
30~49세	0.3	0.4	1.3	1.1	0.9	0.9	0.8	0.2
50세 이상	6.9	8.2	7.4	5.8	5.5	5.3	6.3	6.3

자료: 통계청

■ 실업률은 안정적이거나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 추세

- 실업률은 안정적이지만 취업여건이 기대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아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 금년 11월 중 실업자는 76.8만 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2.2% 감소하였고 실업률도 작년 11월에 비해 0.1%p 하락한 3.2% 시현
 - 하지만 11월 청년(15~29세)실업률은 작년 11월에 비해 0.2%p 높아진 7.5%를 기록하며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
 - 더욱이 최근 취업여건이 기대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아 11월 구직단념자가 12.3만 명으로 전월(12.2만 명)에 비해 약 2천명 늘어나고 있고, 11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466.7만 명으로 전년동월 1,451.1만에 비해 1.1% 증가하고 있는 상황

〈표 1-14〉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천 명, 전년동기비, %)

	2004년	2005년		2006년				
	연간	연간	11월	2/4	3/4	9월	10월	11월
실업자	860	887	785	816	799	766	789	768
실업률	3.7	3.7	3.3	3.4	3.3	3.2	3.3	3.2
<15~29세>실업률	8.3	8.0	7.3	7.7	7.5	7.3	8.0	7.5
계절조정실업률	3.7	3.7	3.5	3.5	3.5	3.5	3.5	3.4
비경제활동인구	14,300	14,557	14,511	14,505	14,722	14,758	14,621	14,667
구직단념자	100	125	121	114	120	112	122	123

자료: 통계청

4. 금융시장

(1) 통화지표

■ 광의 통화(M2), 11월 중 증가율이 급증

- M2증가율은 9월 이후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
 - 정부부문의 통화환수에도 불구하고 국외부문의 유동성공급이 증가하고 은행대출을 중심으로 민간신용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한 데 기인
- M1은 익일환매제도 도입으로 수시입출이 제한된 법인MMF가 전년동월 이후 M1에서 제외된 데 따라 11월 중 9% 내외의 급증세를 기록
 - 법인MMF가 제외된 M1-MMF증가율도 8% 중반으로 전월보다 상승

〈표 1-15〉 주요 통화지표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비, %, 평잔기준)

	2005년					2006년				
	1/4	2/4	3/4	4/4	연중	1/4	2/4	3/4	10월	11월
Lf ¹⁾	6.7	6.8	7.3	7.1	7.0	7.2	7.4	7.5	8.8	9 중반
M2 ²⁾	6.5	7.1	7.4	6.7	6.9	7.0	7.2	8.1	10.1	11 내외
M1 ²⁾³⁾	8.1	9.9	13.5	2.6	8.5	-0.6	-2.8	-5.5	-1.9	9 내외
본원통화	1.5	2.5	6.1	6.2	4.1	7.2	7.9	6.1	8.7	5.2

주: 1) 광의유동성(L)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M3가 Lf(금융기관 유동성)로 개칭되어 유동성지표로 활용

2) '04년 4월 이후 시계열 조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에 따른 편제대상 기관 및 상품 확대 반영)

3) '05년 11월 이후 시계열 조정(법인MMF 익일환매제 도입에 따라 종전 M1에서 법인MMF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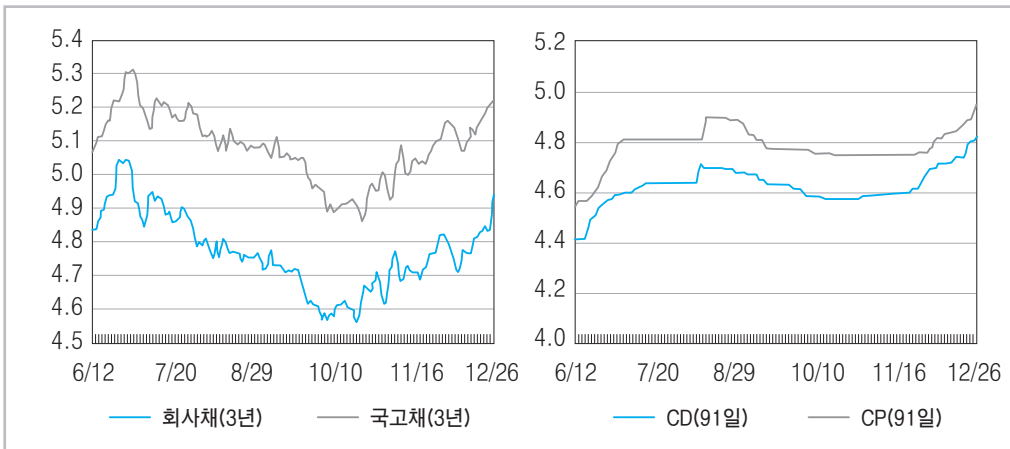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2) 금리

■ 시장금리는 10월 이후 상승세 지속

- 시장금리는 10월 중순까지 소폭의 등락을 보이다가 하순 이후 경기지표 호전,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등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으며 11월 들어 콜금리 동결 결정으로 하락 안정세를 보이다가 11월 23일 기준율 인상과 경기지표 호조 등으로 다시 상승
 - 10월말 4.62%대였던 국고채는 경기지표 호조,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지속, 12월 들어 4.94%까지 상승
- 단기금리는 11월 23일 기준율 인상 발표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어 CD는 4.82%대, CP는 5.01%대까지 상승

〈그림 1-9〉 시장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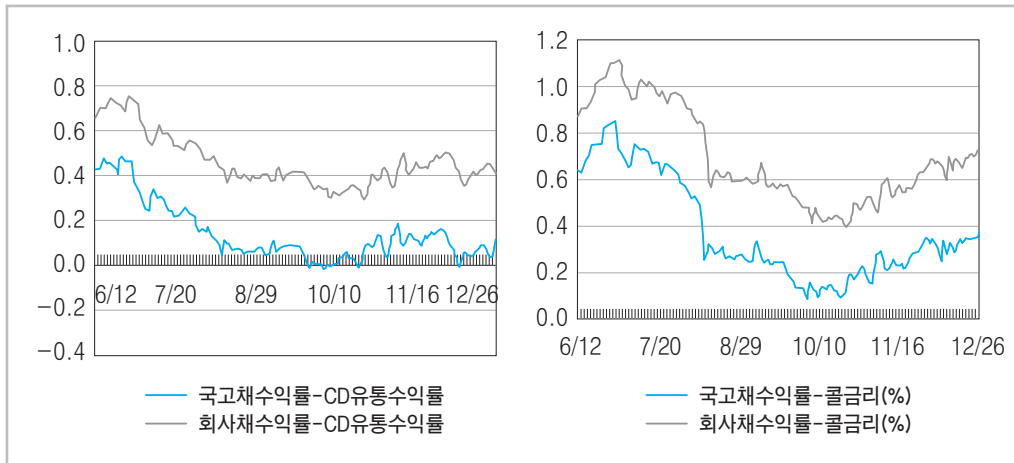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장단기 금리차 및 신용스프레드 소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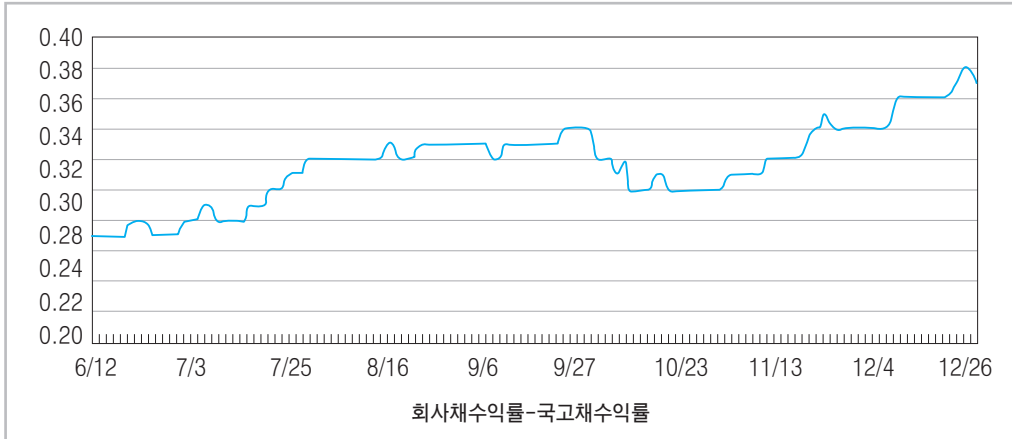
- 정책금리 인상, 경기전망 불투명 등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큰 폭으로 축소되어 9월 중 한때 장단기 금리(국고채수익률과 CD금리)가 역전되기도 했으나 11월 이후 금융당국자의 장기물 비중확대 발언, 한은의 기준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장단기 금리차는 소폭 확대
- 10월 이후 회사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신용스프레드는 상승세를 지속

〈그림 1-10〉 장단기 금리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1-11〉 신용스프레드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표 1-16〉 주요 금리 현황

(연리, %, 말일기준)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12월	3월	6월	9월	12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6일
콜금리(1일물)(A)	3.27	3.25	3.27	3.25	3.70	4.42	4.47	4.48	4.47	4.56
CD유통수익률(91일)	3.39	3.55	3.51	3.70	4.04	4.68	4.64	4.57	4.60	4.82
CP유통수익률(91일)	3.53	3.73	3.64	3.82	4.26	4.86	4.78	4.75	4.75	5.01
국고채(3년)(B)	3.28	4.04	3.79	4.52	5.06	4.77	4.69	4.62	4.72	4.94
회사채(3년, AA-)(C)	3.73	4.48	4.18	4.92	5.49	5.10	5.02	4.93	5.05	5.31
B-A(%P)	0.01	0.79	0.52	1.27	1.36	0.35	0.22	0.14	0.25	0.38
C-A(%P)	0.46	1.23	0.91	1.67	1.79	0.68	0.55	0.45	0.58	0.75
C-B(%P)	0.45	0.44	0.39	0.40	0.43	0.33	0.33	0.31	0.33	0.37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 평균금리 및 대출평균금리 상승

- '06년 10월 현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 평균금리는 4.47%로 전월에 비해 0.10%포인트 하락
 -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은행들의 금리 하향조정 등을 반영, 시장형금융상품금리와 정기예금금리를 중심으로 한 순수저축성 예금금리가 하락
- 10월 중 대출평균금리는 6.09%로 전월에 비해 0.04%포인트 하락
 - 금리 우대조치 등 은행간 대출경쟁 등으로 기업대출금리가 하락하고, CD유통수익률 하락 등에 따른 주택담보대출금리 하락의 영향 등으로 가계대출금리가 하락
 - 공공·기타대출 금리는 일부 공기업에 대한 고금리 대출 제공 등으로 소폭 상승

<표 1-17>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추이

(연%, %p)

	2004년	2005년	2006년				
	12월	12월	7월	8월	9월	10월	월중증감
저축성수신평균금리 ¹⁾	3.41	4.14	4.46	4.52	4.57	4.47	-0.10
순수저축성예금	3.43	4.05	4.39	4.47	4.56	4.47	-0.09
시장형금융상품	3.35	4.27	4.55	4.58	4.58	4.46	-0.12
대출평균금리 ²⁾	5.52	5.74	6.10	6.16	6.13	6.09	-0.04
기업대출	5.54	5.80	6.16	6.20	6.21	6.18	-0.03
(대기업)	5.28	5.24	5.60	5.59	5.62	5.92	0.30
(중소기업)	5.62	5.92	6.27	6.33	6.34	6.24	-0.10
가계대출	5.48	5.63	5.95	6.03	5.90	5.84	-0.06
(주택담보대출)	5.41	5.60	5.79	5.86	5.77	5.69	-0.08
공공·기타대출	4.78	5.01	5.71	5.73	5.51	5.69	0.18

주: 1) 예금은행 수신상품 중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을 제외

2) 당좌대출 및 마이너스통장대출 제외

자료: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

(3) 기업 및 가계의 자금조달

- 은행의 기업대출(원화)은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11월 중 4.5조원의 큰 폭 증가
 - 대기업 대출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은 증가세를 유지
 - 대기업 대출은 10월 중 증가세로 반전했다가 11월에 다시 감소한 반면, 은행이 대출 확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은 설비투자 자금 수요 증가, 외화 대출 억제의 영향 등으로 크게 증가
 - 11월 들어 회사채 및 CP가 순상환을 기록했으며 주식발행이 계속 부진하여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은 저조
 -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계속 부진한 11월 중 0.5조원으로 회복 기미
 - 회사채는 일부 기업의 선차환 발행 등으로 10월 및 11월에 0.4조원 및 1.1조원의 순상환을 기록
 - CP는 일부 공기업의 회사채 발행 확대 3.2조원의 순상환을 기록

<표 1-18> 기업자금조달 추이

(조원, 기간 중 말잔 증감)

	2005년			2006년				2006년 11월말 잔액
	1~11월 중	10월	11월	1~11월	9월	10월	11월	
은행원화대출 ¹⁾	16.7	3.5	2.0	40.1	5.7	4.9	4.5	315.4
(대기업)	4.3	1.4	0.2	-2.5	-0.2	0.4	-1.1	26.1
(중소기업)	12.4	2.1	1.8	42.6	5.9	4.6	5.6	289.3
은행사모사채인수 ²⁾	4.0	0.8	1.2	14.9	1.0	1.0	1.6	29.3
회사채순발행 ³⁾	0.6	-0.9	-1.2	-2.5	1.0	-0.4	-1.1	·
CP순발행 ⁴⁾	2.2	1.7	-0.6	4.4	-0.2	3.0	-3.2	16.9
주식발행	3.1	0.4	0.5	4.4	0.3	0.2	0.5	·

- 주: 1) 은행신탁포함, 산업은행 제외
 2) 국내은행 원화사모사채(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제외)
 3) 일반기업이 발행한 공모회사채(ABS 제외, P-CBO 포함) 기준
 4) 증권사 및 증권사 취급분 기준, 3.25일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표 1-19> 직접금융 자금조달 실적

(억원, %)

구 분	2004년	2005년	2005년 1~11월	2006년 1~11월	전년동기대비	2006년	2006년	전월대비
						10월	11월	
조달총액	586,569	548,664	503,439	426,512	△15.3	43,020	45,036	4.7
주 식	82,787	67,633	57,456	52,672	△8.3	2,767	4,834	74.7
회 사 채	503,782	481,031	445,983	373,840	△16.2	40,253	40,202	△0.1
(일 반)	262,066	221,552	210,556	158,360	△24.8	17,723	16,872	△4.8
(금융채)	79,814	91,250	86,410	97,100	12.4	8,770	10,430	18.9
(A B S)	161,902	168,229	149,017	118,380	△20.6	13,760	12,900	△6.3

- 주: 1) 유가증권신고서 제출(공모), 납입일 기준
 2) 금융채(여전채, 종금채, 증권회사 발행 회사채 등)는 2001년 7월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자료: 금융감독원, 직접금융 자금조달 실적

■은행의 가계대출은 9월 이후 증가폭 확대

- 11월 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6.1조원을 기록한 '02년 10월 이후 가장 큰 5.6조원의 증가폭을 나타냄.
 -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선수요, 주택거래량 증가 등으로 증가폭이 4.2조원으로 확대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은 1.5조원으로 증가세가 지속

〈표 1-20〉 은행의 가계대출

(조원, 기간 중 말잔 증감)

	2005년			2006년				2006년 11월말 잔액
	1~11월 중	10월	11월	1~11월 중	9월	10월	11월	
가계대출 ¹⁾	27.3	1.8	2.3	35.9	3.4	4.0	5.6	340.7
(주택담보대출 ²⁾)	19.0	1.3	1.3	23.6	2.6	2.8	4.2	213.9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8.8	0.5	0.9	12.3	0.9	1.2	1.5	125.2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4) 자금흐름 동향

■금융기관 수신고는 9월 이후 증가세 유지

- 금융기관으로의 자금유입은 7월 들어 전월 비해 감소했으나 8월 이후 양호한 증가세
 - 11월말 주요 금융기관 수신고는 전월 대비 4.6조원 증가하여 952.6조원을 기록
- 11월 중 은행은 증가세로 반전하고 자산운용사, 증권은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증금은 감소세를 나타냄.
 - 11월 중 은행의 수신은 월말 자금수요에 대비한 결제성 자금이 유입되면서 요구불예금이 크게 증가했으나 은행권의 고금리 예금 유치경쟁이 완화되면서 감소세

- 익일매수제 등의 영향으로 5개월 연속 감소에서 전월 증가세로 전환된 자산운용사의 MMF는 11월에도 시중유동성 증가의 영향으로 증가했으며 펀드수탁고도 큰 폭으로 증가
- 증시 회복에도 불구하고 간접투자 선호현상 지속으로 고객예탁금은 정체를 보이며 전월 수준을 유지했으며 MMF의 대체금융상품인 RP 수신고가 지난 6월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증권사의 수신고는 증가
- 종금사의 발행어음은 증가한 반면 CMA와 CP는 수신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감소한 결과 종금사의 수신고는 전월보다 감소

〈표 1-21〉 금융기관 수신고

(조원)

구 분	2003년말	2004년말	2005년말	2006년 9월말	2006년 10월말	2006. 11. 29	
						잔액	월중 증감
은행 ¹⁾	600.1	594.5	626.8	659.3	653.6	655.7	2.1
자산운용사 ²⁾	145.0	187.0	204.3	224.8	230.7	234.9	4.2
증권	14.5	13.3	19.8	26.5	28.3	28.7	0.4
종금 ³⁾	16.2	17.3	23.2	32.3	35.4	33.3	-2.1
합계	775.8	812.1	874.1	942.9	948.0	952.6	4.6

주: 1) 은행은 저축성예금, 요구불예금, CD순발행 및 신탁계정 합계

2) 자산운용사는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취급분 기준

3) 종금은 2개 전업사(금호, 한불)와 은행 및 증권사의 종금계정 포함

자료: 산업은행, 시중자금 동향

〈표 1-22〉 은행 및 자산운용사 수신

(조원, 기간 중 말잔 증감)

	2004	2005	2006				06.11월말
	연평균	연평균	8월	9월	10월	11월	잔액
은행 수신 ¹⁾	-0.1	3.0	4.3	13.6	-7.3	3.7	630.4
(실세요구불예금)	0.2	0.7	-1.7	6.5	-4.5	-0.4	54.0
(수시입출식)	-0.6	1.8	-2.0	5.2	-3.7	3.8	168.3
(정기예금)	0.0	-0.7	4.4	3.2	0.8	-0.5	265.0
(단기시장성)	0.4	1.7	4.2	-1.2	-0.5	0.9	92.2
[은행채]	1.0	0.7	2.8	0.9	0.0	1.4	106.1
자산운용사 수신 ²⁾	3.5	1.4	-1.8	4.0	5.8	4.7	235.4
MMF	1.5	0.4	-3.1	-0.7	3.2	0.8	56.4
주식형	-0.1	1.5	1.3	1.1	0.8	1.7	46.3
채권형	1.8	-2.0	-0.9	1.5	0.7	1.7	52.2
혼합형	-0.4	0.7	-0.2	1.2	-0.4	-0.3	49.4
신증펀드	1.0	0.9	1.2	1.0	0.8	0.8	31.2
증권사 수신	-1.2	-6.5	1.1	1.2	1.8	0.4	28.7
고객 예탁금	-1.4	-3.8	-0.1	-0.2	0.6	-	9.6
RP	0.2	-2.7	1.2	1.4	1.5	0.4	19.1
종금사 수신	-1.1	-5.9	3.5	0.8	3.1	-2.1	33.3
발행어음	0.1	-1.1	1.2	0.6	1.0	0.2	14.2
CMA	-0.3	-0.9	1.0	-0.2	0.5	-0.5	3.7
어음매출(CP)	-0.9	-3.9	1.3	-0.4	1.6	-1.8	15.4

주: 1) 은행채 제외

2) 투자신탁+투자회사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산업은행, 시중자금 동향

- 주요 금융기관의 단기수신은 11월 들어 전월보다 소폭 상승

- 주요 금융기관의 단기수신이 전체수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월말 현재 50.3%로 전월(50.2%)에 비해 0.1%p 상승

〈표 1-23〉 금융기관¹⁾의 단기수신²⁾ 비중

(%, 조원)

	2004년	2005년		2006년				
	12월	8월	12월	8월	9월	10월	11월	11월 평균 잔액
단기물 비중	49.5	52.6	51.8	50.3	50.0	50.2	50.3	451.6
장기물 비중	50.5	47.4	48.2	49.7	50.0	49.8	49.7	44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98.4

주: 1) 은행, 자산운용사, 증권사, 은행신탁의 수신 평균잔액 기준

2) 단기수신: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 6개월 미만 정기예금, CD, MMF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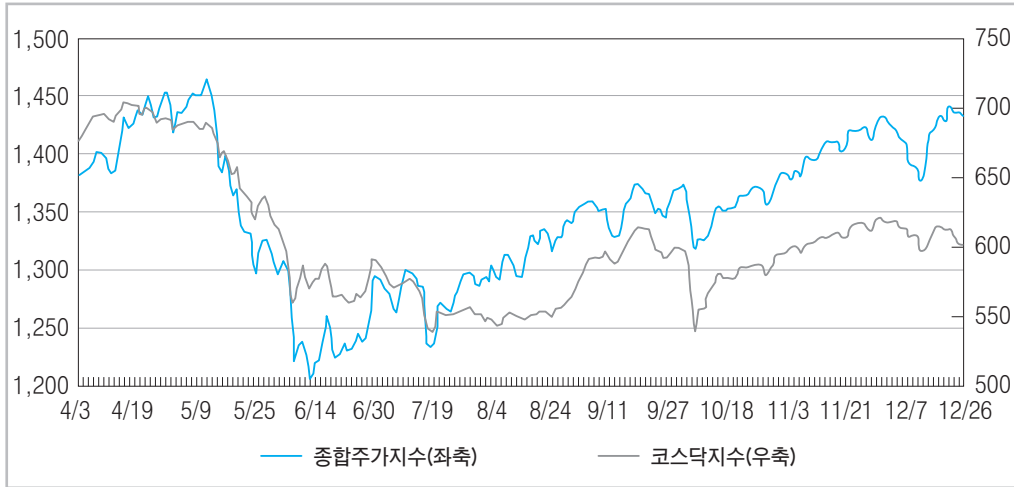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5) 주식시장

■ 주가지수는 12월 이후 조정국면

- 코스피지수는 11월 중 IT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해외증시의 상승세 등에 힘입어 6개월 만에 1,400선에 도달했으나 12월초에 환율하락으로 수출주 약세 등으로 일시 하락세를 보인 후 다시 상승세가 지속
 - 12월 중순 이후 원/달러 환율 안정으로 인한 수출주 강세, 외국인투자 순매수 등의 호재에다 연말 특수 기대로 유통주 및 배당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는데다 내년도 실적 개선 기대로 금융 통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 외국인은 5월 이후 7월간 순매도를 지속하여 왔으나 12월 들어 순매수로 전환
 -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 뉴욕 증시와 중국증시가 사상최고치 경신 및 유럽증시의 6년래 최고치 등 해외증시의 상승세 등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나 원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은 제한될 전망
- 코스닥지수는 10월 중 북한의 핵실험 사태 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다가 11월에는 유가증권시장과 동조화를 보이며 600선을 돌파했으나 연말 수익률 관리를 위한 기관들의 이른바 '윈도드레싱'에 따른 매도공세의 영향으로 600선이 무너지는 약세를 나타냄.

<그림 1-12>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표 1-24> 주식시장 주요지표

(조원, %, 말일기준)

	2004년	2005년	2006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6일
종합주가지수(KOSPI)	895.9	1,379.4	1441.0	1,295.2	1,297.8	1,352.7	1,371.4	1364.6	1,432.2	1,433.9
거래대금(평균)	2.2	3.2	4.1	3.0	2.6	2.7	2.8	2.9	3.0	2.4
시가총액	412.59	655.07	703.7	633.2	636.3	664.9	674.3	669.9	703.3	703.9
연월중 외국인순매수	+10.49	-3.02	-0.40	-2.67	-1.58	-2.45	-1.56	-0.65	-1.60	+1.02
종합주가지수(KOSPI)	380.33	701.79	689.89	590.68	572.66	572.83	600.42	586.10	622.17	590.12
거래대금(평균)	0.6	1.8	1.6	1.2	1.1	1.3	1.6	1.6	1.7	1.9
시가총액	31.1	70.9	72.8	63.8	58.1	64.2	68.1	67.7	73.1	70.3
연월중 외국인순매수	+0.165	+0.64	-0.021	-0.11	-0.14	-0.33	0.07	+0.08	+0.04	+0.03
고객예탁금	8.1	11.9	9.7	9.6	9.3	9.6	9.3	9.6	9.4	9.3

자료: 재정경제부, 주요 금융통계

5. 외환시장

(1) 원화 환율

■ 원/달러 환율은 12월에 910원대에 진입하는 급락세를 보인 후 920~930원 전후에서 등락

-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경기둔화와 금리인상동결, 미·유럽간 금리격차 축소, 해외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액 다변화 움직임 등의 글로벌 달러약세요인과 수출업체들의 달러 선물환 매도 급증 등 원화강세요인이 겹쳐 12월초까지 급락세를 나타냄.
 - 미국 FRB는 8~10월 연방기금금리를 3회 연속 5.25%로 동결
 -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해 12월 이후 6차례에 걸쳐 금리 인상 [2.25%(2005. 12. 1) → 2.50%(2006. 3. 2) → 2.75%(2006. 6. 8) → 3.00%(2006. 8. 3) → 3.25%(2006. 10. 5) → 3.50%(2006. 12. 7)]
 - 환율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수출기업들이 선물환 매도를 늘림.
 - 기업들이 매도한 선물환을 보유하게 된 은행들이 환헤지를 위해 해외차입을 늘린 것이 자본수지 흑자를 확대시켜 원화강세에 한몫
- 원/달러 환율이 11월말 이후 7영업일 연속 하락하여 12월 7일 913.80원에 거래된 후 이틀 연속 급등하다가 다시 하락하여 12일에 922.70원에 마감
 - 7영업일 만에 17원이나 급락한 후 이틀 새 5.70원 상승
 - 12월 6일에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10월 22일의 915.10원 이후 9년 1개월 만에 처음으로 910원대로 하락
-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강화와 수출업체들의 선물환 매도 감소로 원/달러 환율의 급락세는 진정되었으나 원화강세기조는 유지되고 있음.
 - 외평채적자 확대문제로 당국의 외환시장개입 입지가 약화되었으나 12월 8일 원/달러 환율이 8거래일 만에 상승한 데는 당국의 시장개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 930원대 안착 여부를 놓고 미국경제지표의 호조에 대한 기대감과 일본의 금리동결 전망 확산에 따른 달러 강세요인과 연말 결산을 앞두고 수출기업들의 달러 매도, 외국인의 주식순매수 전환 등 원화강세요인의 상호 작용이 930원대 안착 여부를 결정할 전망

〈표 I -25〉 원/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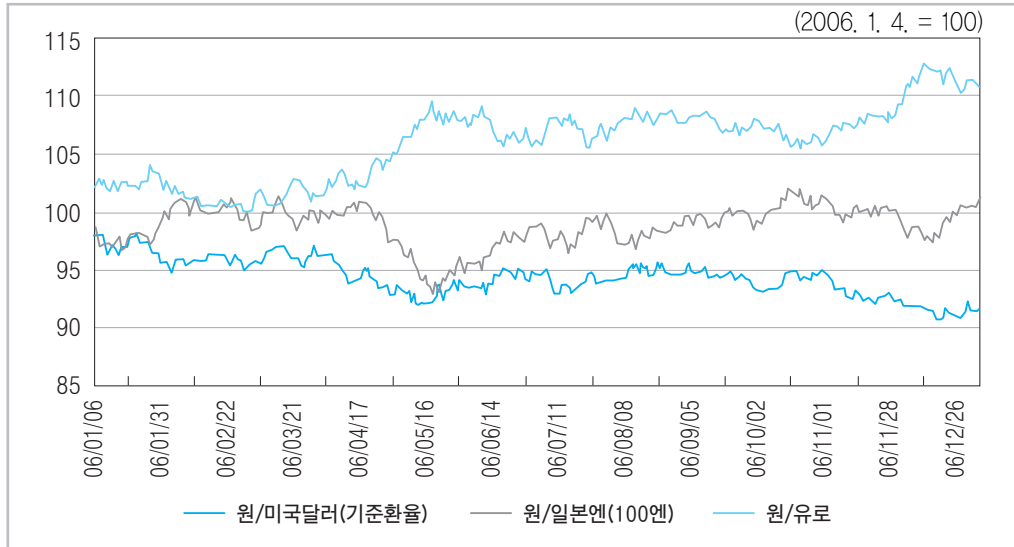
	2005년	2005년	2006년						
	연평균	연평균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1~26
원/달러 환율	1,144.7	1,024.3	955.2	950.2	960.7	953.7	954.2	936.2	925.0
(전년평균 대비, %)	-4.0	-10.5	-6.7	-7.2	-6.2	-6.9	-6.8	-8.6	-9.7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원/달러 환율의 급락세는 진정된 반면 원/엔 환율의 하락세는 지속하여 9년내 최저치를 기록

- 원화는 엔화에 대해서는 11월 이후 일시적으로 100엔당 800원선이 무너지는 강세를 보였으며 12월 7일 이후 700원대로 하락
 - 원/엔 환율은 12월 26일 100엔당 781.56원을 나타내 지난 1997년 10월 27일의 781.56원 이래 최저치를 기록
- 그동안 원/달러 환율이 엔/달러 환율보다 절상률이 높거나 원/달러 환율은 절상하는데 엔/달러 환율은 절하함으로써 재정환율인 원/엔 환율은 2004년 1월말 100엔당 1,012원에서 2006년 12월에 780원대로 하락
- 엔화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기대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
 - 일본의 경우는 11.16 통화정책회의에서 콜금리를 0.25%로 5차례 연속 동결
 - 일본중앙은행은 내년 상반기에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금리인상을 보류할 전망

〈그림 1-13〉 주요 통화 대비 원화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 자본 유출입 현황

■ 올 1~10월 중 자본수지는 127억 달러의 유입초 시현

- 2분기 이후 내국인의 해외주식투자자와 외국인의 증권투자 자금 이탈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데 기인함.
 - 자본수지 흑자규모: 76억 달러('04년) → 47.6억 달러('05년) → 127.2억 달러('06년 1~10월)
 - 외국인 국내직접투자는 3분기에 유출초로 반전했다가 10월 중 4.0억 달러 유입초를 기록했으며,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는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순유출하여 1~10월 중 54.3억 달러의 유출초를 기록
- 증권투자수지는 2분기 이후 유출초를 기록
 - 내국인 증권 투자자금은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순유출하여 했다가 1~10월 중 179.96억 달러의 유출초를 기록

-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은 2분기에 62.1억 달러, 3분기에 37.2억 달러가 순유출했다가 10월에 2.0억 달러 유입초를 기록
- 기타투자수지는 기업들이 매도한 선물환을 보유하게 된 은행들이 환헤지를 위해 해외단기차입을 늘린데다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의 해외 중장기 채권발행도 증가하여 1~10월 중 401.2억 달러의 유입초를 기록
 -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은 1~10월 중 399.6억 달러

〈표 1-26〉 자본 유출입 추이

(십억 달러)

	2004년	2005년	2006년					
	연간	연간	1/4	2/4	3/4	9월	10월	1~10월
자본수지	76.0	47.6	65.2	36.8	47.7	18.1	-22.6	12.7
직접투자수지	45.9	20.1	-13.1	7.8	-36.6	-28.8	-0.6	-4.2
(내국인해외투자)	-46.6	-43.0	-14.4	-14.5	-20.8	-6.8	-4.6	-5.4
(외국인국내투자)	92.5	63.1	1.3	22.3	-15.8	-22.0	4.0	1.2
증권투자수지	86.2	-17.3	14.4	-141.8	-74.0	1.2	-6.1	-18.0
내국인증권투자	-74.0	-106.8	-55.4	-79.6	-36.8	7.2	-8.1	-20.8
(주 식)	-36.2	-36.9	-33.4	-48.8	-9.0	-3.7	-5.0	-9.6
(채 권)	-37.7	-70.0	-22.0	-30.9	-27.7	4.8	-3.1	-8.4
외국인증권투자	160.1	90.0	69.8	-62.1	-37.2	6.1	2.0	-2.8
(주 식)	94.7	32.8	54.3	-66.4	-60.3	-17.7	-2.5	-7.5
(채 권)	65.5	56.6	15.5	4.2	23.1	23.8	4.5	4.7
기타투자수지	-38.6	68.1	70.8	178.8	164.8	41.8	-13.3	40.1
내국인기타투자	-81.4	-26.6	-12.0	-29.4	-15.6	-32.1	-39.8	-9.7
(대 출)	-23.9	2.5	12.3	-1.9	-5.4	-9.9	-27.1	-2.2
외국인기타투자	42.8	94.7	82.9	208.2	180.4	73.9	26.5	49.8
(차 입)	-9.4	10.2	79.1	190.6	126.2	46.7	3.7	40.0
자본이전 및 비금융자산취득수지	-17.6	-23.4	-6.5	-8.0	-6.5	-2.1	-2.7	-2.4
자본이전수지	-17.5	-23.4	-6.9	-8.0	-6.5	-2.1	-2.6	-2.4
비생산·비금융자산 순취득	0.03	-0.005	-0.4	0.002	-0.065	-0.04	0.041	-0.041

주: 순유출입액 기준으로 (+)는 순유입, (-)는 순유출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6. 해외경제

(1) 주요국 경제

■ 미국경제: 성장세 둔화, 물가상승

- 실질GDP성장률 둔화 등 실물지표 부진
 - 3분기 성장률이 2.2%로 2분기보다 하락
 - 산업생산 증가율도 10월 0.0%, 11월 0.2%로 정체 지속
 - 실업률은 2분기 4.7%에서 11월에는 4.5%로 소폭 하락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분기 3.3%에 이어 11월에도 2% 상승
 - 9월 이후 에너지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는 10월 1.3%, 11월 2.0%로 상승세 지속
- 소비자신뢰지수로 볼 때 소비는 상반기에 비해 둔화

〈표 1-27〉 미국의 경제지표

(전기대비, %)

	2005년				2006년				
	연간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실질GDP ¹⁾	3.2	3.3	4.2	1.8	5.6	2.6	2.2	-	-
산업생산 ²⁾	3.3	1.6	1.4	5.3	5.1	6.6	3.6	0.0	0.2
소비자물가	3.4	0.9	1.4	0.8	0.6	1.2	3.3	1.3	2.0
실업률(%)	5.1	5.1	5.0	4.9	4.7	4.7	4.7	4.4	4.5
소비자신뢰지수 ³⁾	100.3	102.3	98.9	95.8	105.6	106.6	103.9	105.1	102.9
무역수지(억 달러)	-7,828	-1,814	-1,987	-2,125	-2,079	-2,106	-2,186	-651	-

주: 1) 전기비 연율 2) 분기수치는 전기비 연율 3) Conference Board(1985=100)

자료: 한국은행, 미연준(Federal Reserve Bulletin)

■ 일본 경기회복세 지속

- 3분기 성장률 2.7%로 전반적인 회복세
 - 3분기에도 높은 수출 증가세 지속
 - 민간소비와 투자 등 내수회복세 지속
- 3분기와 10월의 광공업 생산이 각각 5.4%, 7.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실업률도 4.1% 유지
- 소비자물가는 3분기 이후에도 상승폭 확대
 - 3분기 0.6% 상승한 후 10월에는 0.4% 상승

<표 1-28> 일본의 경제지표

(전년동기 대비, %)

	2005년				2006년			
	연간	2/4	3/4	4/4	1/4	2/4	3/4	10월
실질GDP	2.6	2.6	2.8	3.7	3.6	2.0	2.7	-
(전기비 연율, %)	2.6	5.7	0.8	4.4	2.7	0.8	2.0	-
광공업생산	1.5	0.6	-0.2	3.0	3.2	4.1	5.4	7.4
소비자물가	-0.3	-0.1	-0.3	-0.5	-0.1	0.2	0.6	0.4
실업률(%)	4.4	4.3	4.3	4.5	4.2	4.1	4.1	4.1
수출	7.3	2.9	4.3	6.6	17.6	14.7	15.7	11.5

자료: 한국은행, 일본은행(금융경제통계월보)

■ EU 경제, 회복세 소폭 둔화

- 3분기 이후 산업생산 둔화, 실업률 소폭 하락, 경기체감지수 개선 등
 - 산업생산은 3분기 0.8% 증가 후 10월 0.1% 감소로 반전
 - 실업률은 3분기에 7.8%를 기록한 후 10월에도 7.7%로 소폭 하락
 - 경기체감지수(ESI)의 상승세는 이어져 3분기 110.3에 이어 10~11월에는 각각

111.5, 113.1을 기록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분기 2.1%로 하락한 후 10~11월에는 1.6%, 1.9%를 기록, ECB의 물가안정목표(2.0%)에서 벗어나지 않음.
- 국제유가 하락 등 에너지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물가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표 I -29〉 EU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대비, %)

	2005년				2006년				
	연간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실질GDP	1.4	0.4	0.6	0.4	0.8	0.9	0.5	-	-
산업생산	1.2	0.6	1.0	0.6	1.1	1.3	0.8	-0.1	-
소비자물가 ¹⁾	2.2	2.1	2.3	2.4	2.3	2.5	2.1	1.6	1.9
실업률(%)	8.6	8.7	8.5	8.4	8.1	7.9	7.8	7.7	-
경기체감지수 ²⁾	98.4	96.1	97.9	100.6	103.9	109.0	110.3	111.5	113.1
수출	7.4	6.2	9.9	9.8	16.5	9.5	7.8	16.8	-

주: 1) 전년동기 대비 2) 100 기준

자료: European Central Bank(ECB) Monthly Bulletin, Eurostat

■ 중국경제, 고성장세 유지

-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성장세 다소 완화
 - 3분기 성장률은 10.4%, 고정자산투자(1~11월 누적 기준) 증가율은 26.6%
 - 통화(M2)증가율은 3분기 17.7%에 이어 10~11월에도 17% 수준의 증가세 유지
 - 산업생산은 10~11월 증가율이 14.7%, 14.9%로 다소 둔화
 - 1~11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26.6%)이 1~9월(28.2%)에 비해 하락
 - 소비자물가 증가율은 3분기 소폭 둔화에서 11월에는 다시 상승세
 - 높은 수출증가율에 기인한 무역수지 흑자의 지속

〈표 1-30〉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전년동기 대비, %)

	2005년				2006년				
	연간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실질GDP	9.9	10.1	9.8	9.9	10.3	11.3	10.4	-	-
산업생산	16.4	16.5	16.2	16.4	19.0	18.0	16.2	14.7	14.9
소비자물가	1.8	1.7	1.3	1.4	1.2	1.4	1.3	1.4	1.9
M2	17.6	14.8	17.2	18.0	18.9	18.5	17.7	17.1	16.8
고정자산투자 ¹⁾	27.2	27.1	27.7	27.2	29.8	31.3	28.2	26.8	26.6
무역수지(억 달러)	1,019.0	231.0	288.0	335.0	232.0	380.0	487.0	238.0	229.0

주: 1) 누계기준

자료: 중국국가통계국(통계공보)

(2) 원유 및 국제원자재

■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10월까지 급락

- 중동정정 안정으로 수급차질 우려 완화 및 세계경기 둔화 예상에 따른 수요 약세로 9월에 이어 10월에도 급락세 지속
 - 두바이유는 10월 31일 기준 54.55달러까지 하락
 - CRB 선물가격지수도 9월말 370.10, 10월말 305.87로 급격한 하락세
 - 금선물지수 9월 하락 후 10월말까지 보합세

■ 11월 원자재가격 소폭 상승

- OPEC의 감산, 원유재고 감소, 계절적 수요 증가로 국제유가 상승
 - 11월 1일 OPEC 감산 개시 이후 두바이유 가격은 11월말 58.57달러로 상승
 - CRB 선물가격지수도 11월말 321.53으로 상승
 - 금선물지수도 보합세에서 벗어나 11월말 648로 급등

〈표 I -31〉 유가 및 CRB 지수(기말기준)

(달러/배럴, 1967=100)

	2005년	2006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유가현물(Dubai)	53.27	58.45	57.69	57.89	64.22	65.20	65.24	69.16	68.85	59.93	54.55	58.57
CRB선물지수 ¹⁾	347.89	359.93	353.27	361.91	379.53	379.8	385.63	391.49	390.95	370.10	305.87	321.53
금선물	531.5	574	563.9	586.7	654.5	642.5	613.5	634.2	627.3	598.3	606.6	648.0

주: 1) CRB선물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품목의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1967년=100을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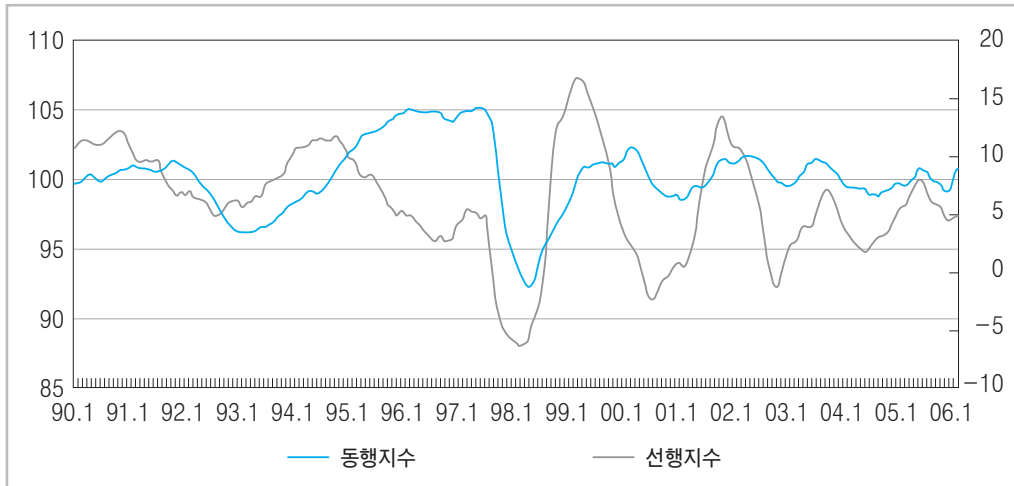
자료: 한국석유공사, CRB

7. 경기에 대한 종합 판단

■ 경기정점은 이미 지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 수출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당초 기대에 비해 내수회복세가 미약해서, 경제주체들이 경기회복을 제대로 체감하지도 못한 채, 경기정점이 이미 지나 현재의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
 - 최근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기성액 산업생산 및 내수출하 등이 개선되면서 3개월째 상승세를 시현
 - 향후 경기국면의 변화를 예고해 주는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전월차도 2개월 연속 상승세로 반전
 - 하지만, 제조업의 재고증가율은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출하증가율은 크게 둔화되고 있어 제조업의 경기는 후퇴하고 있는 상황

〈그림 1-14〉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추이



자료: 통계청

제II장

국내경제전망

1. 대내외 여건
2. 국내경제전망
3. 위협요인

1. 대내외 여건

- 금리인상 지속, 주택경기하강 등으로 미국 등 주요국의 성장세가 약해지면서 2007년 세계경제성장률은 올해에 비해 다소 둔화될 전망
 - 미국경제, 성장세 둔화 전망
 - 주택경기의 하강과 인플레이 우려에 따른 현 정책금리의 유지 등으로 올 2분기부터 시작된 성장세의 둔화가 2007년에도 이어질 전망
 - 중국경제, 고성장세 소폭 하락 가능성
 - 2008년 북경올림픽, 서부대개발 등의 영향으로 고정투자 증가세 지속
 - 그러나 세계 경제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출증가율 하락, 지준율 인상에 따라 유동성 축소 등으로 성장률이 올해에 비해 소폭 하락할 전망
 - 일본경제의 회복세 조정 전망
 - 내수의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미국경기의 조정 등에 의한 수출둔화 등으로 성장세의 미약한 조정 전망
 - 유로지역경제, 성장률 소폭 하락
 - ECB 금리인상(올 들어 5차례)의 여파로 최근 유로지역 경기전망이 갈수록 악화
 - * 독일 성장률(전분기대비 %): 1.1%(2/4분기) → 0.6%(3/4분기)
 - * 프랑스 성장률(전분기대비 %): 1.2%(2/4분기) → 0.0%(3/4분기)
 - 내년에도 몇 차례의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데다 세계경제 둔화 등으로 수출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여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아질 듯

〈표 II-1〉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

(%)

	2005년	2006년	2007년	
			IMF	OECD
세계성장률	4.9	5.1	4.9	2.5*
미국	3.2	3.4	2.9	2.4
일본	2.6	2.7	2.1	2.0
유로	1.3	2.4	2.0	2.2
중국	10.2	10.0	10.0	10.3

주: 1) 2005~2006년은 IMF통계임.

2) * OECD 전체에 국한된 성장률 전망 통계임.

자료: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September 2006.

2) OECD,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06.

■국제유가: OPEC 감산 및 지정학적 위험 등 공급측면의 유가 강세요인과 수요 증가세의 둔화 및 비OPEC 원유생산 증가 등 유가 하락요인의 상호 작용으로 2007년도 국제유가는 60달러(두바이유 기준) 내외에서 유지될 전망

- 유가급락 우려에 따른 OPEC 감산 지속 및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공급불안 전망
 - 11월에 시작된 OPEC 감산 및 그에 따른 선진국 원유재고 감소와 수급차질 우려 증가
 - 이란 핵문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대립 및 이라크 정정불안 등 중동지역의 불안 지속
- 수요 증가세 둔화 지속 및 비OPEC 원유생산 증가 전망
 - 지속적인 고유가로 인해 2006년에 이어 내년에도 수요증가세 둔화 지속 전망
 - 미국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 따르면 러시아, 아프리카, 브라질 등 비OPEC국가의 원유생산 증가 전망
- OPEC 감산과 계절적 요인으로 다시 상승한 국제유가(두바이유가격 58.78 달러, 12월 21일 현재)는 2007년에는 위의 두 가지 요인의 상반된 작용으로 배럴당 60

달러 내외에서 유지될 전망

■국제금융시장, 고금리 및 달러약세 등으로 불안정성 증대

- 인플레이 우려, 과잉유동성 해소 등을 위해 금리인상 추세
 - 미국 연방기금금리: 4.00%(2005년 12월) → 5.25%(2006년 12월 현재), 5차례 인상
 - 일본 콜금리목표: 0.00%(2005년 12월) → 0.25%(2006년 12월 현재), 1차례 인상
 - ECB 정책금리: 2.25%(2005년 12월) → 3.25%(2006년 12월 현재), 5차례 인상
 - 중국 기준율: 7.5%(2005년 12월) → 9.0%(2006년 12월 현재), 3차례 인상
 - 한국 콜금리목표: 3.75%(2005년 12월) → 4.50%(2006년 12월 현재), 3차례 인상
- 달러화, 미-EU, 미-일간 성장 및 금리 격차 축소, 외환다변화 등으로 약세기조 전망

■한국경제의 대내여건: 불확실성 증대

-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정책혼선과 사회혼란
 - 2007년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사회적 혼란과 이완된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표류할 가능성
 - 또한 일부 대선 후보들이 대중영합적 공약이나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이슈를 부각할 경우 경제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음.
 - 하지만 연말 대통령 선거결과가 확정되면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
- 경기둔화에 따른 경기부양적 정책 추진 가능성
 -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리스크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음.

2. 국내경제전망

■전망의 전제

- 주요국 경제성장률 ⇒ 미국(2.9%), 중국(9.8%), 일본(2.2%)
- 국제유가: 산유국들의 정정불안 등 상승요인이 있으나 전체적인 수요 둔화가 예상
→ 두바이유 기준으로 2007년 평균 60달러/bbl 내외

■성장률 둔화: 2006년 5.0% → 2007년 4.1%

- 고용 및 소득 증가세 둔화, 주택보유자 세부담 증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 설비투자압력(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지난해 4분기 이후 80%대 지속)이 증가하고 있지만 불투명한 경기, 기업투자환경 개선 미흡, 대선정국과 관련한 정책혼선 등으로 설비투자의 가시적 증가는 어려움
- 기업도시, 민자사업 등 공공건설 투자확대 계획, 2006년 마이너스 증가율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올해보다는 개선되겠으나 부동산경기 억제 정책의 영향 등으로 건설투자의 부진 지속
- 미국 등 주요국 경제의 성장 둔화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가 예상되나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 등 IT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전망(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는 내년 세계반도체 매출액이 약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수출증가율의 제한적 둔화

■소비자물가 안정세 지속: 2006년 2.3% → 2007년 2.3%

- 성장둔화, 원화절상, 국제유가 안정 등이 물가안정요인
 - 하지만 그동안 누적된 고유가 및 부동산가격 상승 영향이 내년 물가상승률 하락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 경상수지 적자 전환: 2006년 59억 달러 흑자 → 2007년 29억 달러 적자

-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 ⇒ 상품수지 흑자폭 감소
 - 2007년 수출증가율 9.8% < 2007년 수입증가율 12.2%

- 서비스 부문의 낮은 경쟁력 ⇒ 서비스수지 적자확대 추세 지속

■ 시장금리 하향 안정세: 2006년 5.2% → 2007년 5.1%

- 전반적으로 경기둔화, 물가안정 추세 등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전망
- 하지만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금리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내년 초반까지는 소폭 상승할 가능성

■ 원화환율 하락: 2006년 955원 → 2007년 929원

- 글로벌 달러 약세요인이 가장 큰 요인
 - 미국의 경상수지 개선 미흡, 미국 경기둔화 가능성, 유로의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금리스프레드 축소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달러 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위안화의 절상 추세도 원화환율 하락 요인
 - 하지만 한국의 경기둔화, 경상수지적자 전환 등은 환율하락을 제약하는 요인

〈표 II -2〉 2007년 국내경제전망

(전년동기비, %, 억 달러)

	2005년	2006년		2007년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GDP	4.0	5.7	4.5	5.0	3.9	4.3	4.1
(SA, 전기비 연율%)		4.9	4.1		3.7	4.8	
민간소비	3.2	4.6	3.9	4.2	3.6	4.0	3.8
건설투자	0.4	-1.9	-0.5	-1.1	0.5	1.4	1.0
설비+무형고정자산	4.9	7.1	7.8	7.5	5.5	6.4	5.9
수출(재화+서비스)	8.5	13.7	11.6	12.6	8.5	8.3	8.4
수입(재화+서비스)	6.9	12.9	10.1	11.5	8.7	9.3	9.0
소비자물가	2.8	2.3	2.4	2.3	2.2	2.4	2.3
생산자물가	2.1	2.1	2.5	2.3	1.9	1.7	1.9
경상수지(억 달러)	165.6	-4.3	62.9	58.6	-12.2	-16.7	-28.9
상품수지(억 달러)	334.7	126.4	163.3	289.6	133.0	113.4	246.4
수출(억 달러, BOP기준)	2,890.0	1,579.3	1,746.6	3,325.9	1,751.5	1,901.0	3,652.5
증가율%	12.1	13.9	16.2	15.1	10.9	8.8	9.8
수입(억 달러, BOP기준)	2,555.2	1,452.9	1,583.4	3,036.3	1,618.4	1,787.6	3,406.1
증가율%	16.4	19.6	17.5	18.8	11.4	12.9	12.2
서비스 및 기타수지	-169.1	-130.6	-100.4	-231.0	-145.2	-130.1	-275.2
환율(원/달러, 평균)	1,024.0	963.1	946.7	954.9	937.5	920.0	928.8
회사채수익률(3yrs, AA-)	4.7	5.3	5.1	5.2	5.2	5.0	5.1
실업률(%)	3.8	3.7	3.3	3.5	3.8	3.4	3.6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분기모형

3. 위험요인(Downside Risk)

■북핵실험과 같은 지정학적 위험은 속성상 돌발적 변수가 많아 우리 경제에 커다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북한문제가 악화될 경우 소비와 투자심리의 위축, 주가, 환율 등 금융변수의 변동성 확대, 국가신용등급의 하락 및 자본유출 등을 통해 성장률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전망

- 사회불안심리 확산으로 원활한 소비활동이 제한
- 환율상승으로 수입물가가 급등하고 원자재, 생필품의 사재기현상 발생하면서 소비자물가 급등
- 채권가격 급락, 외국자본의 급속한 유출에 따른 원화환율의 급등을 억제 등으로 시장금리 상승
- 불안고조로 외국자본의 급속한 유출과 미국 달러 등 안전통화 사재기현상이 벌어지면서 원/달러 환율 급등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가격안정 조치가 추가될 경우 주택 가격의 경착륙 가능성 배제 못함.

- 내년에도 부동산문제가 지속되어, 금리인상, 대출규제 강화 등 정부의 추가적 조치가 있을 경우, 이는 가계부문의 부실, 건설경기 위축 등을 통해 성장률을 하락시킬 것임.

- 보유세가 크게 증가한데다 추가적인 금리인상조치가 실행될 경우, 가계부문의 주택보유비용이 상승해 주택매도가 급증하게 되고 주택가격 급락가능성 높음.
- 주택가격 급락으로 인한 가계의 자산손실은 가계대출을 크게 늘린 금융부문의 중개기능 약화로 연결
- 또한 건설경기의 위축을 초래하면서 내수부문의 회복을 지연시킬 우려

<특별부록>

BRIC ■ Ks Reports*

1. 브라질
2. 러시아
3. 인 도
4. 중 국

* BRIC ■ Ks Reports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4개국 경제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연2회 발간되는 보고서임. 올 6월 창간호를 발간하였으나 이번부터는 본 보고서에 합본으로 발간함.

1. 브라질

(1)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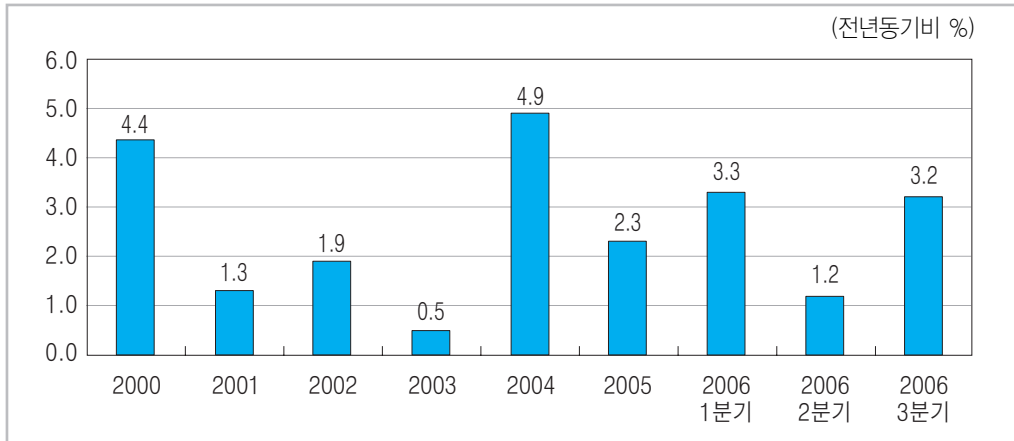
【경제성장 및 생산】

■ 2006년 경제성장률이 당초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칠 전망

- 브라질 정부가 연초 예상했던 4.0%대에 못 미치는 3.0% 이하의 성장이 전망됨.
 - 전년의 성장률 2.3%에 이어 저조한 성장률로 올해 개도국의 평균 성장률인 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 분기별 성장률은 부활절 특수의 영향으로 1분기에 급등한 후 부활절 및 월드컵 축구대회 등으로 인한 조업일수 단축 탓으로 2분기에 급락하였으며, 3분기에는 금리인하에 따른 소비증가와 기업들의 생산증가를 위한 투자증가로 회복세를 나타내었으나 평균 예상치인 3.4%를 하회함
 - 3.3%(1분기) → 1.2%(2분기) → 3.2%(3분기)
- 내년 성장률도 플라정권이 장담했던 5%대의 성장은 어려울 전망
 - 브라질 정부 내에서는 내년 성장률을 4%대로 낮춰 잡고 있음
 - 브라질 주요 경제연구소들의 예측치는 2.8~3.6%¹⁾

1)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고서 2006. 12. 15 참조.

〈그림 A-1〉 브라질의 GDP증가율 추이



자료: Banco Central Do Brazil(www.bcb.gov.br)

■ 2006년 1~10월 기간 중 산업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2.73%(연율로는 2.86%) 증가하여 2004년 및 2005년의 증가율 8.3% 및 3.1%보다 저조.

- 산업생산의 부진은 올해 성장률 둔화의 주요 요인이 됨.
- 산업생산은 7월 전년동월 대비 3.5%, 8월 3.2%, 9월 1.3%로 하락세가 지속되다가 10월에는 4.8%로 회복세로 반전
- 계절 조정치 전월 대비 산업생산은 8월 0.69%, 9월 -1.08%로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10월에는 0.81%로 반전
- 전산업에 걸친 생산둔화 속에 제조업 생산증가율의 둔화가 두드러짐.
 - 제조업: 8.5%('04) → 2.7%('05) → 2.47%('06. 10월의 전년동월 대비)
 - 의류(-6.8%), 가죽/신발(-3.4%), 목재(-7.9%) 생산은 감소
 - 반면 사무/컴퓨터기기(53.7%), 전자/통신기기(12.0%)는 높은 증가
- 용도별로 보면, 자본재와 내구소비재 생산증가율이 돋보임.

- 자본재 생산 5.0% 증가
- 중간재 생산 2.0% 증가
- 내구소비재 생산 6.3% 증가

<표 A-1> 용도별 생산지수 변화추이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자본재	13.1	13.5	-5.8	2.2	19.7	3.6	5.0
중간재	6.8	-0.1	4.2	1.9	7.4	1.0	2.0
소비재	3.5	1.2	1.5	-2.8	7.3	6.1	3.4
내구재	20.8	-0.6	4.7	3.0	21.8	11.4	6.3
비내구재	-0.4	1.6	1.1	-4.0	4.0	4.6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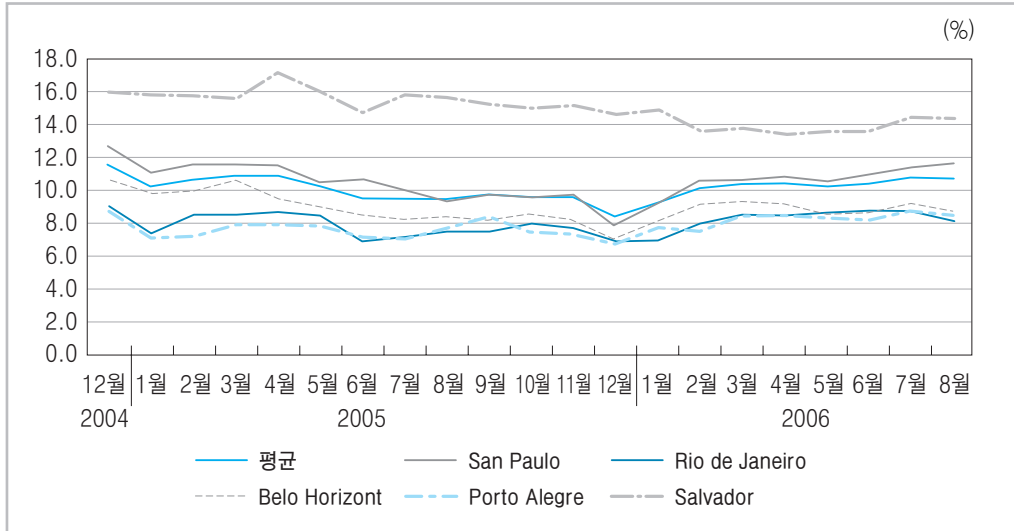
주: 2006년은 1~9월 자료임.

자료: Banco Central Do Brazil(www.bcb.gov.br)

■ 실업률은 하반기 이후 하락하는 추세

- 2005년 감소세를 보인 실업률이 2006년 상반기 중 악화하다가 7월 이후 하락
 - 2005년 10.2%(1월) → 9.4%(6월) → 8.3%(12월)
 - 2006년 10.7%(7월) → 10.0%(9월) → 9.8%(10월)
- 지역별로 편차는 있으나 전국적으로 비슷한 추세
 - Sao Paulo: 7.8%('05년 12월) → 10.7%('06년 4월) → 11.6%('06년 8월)
 - Rio de Janeiro: 6.8%('05년 12월) → 8.4%('06년 4월) → 8.2%('06년 8월)
 - Belo Horizonte: 7.0%('05년 12월) → 9.1%('06년 4월) → 8.7%('06년 8월)
 - Porto Alegre: 6.7%('05년 12월) → 8.3%('06년 4월) → 8.3%('06년 8월)
 - Salvador: 14.6%('05년 12월) → 13.4%('06년 4월) → 14.3%('06년 8월)
 - Recife: 13.9%('05년 12월) → 16.5%('06년 4월) → 14.9%('06년 8월)

<그림 A-2> 최근 실업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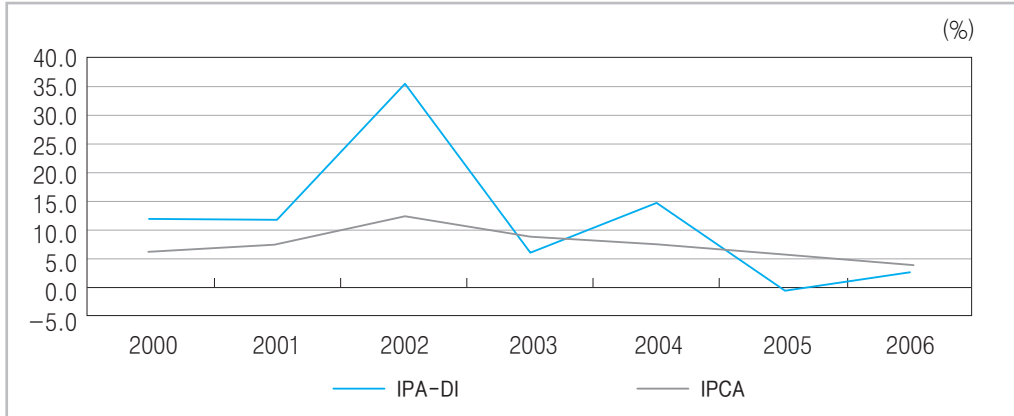
자료: Banco Central Do Brazil(www.bcb.gov.br)

【경제안정성】

■ 경제기조의 건전성 증대

- 1995년까지만 해도 60%가 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2년을 제외하고 10% 이 내로 안정
 - 5.97%('00년) → 7.67%('01년) → 12.53%('02년) → 9.30%('03년) → 7.60%('04년) → 5.69 %('05년)
 - 2006년 들어서도 하락세 지속: 5.7%(1월) → 4.0%(6월) → 3.0%(11월)

〈그림 A-3〉 소비자물가 상승률 변화 추이



주: IPA-DI: Wholesale Price Index(Domestic Supply)

IPCA: Broad National Consumer Price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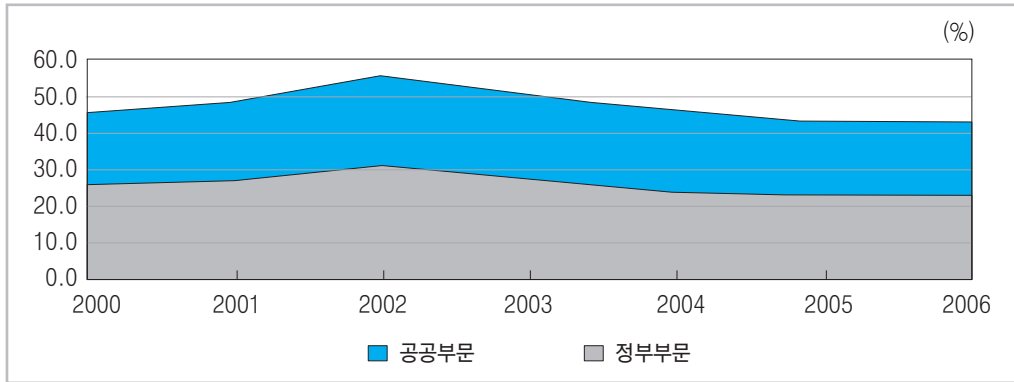
2006년은 1~8월 자료임.

자료: Banco Central Do Brazil(www.bcb.gov.br)

— 공공부문 부채비율(GDP 대비)은 2002년을 정점으로 하락하여 재정안정성이 점차 개선

- 전체: 45.5%('00년) → 49.2%('01년) → 55.9%('02년) → 50.4%('03년) → 45.5%('04년) → 42.9%('05년) → 41.9%('06년 10)
- 정부: 26.0%('00년) → 27.1%('01년) → 31.1%('02년) → 27.6%('03년) → 23.6%('04년) → 23.0%('05년) → 23.4%('06년 10월)

<그림 A-4> 공공부문 부채 동향



주: 각 연도 연말 기준임. (2006년은 1~10월 자료임)
 자료: Banco Central Do Brazil(www.bcb.gov.br)

■ 국가신용등급의 개선

- 룰라 대통령 재선 성공 이후 국가신인도가 상승
 - S&P는 룰라 대통령의 재선 성공에 따라 브라질 정부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정적자 축소 및 대외채무 감소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11월 22일 브라질의 국내신용등급(brAA+)에 대한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 조정

- S&P는 신용등급 상향조정의 배경으로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에 따른 대외채무 부담 경감과 재정의 건전화 추세 등을 지적
 - 외환보유액이 2001년 357억 달러에서 2003년 491억 달러, 2006년 6월말 627억 달러로 증가
 - 총외채는 2003년 2,149억 달러를 정점으로 2006년 6월말 1,567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며, 순외채는 같은 기간 중 1,510억 달러에서 794억 달러로 감소. 이는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와 외국인 투자 증가에 기인

〈표 A-2〉 브라질 외채동향

(백만 달러,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6월
총외채	209,934	210,711	214,930	210,374	169,450	156,661
총외채/GDP	44.5	49.6	46.6	36.4	21.2	19.2
외환보유액	35,866	37,823	49,296	52,935	53,799	62,670

자료: Banco Central Do Brazil(www.bcb.gov.br)

【대외거래】

■ 꾸준한 대외교역의 증가

- 2005년 사상 처음 수출액 1,000억 달러 돌파 후 상승세 지속
 - FOB 기준 2006년 1~11월 기간 중 1,252억 달러 달성
 - 같은 기간 중 브라질의 수입액은 841억 달러로 410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임.

〈표 A-3〉 수출입 통계

(백만 달러)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출	55,086	58,223	60,362	73,084	96,475	118,308	125,239
수입	55,839	55,572	47,237	48,305	62,813	73,592	84,154
무역수지	-753	2,650	13,125	24,780	33,662	44,717	41,085

주: 2006년은 1~11월 자료임.

자료: Banco Central Do Brazil(www.bcb.gov.br)

〈표 A-4〉 2006년 브라질 국제수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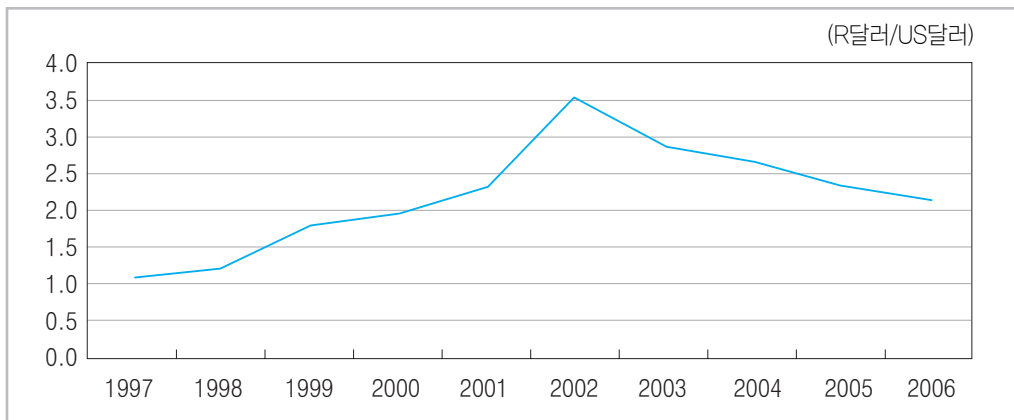
(백만 US달러)

구 분	05.11	05.1~11	06.11	06.1~11
경 상 수 지	1,731	13,626	1,520	13,182
상 품 수 지	4,086	40,408	3,194	41,084
수 출	10,790	107,412	11,866	125,239
수 입	6,703	67,004	8,672	84,154
서비스 및 소득수지	-2,672	-30,004	-2,055	-31,859
이 전 수 지	317	3,222	381	3,956
자 본 수 지	57	692	89	839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2006. 12.

- 2002년 이후 레알화 가치상승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고 있음
 - 레알/달러 환율(연말 기준): 3.53('02년) → 2.89('03년) → 2.65('04년) → 2.34('05년) → 2.15('06년 11월)
 - 그러나 1990년대 후반과 비교하여서는 레알화 가치가 여전히 낮은 수준: 1.12('97년) → 1.21('98년) → 1.79('99년) → 1.96('00년) → 2.32('01년)

〈그림 A-5〉 레알/달러 환율



주: 연말 기준(2006년 1~11월 자료)

자료: Banco Central Do Brazil(www.bcb.gov.br)

■ 외국인직접투자

- 남미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국이며 개발도상국 가운데 중국에 이어 2위
 - 2005년 브라질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150억 달러에 달했으며 2006년 1~10월 기간 중 136억 달러를 기록
 - 2001~2003년의 세계경기불황과 민영화계획 축소로 직접투자 유입액이 급격히 줄었으나 2004년부터 다시 증가추세

【한국과의 교역 · 투자 관계】

■ 한 · 브라질 교역규모의 증대

- 2006년 1~10월 기간 중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은 26억6천만 달러를 상회하여 전년동기 대비 33.5% 증가
 - 2004년 57.0%의 높은 성장에 이은 3년 연속 증가세 기록

〈표 A-5〉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입 추이

(백만 달러)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10월
수 출	1,137 (-8.8)	1,785 (57.0)	2,411 (35.1)	2,665 (33.5)
수 입	1,619 (29.7)	2,195 (35.6)	2,501 (13.9)	2,159 (9.5)
무역수지	-482	-410	-90	506

주: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한국의 대브라질 수입은 2005년 이후 증가세 둔화
 - 2003년 29.7%, 2004년 35.6%로 3년 연속 증가했으나 2005년에는 13.9%, 2006년 1~10월에는 9.5%로 증가율 둔화

- 양국간 교역은 2006년 들어 우리나라의 흑자로 반전
 - 2003년 이후 무역적자폭이 감소하다가 2006년 1~10월 기간 중 5억 달러의 흑자 기록

<표 A-6> 한·브라질간 주요 품목(중분류)

(천 달러)

품목	수 출						품목	수 입					
	2004년		2005년		2006년(1~10월)			2004년		2005년		2006년(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농림수산물	2,408	-5.9	3,609	49.9	2,892	1.8	농림수산물	705,228	45.5	616,914	-12.5	501,024	2.2
화학공업제품	153,001	21.9	243,801	59.4	215,610	10.3	광산물	689,102	33.4	1,021,131	48.2	857,433	5.4
철강금속제품	34,427	66.4	46,169	34.1	70,875	81.4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철강금속제품	24,804	51.8	44,473	79.3	38,726	7.5
기계류	147,696	48.3	255,407	72.9	388,150	87.3	전자제품	476,446	29.6	611,324	28.3	432,555	-8.1
전자전기제품	1,249,515	67.9	1,654,048	32.4	1,799,801	30.4	전자전기제품	17,421	-23.6	24,696	41.8	13,205	-36.4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세부 품목별 교역

- 기계류, 철강금속류, 전자전기제품, 화학공업제품 등에서 높은 수출증가율 기록
 - 2006년 1~10월 기간 증가율: 기계류(87.3%), 철강금속류(81.4%) 전자전기제품(30.4%), 화학공업제품(10.4%)
 - 금액 면에서 보면 전자전기제품이 17억9천9백만 달러로 전체의 67.5% 차지

〈표 A-7〉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 5대 품목

(백만 달러, 전년동기비 %)

품 목 명	2005년			2006년 1~10월		
	금액	비중	증가율	금액	비중	증가율
총 계	2,411	100.0	35.1	2,665	100.0	33.5
1. 전기기기와 그 부품	1,454	60.3	32.7	1,546	58.0	27.2
2.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347	14.4	47.1	367	13.8	27.5
3.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47	6.1	69.3	122	4.6	2.8
4.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67	2.8	67.2	110	4.1	101.8
5. 철도용 기관차량 및 부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 및 부품	4	0.2	-	78	2.9	-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플라스틱/고무/가죽, 광산물에서 수입이 증가한 반면 철강금속제품, 전자전기제품의 수입은 감소
 - 2006년 1~10월 기간: 플라스틱/고무/가죽(7.5%), 광산물(5.4%), 전기전자(41.8%) 증가했으나 철강금속제품(-8.1%), 전자전기제품(-36.4%)은 수입이 감소
 - 금액 면에서 보면 광산물이 8억5천7백만 달러로 전체의 39.6% 차지

〈표 A-8〉 한국의 대브라질 수입 5대 품목

(백만 달러, 전년동기비 %)

품 목 명	2005년			2006년 1~10월		
	금액	비중	증가율	금액	비중	증가율
총 계	2,501	100.0	13.9	2,159	100.0	9.5
1. 광, 슬랙, 회	797	31.9	53.2	678	31.4	5.8
2. 철강	601	24.0	33.1	408	18.9	-11.6
3. 광물성연료·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207	8.3	28.1	167	7.7	3.9
4. 채유용 종자. 과실, 각종 종자,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 사료식물	135	5.4	47.5	128	5.9	29.1
5. 목재펄프, 섬유질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지. 판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78	3.1	3.2	103	4.8	73.2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양국간 투자관계

- 2006년 1~10월 기간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직접투자액은 9,252만 달러(신고기준)

〈표 A-9〉 한국과 브라질 양국간 직접투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1~6월)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대브라질 투자	14,430	3	9,350	5	23,414	1	216,549	14	92,534	4
대한국 투자	2,619	2	529	5	0	0	900	2	-	-

자료: 산업자원부(<http://www.mocie.go.kr/index.jsp>)

한국수출입은행(<http://www.koreaexim.go.kr>)

(2) 룰라 대통령 재선과 경제정책 방향²⁾

【룰라 대통령의 재선 배경】

- 소득불평등 해소정책의 성공
 - 부정부패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룰라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된 것은 적극적인 소득불평등 해소정책에 힘입어 인구의 과반수인 빈곤층의 몰표를 얻은 데 있음.
 - 집권 1기 중 기아제로(Fome Zero), 저소득층 가족 생계 수당 지급(Bolsa Familia) 등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에 관심
 - 경제안정과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빈곤층이 2002년 34.3%에서 2005년 30.7%로 하락했으며,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같은 기간 중 0.589에서 0.569로 하락

- 거시경제의 안정 달성
 - 물가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강력한 고금리정책을 통해 물가불안의 우려를 불식
 - 브라질 중앙은행은 2004년 9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6.75%에서 19.75%로 3%포인트 인상
 - 2004년 하반기부터 2005년 4월까지 높은 증가세를 보이던 월별 물가(IPCA)는 2005년 5월부터 하락세로 반전하였으며, 그 결과 2002년 12.5%에 달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5년 5.7%까지 하락
 - 집권 기간 중 추진해 온 고금리 처방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늘어나고 수출도 증대되어 외환보유고가 확대되고 외채도 급감하는 등 브라질 경제의 신인도가 높아짐.
 - 물가안정을 반영, 브라질 중앙은행은 2005년 9월부터 금리를 인하, 2006년 11월 말 현재 기준금리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5%포인트 낮은 13.25%까지 인하됨.
 - 고금리 기조를 완화하면서 성장률 전망 등 경제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하며 룰라의 지지도 상승

2) 권기수, 「룰라 2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브라질 경제 전망」, BRICs 세미나 발표논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11의 주요 내용을 참조.

【틀라 2기 정부의 경제정책 전망】

- 틀라 1기 정부는 수출증가, 무역흑자 확대 및 외채구조 개선, 정부부채 감소, 환율 안정 및 물가 안정 등의 경제적 성과를 거둔 반면 경제성장 정체, 연방 정부 지출 악화 등의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 강도 높은 고금리 정책 및 긴축 재정정책을 추진한 결과 경제안정의 토대는 구축했으나 경제성장은 희생된 측면이 있음.
 - 전반적인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연방정부의 지출은 국채발행 확대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증가
 - 연방정부 세수를 고정비용, 사회보장지출, 국채이자에 충당하느라 정부의 투자는 제한되어 R&D투자가 2003년 GDP 대비 1%에서 2004년 0.9%로 하락
 - 늘어나는 정부지출 재원 마련을 위해 세수를 확대하느라 조세부담률이 2002년 34%에서 2006년 40%로 늘어남으로써 과도한 조세부담이 기업들의 투자를 저해
 - 브라질의 국가경쟁력 순위(IMD기준)는 2002년 37위에서 2006년 52위로 추락

- 집권 2기 틀라 정부는 기존의 거시경제정책의 3대축인 변동환율, 긴축재정, 물가목표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안정에서 경제성장으로 전환할 전망
 - 틀라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율을 GDP 대비 20%에서 25%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
 - 성장을 통한 재분배정책 효과가 수반되지 않으면 빈곤퇴치는 요원함을 잘 인식하고 있음.
 - 수차례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금리 수준은 아직 너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생산 및 소비증대를 위해 경쟁력 있는 수준까지의 금리인하를 중앙은행에 요망할 것으로 보임.
 - 브라질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를 정리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경제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듯
 - 집권 1기에 중단된 세제개혁과 연금개혁을 다시 추진할 전망
 - 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단일 부가가치세 도입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 정부부채의 주범인 사회보장 부문의 적자 감축을 위해 연금개혁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2. 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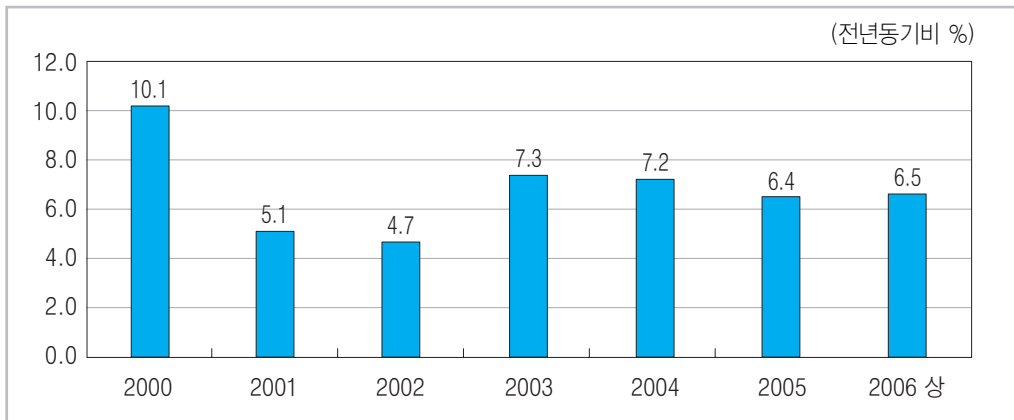
(1) 경제동향 및 전망

【경제성장 및 생산】

■ 국제유가 강세로 2006년 성장세 소폭 상승

– 실질GDP: 2005년 6.4% → 2006년 상반기 6.5%

〈그림 A-6〉 GDP증가율 추이



자료: The Central Bank of Russian Federation(www.cbr.ru)

- 상반기 소비, 투자, 수출증가세가 지난해 평균에 비해 확대
 - 가계소비: 2005년 11.1% → 2006년 상반기 11.4%
 - 고정투자: 2005년 10.5% → 2006년 상반기 14.1%
 - 수출(실질): 2005년 6.3% → 2006년 상반기 6.8%
- 그러나 에너지생산 증가율 정체 및 루블화 절상 등으로 수출증가율이 2002~2004년의 10%대에서 2005~2006년 중에는 6%대로 둔화
 - 원유생산: 2004년 8.9% → 2005년 2.2% → 2006년 1~10월 2.2%

- 천연가스: 2004년 2.8% → 2005년 1.0% → 2006년 1~10월 2.5%
- 루블/달러: 2004년 28.81 → 2005년 28.25 → 2006년 1~10월 26.86

■ 올 1~10월 중 이후 산업생산 증가세 지난해에 비해 소폭 반등

- 전산업기준으로 생산은 4.3% 증가(지난해에는 4.0%)
 - 석유 및 천연가스 등 광업의 생산증가세가 낮았으나 전기·가스·수도업이 높은 증가세를 보인 데 기인
 - 제조업은 루블화 강세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증가세 둔화

〈표 A-10〉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비 %)

	2004년	2005년			2006년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0월
전산업	8.3	4.1	4.9	4.0	3.0	6.0	3.8	5.4	4.3
광업	6.9	0.5	1.9	1.3	1.3	3.0	2.9	0.6	2.2
제조업	10.5	6.0	7.3	5.7	3.2	7.0	4.3	7.5	4.7
전기수도가스업	1.5	2.1	0.8	1.5	6.5	4.9	4.0	4.0	5.1

자료: The Central Bank of Russian Federation(www.cbr.ru)

■ 고용지표 개선

- 실업률이 지난해 평균 7.6%대에서 올 3분기에는 5.0%로 하락
 - 취업자는 1~10월 중 1.2% 증가
 - 경제활동인구도 1~10월 중 74.3백만 명으로 전년평균에 비해 0.4백만 명 증가

<표 A-11> 고용 추이

(백만 명, 전년동기비 %)

	2005년					2006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경제활동인구	73.1	73.7	74.5	74.2	73.9	74.0	74.1	74.7	74.9	74.7	74.6
취업자	67.1	68.2	69.1	68.7	68.3	68.3	67.7	69.7	70.0	69.8	69.6
증가율	1.5	0.6	1.0	2.0	1.3	1.8	0.9	1.0	1.1	1.1	1.1
실업률(%)	8.2	7.5	7.2	7.4	7.6	7.7	5.8	5.0	4.9	4.9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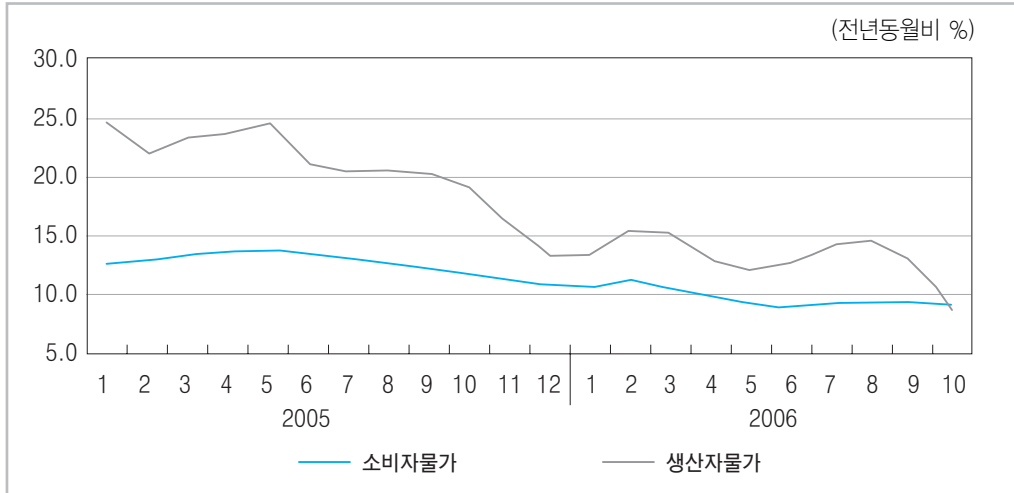
자료: The Central Bank of Russian Federation(www.cbr.ru)

【경제안정성】

■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률 둔화

- 소비자물가 증가율은 올 1분기 10.9%에서 2~3분기 9.4%, 10월 9.2%로 하락
 - 소비자물가가 한 자릿수로 하락한 것은 95년 이후 처음
- 생산자물가도 지난해 20%대에서 올해(1~10월)는 13.3%로 하락했으며 특히 10월에는 8.7% 증가에 그침.

<그림 A-7> 물가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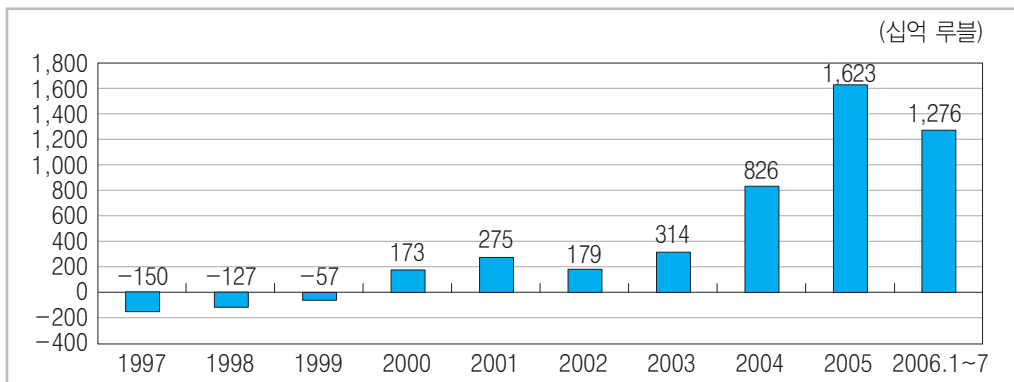


자료: The Central Bank of Russian Federation(www.cbr.ru)

■ 국제유가 상승으로 재정수지 급증

- 2006년 1~7월 재정수지는 1조2,759억 루블을 기록
 - 2005년 1~7월 1조422억 루블보다 확대
 - 2000년 이후 7년 동안 재정수지 흑자 지속

<그림 A-8> 재정수지 추이



자료: IMF, IFS

■ 2006년 6월말 총외채규모는 2,874억 달러로 2005년말 대비 11% 증가

- 정부부문은 감소한 반면 민간부문은 증가
 - 민간외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외채상환 문제를 발생시킬 정도는 아님.

〈표 A-12〉 외채현황

(십억 달러)

	2005년			2006년	
	6월	9월	12월	3월	6월
총외채	228.9	227.9	258.5	274.6	287.4
단기	38.7	40.2	43.8	53.6	52.9
장기	190.2	187.7	214.7	221	234.5
정부부문	91.2	72.2	71.4	69.7	66.7
통화당국	9.0	9.2	11.0	16.5	12.4
은행부문	37.6	43.3	50.0	57.2	56.7
비금융 부문	78.8	90.0	112.6	131	141.3
기타	12.2	13.1	13.6	14.2	18.7

자료: The Central Bank of Russian Federation(www.cbr.ru)

【대외거래】

■ 수출입 모두 높은 증가세 지속

- 수출(국제수지 기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증가율 확대
 - 2005년 32.9%, 올 1~9월 중 29.2%
- 수입, 내수 확대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 지속
 - 2005년 28.7%, 올 1~9월 중 28.0%

〈표 A-13〉 수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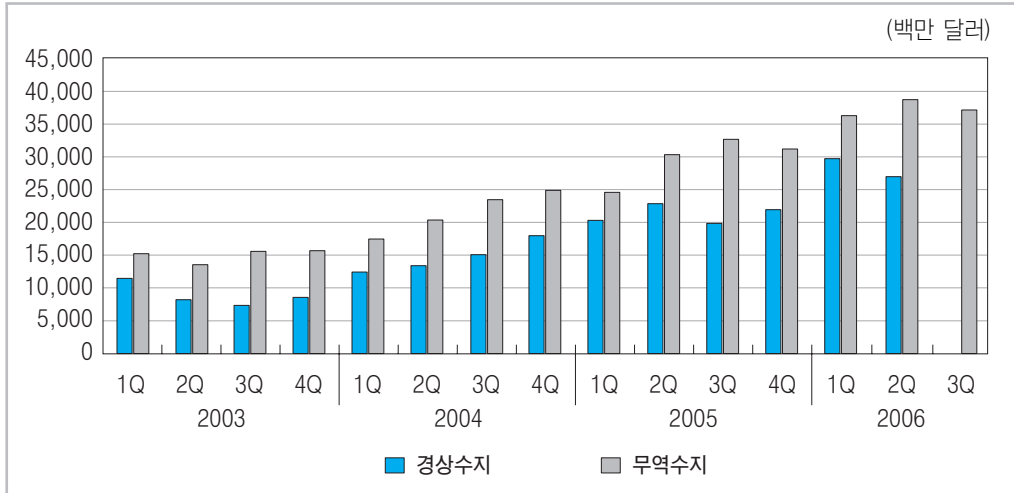
	수출(FOB)		수입(FOB)	
	백만 달러	전년동기비(%)	백만 달러	전년동기비(%)
2004 1분기	37,289	20.0	19,918	24.6
2분기	43,188	36.0	22,975	26.2
3분기	48,469	38.7	24,963	27.5
4분기	54,261	42.2	29,526	32.3
2005 1분기	50,182	34.6	25,662	28.8
2분기	59,594	38.0	29,420	28.1
3분기	64,813	33.7	32,440	30.0
4분기	68,981	27.1	37,781	28.0
2006 1분기	67,420	28.6	31,245	21.8
2분기	76,625	23.1	37,995	29.1
3분기	79,762	36.6	42,694	31.6
8월	28,111	30.3	14,426	34.0
9월	25,857	19.0	14,523	34.2

자료: The Central Bank of Russian Federation(www.cbr.ru)

■ 고유가로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큰 폭 흑자 지속

- 무역수지, 2005년 1066억 달러, 2006년 1~9월 중 1119억 달러 흑자
- 경상수지, 2005년 842억 달러, 2006년 1~6월 중 565억 달러 흑자

〈그림 A-9〉 무역 및 경상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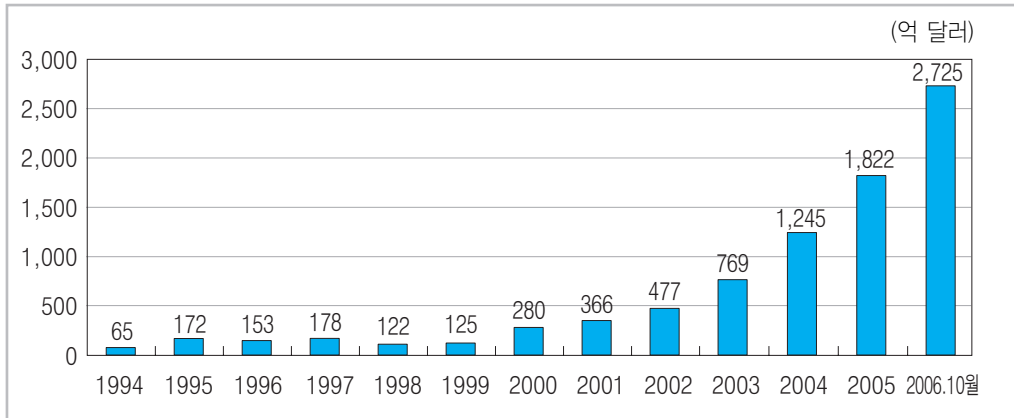


자료: The Central Bank of Russian Federation(www.cbr.ru)

■ 환율방어로 인해 외환보유고 크게 증가

- 10월 현재 외환보유고는 2,725억 달러로 지난해 말(1,822억 달러)에 비해 903억 달러 증가
 - 러시아는 4월에 한국을 6월에는 대만을 추월하여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외환보유국이 됨.
 - 러시아 중앙은행이 오일달러 등 대규모 달러 유입에 따른 환율하락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달러를 사들임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증가

<그림 A-10> 외환보유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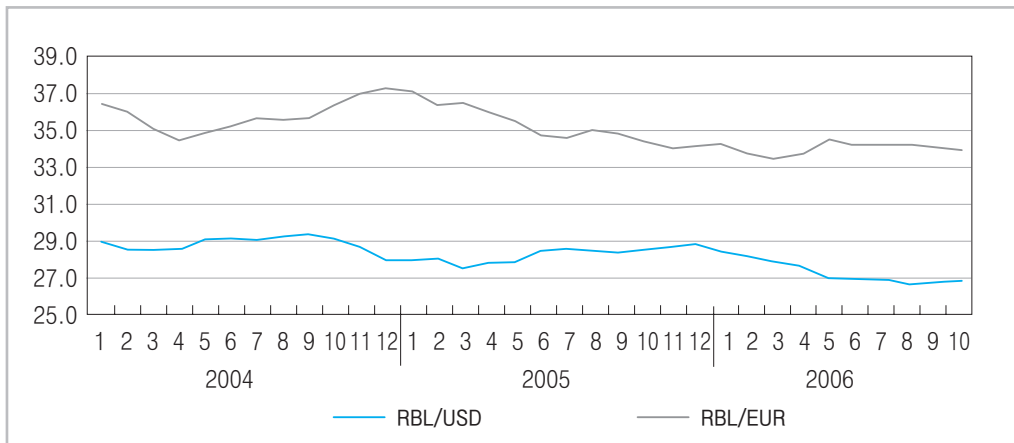


자료: The Central Bank of Russian Federation(www.cbr.ru)

■글로벌 달러 약세 속에서 러시아에 달러공급 증가로 루블화 절상

- 루블화는 올 들어 10월까지 달러에 대해 7.3%, 유로에 대해서는 0.8% 절상
 - 고유가로 오일머니가 대거 유입돼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 지난해 신용도가 높아지면서 해외에서 채권발행으로 달러유입 증가

<그림 A-11> 루블화 환율 추이



자료: The Central Bank of Russian Federation(www.cbr.ru)

【한국과의 교역 · 투자 관계】

■ 교역규모 증가세 둔화

- 수출은 지난해 65.2%에서 올 1~10월에는 전년동기비 30.8%로 둔화
 - 수입증가율은 올 1~10월 중 15.1%
- 대러시아 무역이 올 들어 흑자로 전환
 -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수입증가세가 수출에 비해 현격히 둔화한 데 기인

〈표 A-14〉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입 추이

(백만 달러,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10월
수출	1,659	2,339	3,864	4,257
증가율	55.7	41.0	65.2	30.8
수입	2,522	3,671	3,937	3,701
증가율	13.7	46.6	7.2	15.1
수출입차	-863	-1,332	-73	556

자료: KOTIS

■ 품목별 동향(1~10월)

- 대러시아 수출: 자동차는 호조, 반면 합성수지 및 무선통신기기는 부진
 - 자동차 54.0%, 자동차 부품 165.6% 증가
 - 합성수지 -2.0%, 무선통신기기 -22.6%

〈표 A-15〉 한국의 대러시아 5대 수출품목

(백만 달러, %, 전년동기비 %)

품 목 명	2005년			2006년 1~10월		
	금액	비중	증가율	금액	비중	증가율
총계	3,864.2	100.0	65.2	4,257.3	100.0	30.8
1. 자동차	1,071.4	27.7	72.6	1,319.8	31.0	54.0
2. 합성수지	557.1	14.4	30.6	469.7	11.0	-2.0
3. 무선통신기기	214.5	5.6	34.5	129.8	3.0	-22.6
4. 자동차부품	140.6	3.6	164.3	267.5	6.3	165.6
5. 기호식품	74.5	1.9	58.4	87.7	2.1	43.3

자료: KOTIS

– 대러시아 수입

- 알루미늄(63.4%)과 원유(102.5%)의 수입이 크게 증가

〈표 A-16〉 한국의 대러시아 5대 수입품목

(백만 달러, %, 전년동기비 %)

품 목 명	2005년			2006년 1~10월		
	금액	비중	증가율	금액	비중	증가율
총계	3,936.6	100.0	7.2	3,701.7	100.0	15.1
1. 합금철선철및고철	753.7	19.1	-1.2	424.4	11.5	-36.5
2. 알루미늄	609.8	15.5	24.6	779.3	21.1	63.4
3. 원유	423.9	10.8	45	640.1	17.3	102.5
4. 석유제품	287.0	7.3	-3.9	348.5	9.4	59.5
5. 석탄	236.8	6.0	-24.2	246.0	6.6	21.7

자료: KOTIS

■ 양국간 투자관계

- 2006년 1~9월 중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직접투자액은 약 9천2백만 달러(신고기준)로 지난해 연간 합계액을 이미 상회
 - 2005년 현재 주요 투자업종은 전자통신장비(2억3845만 달러), 음식료(1억8700만 달러) 순
-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규모는 크지 않지만 확대 추세를 보임.
 - 2006년 1~9월 중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신고기준)는 1,770천 달러로 지난해 동 기간(1,731천 달러)에 비해 2.3% 증가
 -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2001년 약 58만 달러에서 2005년 250만 달러로 4년 동안 약 4.3배 증가

〈표 A-17〉 한국과 러시아 양국간 직접투자

(천 달러)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대러시아 투자	46,572	13	10,293	16	90,483	13	69,311	25	92,280	15
대한국 투자	852	18	1,538	30	1,778	39	2,505	34	1,770	25

자료: 산업자원부(<http://www.mocie.go.kr/index.jsp>)
한국수출입은행(<http://www.koreaexim.go.kr>)

【2007년 경제전망】

■ 2007년에도 6%대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

- 에너지 부문의 생산 정체에도 불구하고 소비, 투자 등 내수확대에 기인
 - 노후화된 설비로 인해 석유 및 천연가스의 생산증가율이 정체
 - 그러나 소비가 경제성장률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과 임금인상을 바탕으로 활기
 - 고정투자도 에너지산업에 대한 외국자본 투자의 확대로 높은 증가율이 예상

〈표 A-18〉 러시아의 2007년 경제전망

	2005년	2006년	2007년
실질GDP(%)	6.4	6.5	6.5
소비자물가(%)	12.6	9.7	8.5
경상수지(% of GDP)	10.9	12.3	10.7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Sep. 2006.

(2) 경제현안과 주요정책

【전력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 전력부문에 향후 5년간 790억 달러(약 76조원)의 민간투자 유치

- 배경: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전력난 해소
 - 러시아는 99년 이후 연평균 6% 이상의 고도성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
 - 하지만 설비노후화 등으로 전력생산이 정체되고 최근 흑한으로 전력공급 중단사태까지 발생
- 외국인투자도 전력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 개방
 - 국영 전력회사인 통합에너지시스템(UES)은 현재 73개 지역전력회사와 44개 발전소 등을 운영
 - 향후 UES 산하 발전소에 대한 지분투자가 가능해짐.

【외국인투자 에너지사업에 대한 압력】

■ 외국기업들이 투자한 러시아 내 주요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제동

- 9월 18일 셸(Shell) 주도의 '사할린2 프로젝트' 환경승인을 철회
 - '사할린2 프로젝트'는 셸과 일본 미쓰이 물산, 미쓰비시 상사가 참가한 200억 달러 규모의 사할린 지역의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사업

- 9월 19일 엑슨모빌(ExxonMobil) 주도의 사할린1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제동
 - 환경검사를 이유로 원유수송작업 중단 지시
 - 최근에는 추가개발 허가 지연 때문에 생산 차질 우려로 높아지고 있음.
- 9월 20일 프랑스 토탈(Total) 주도의 하라가(Kharyaga) 유전 개발사업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압박
 - 하라가 유전은 시베리아 최북단 네네츠 자치구에 있는 것으로 토탈이 50%의 지분 보유

■ 배경: PSA법(Product Sharing Agreement) 개정을 위한 포석

- PSA법은 1990년대 투자유치를 위해 러시아 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생산물수익분배구조로 외국인투자자에게 유리
 - 즉 외국기업이 초기투자비용을 완전히 회수한 뒤에 러시아측과 이익금을 분배하게 되는 방식
- 최근 고유가로 러시아의 위상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법에 대한 전면 개정 의지가 표출된 것임.

【러시아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 자원을 무기로 해외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러시아 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있음.
 - 가즈프롬: 알제리 소나트라크와 가스개발협력 양해각서 체결(8/4)
 - 알루미늄 RUSAL: 스위스 Glencore사와 세계최대 알루미늄 회사 창설 협의
 - 러시아 국영은행 브네시토르크방크가 유럽최고방위우주산업(EADS)의 지분 5.02% 인수(8/29)
 - 러 철강기업 Evraz: 미국 오리진스틸 약 23억 달러에 매수 합의(11/20)
 - Norilisk Nickel: 오하이오주 OM그룹의 니켈사업을 4억 달러에 매수

3.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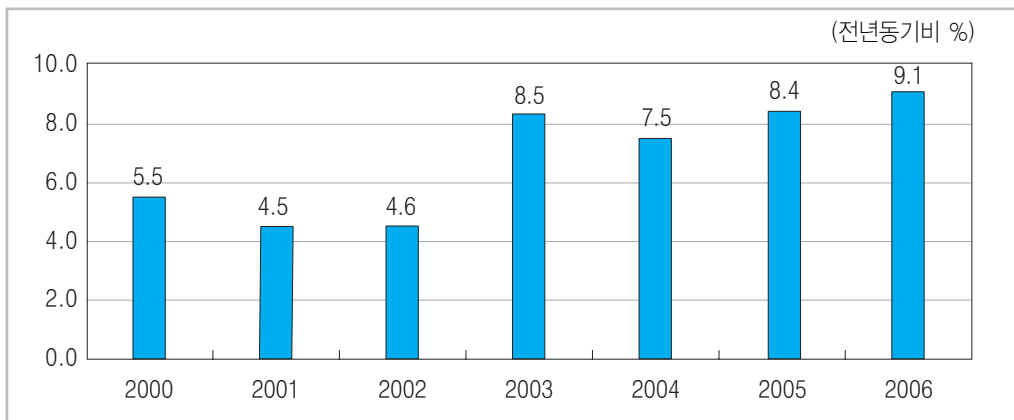
(1) 경제동향

【경제성장 및 생산】

■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높은 성장세 지속

– 2006년 들어 9%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그림 A-12〉 인도의 GDP증가율 추이



주: 2006년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수치임.

자료: 인도중앙은행

- 2006년 현재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제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GDP의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이 고성장세 지속
- 현재와 같은 높은 성장세는 2007년에는 둔화될 전망
- 2006년은 8.0%(OECD)~8.3%(IMF), 2007년은 7.3%(IMF)~7.5%(OECD)로 전망

- 인플레이션 압력, 재정적자로 인한 긴축 기조 등이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표 A-19〉 인도의 산업별 성장률

(%)

기간 분야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총 경제성장	8.5	7.5	8.4	9.1
농업	10.0	0.7	3.9	4.5
제조업	7.1	8.1	9.0	10.1
건설업	10.9	12.5	12.1	10.8
서비스업	5.4	9.2	7.8	7.5
교역 · 호텔 · 운송	12.0	10.6	11.5	13.1
금융	4.5	9.2	9.7	9.7

자료: 인도중앙은행

〈표 A-20〉 인도의 산업별 생산 추이

(십억 루피)

구 분	GDP						
	2004년			2005~2006년			
기간	1분기	2분기	3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분야	1분기	2분기	3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농림수산, 광업	1,302 (23)	1,054 (19)	1,728 (27)	1,324 (22)	1,075 (18)	1,783 (26)	1,489 (21)
제조업	833 (15)	882 (16)	922 (14)	927 (15)	957 (16)	999 (14)	1,058 (15)
전기, 가스 및 용수공급	130 (2)	133 (2)	133 (2)	139 (2)	136 (2)	139 (2)	142 (2)
건설	363 (7)	374 (7)	419 (6)	408 (7)	420 (7)	467 (7)	464 (7)
서비스업	2,926 (53)	3,028 (55)	3,259 (50)	3,029 (53)	3,324 (56)	3,566 (51)	3,907 (55)
산업 총생산	5,554	5,472	6,460	6,006	5,912	6,954	7,063

주: 1) 인도 회계연도의 1분기는 4~6월, 2분기는 7~9월, 3분기는 10~12월임.

2005~2006년 4분기는 2006년 1~3월까지의 수치임.

2) () 안의 수치는 산업 총생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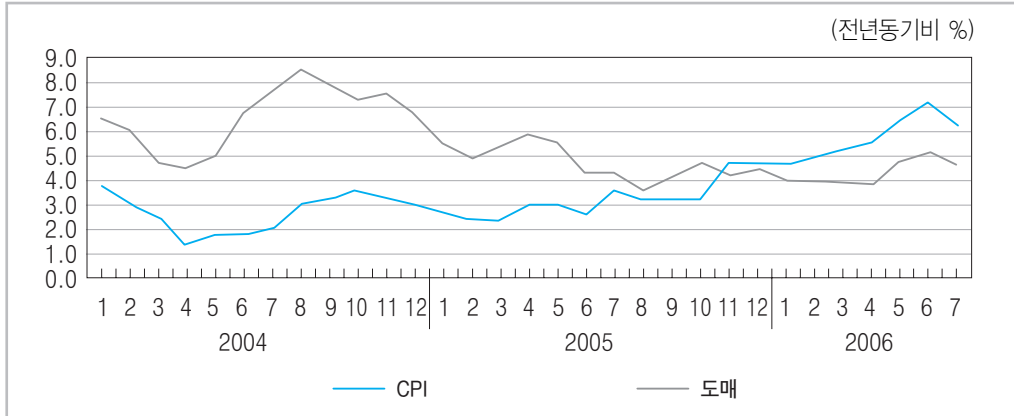
자료: 인도중앙은행

【경제안정성】

■ 소비자물가 큰 폭의 상승세

- 2005년 하반기 이후 CPI 증가율이 급상승하여 7%까지 상승
 - CPI 증가율이 아시아 평균 2.5%, 중국의 1.4%보다 월등히 높아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음.

〈그림 A-13〉 인도의 물가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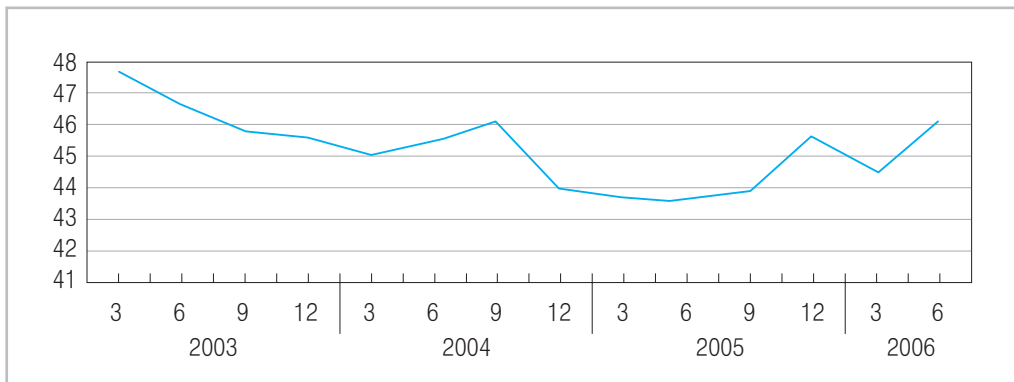


자료: 인도중앙은행

■ 2003년 이후 지속되던 루피화 절상추세의 완화 가능성

- 2006년 1분기(4~6월)말 루피화 환율은 달러당 46루피 수준으로 회복
 - 외국인 투자의 급증과 세계적인 달러 약세 등으로 인한 루피화 절상추세가 경상 수지 적자의 확대에 의해 완화

〈그림 A-14〉 인도의 루피화 환율 추이



주: 달러당 루피 환율
 자료: 인도중앙은행

■ 재정적자 규모의 증가

- 재정수지 악화는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재정적자 규모는 '04/'05 회계연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섬.
 -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6% 수준에서 '03/'04 회계연도 이후 4% 수준으로 감소

〈표 A-21〉 인도 재정수지 추이

(천만 루피, %)

구 분	'99/'00	'00/'01	'01/'02	'02/'03	'03/'04	'04/'05	'05/'06(p)	'06/'07(f)
재정적자액	104,716	118,816	140,955	145,072	123,272	125,202	146,175	148,686
재정적자비율 (GDP 대비)	5.4	5.7	6.2	5.9	4.5	4.0	4.1	3.8

주: 1) p는 추정치, f는 예측치
 2) 인도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4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임.

자료: 인도중앙은행

■ 최근 2년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인도 부채

- 외채 증가추세의 지속
 - 외채규모는 2004년 하반기 이후 증가추세이고 2006년 6월 외채규모가 급증
 - 총외채에서 장기부채의 비중이 90% 이상으로 단기부채보다 비중이 큼.

〈표 A-22〉 인도의 외채현황

(백만 달러)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	9월	12월	3월	6월	3월	6월
총외채	113,144	113,600	120,897	123,454	122,147	125,181	132,130
단기	5,902	6,090	6,864	7,524	7,275	8,788	9,196
장기	107,242	107,510	114,033	115,930	114,872	116,393	122,934

자료: 인도중앙은행

【대외거래】

■ 경상수지 적자 증가세 2006년에도 지속

- 경상수지가 2004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적자폭의 증가
 - 2003년까지 급증하던 경상수지 흑자는 2004년 6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05년 112억 달러에 이어 2006년에는 3월까지 무려 6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 2004년 이후 경상수지의 적자 전환은 국내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의 확대에 기인

〈표 A-23〉 인도의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추이

(백만 달러, %)

구 분	상품수출		상품수입		무역수지		경상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0년	42,602	17.4	50,802	14.0	-8,218	0.8	-2,666	6.3
2001년	44,106	3.5	49,598	-2.4	-5,492	33.2	3,400	227.5
2002년	48,726	10.5	55,736	12.4	-7,010	-27.6	6,345	86.6
2003년	56,330	15.6	70,241	26.0	-13,910	-98.4	10,561	66.4
2004년	74,062	31.5	95,908	36.5	-21,846	-57.1	-6,360	-160.2
2005년	87,849	18.6	126,978	32.4	-39,130	-79.1	-11,215	-76.3
2006년	28,245	17.0	46,729	23.8	-18,484	-35.9	-6,099	-71.5

주: 2006년은 인도의 회계연도 1분기(3~6월) 수치임.

자료: 인도중앙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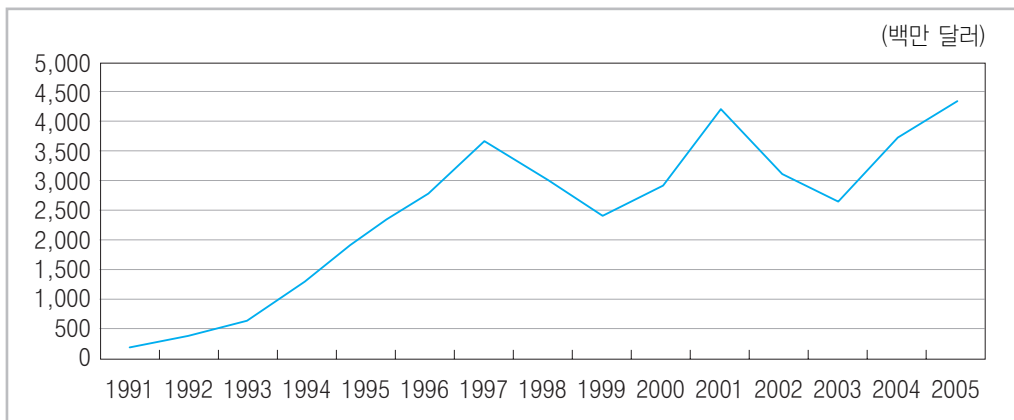
- 무역수지 적자 증가세의 가속화
 - 무역수지 적자는 2004년과 2005년 각각 전년대비 57%, 79% 증가했으며, 2006년 1분기에도 전기대비 36% 증가
 - 상품수입은 2004년과 2005년 30% 이상 증가했고 2006년 1분기에도 24% 증가한 반면 상품수출은 2005년 이후 17~18% 수준의 증가에 그침.

- 경제의 고성장에 따른 소비수요의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 지속 가능성
 - 고유가 및 민간소비 증가로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으나 서비스업의 국제 경쟁력이 있는 인도경제의 특성상 활발한 서비스 수출 등이 경상수지 적자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과 외환보유고의 증가

-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로 외환보유액의 증가
 - 외국인직접투자의 인도 유입은 2005 회계연도(2005년 4월에서 2006년 1월까지)에는 43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나 여타 BRICs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규모임.
 - 외환보유액은 2006년 들어 14.2% 증가하여 8월 기준 외환보유액 순위 6위 기록

<그림 A-15>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추이



주: 2005년은 2005년 4월부터 2006년 1월까지의 수치임.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SIA, SIA Newsletter, March 2006.

〈표 A-24〉 인도의 외환보유액 추이

(백만 달러, %)

구 분	보유액	증가율
2000년	37,264	16.5
2001년	45,251	21.4
2002년	66,994	48
2003년	97,617	45.7
2004년	125,164	28.2
2005년	131,018	4.7
2006년	149,575	14.2

주: 2006년은 1월부터 8월까지의 수치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한국과의 교역 · 투자관계】

■ 양국간 교역의 지속적 증가

– 수출입의 급증

- 수출증가율은 2005년 26.6%에서 올해 10월까지 24.9%로 증가
- 수입은 올해 들어 대폭 증가하여 수입증가율이 올해 10월까지 65.5% 기록

〈표 A-25〉 한국의 대인도 수출입 추이

(백만 달러,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10월
수 출	2,853(106.1)	3,632(27.3)	4,598(26.6)	4,664(24.9)
수 입	1,233(-1.3)	1,850(50.1)	2,112(14.2)	2,851(65.5)
무역수지	1,620	1,782	2,486	1,812

주: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품목별 동향

- 2006년 들어 대인도 수출은 산업용 전자제품과 철강제품, 기초산업기계 부문에서 크게 증가
 - 2006년 10월까지 기초산업기계의 대인도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85.4% 증가하여 증가율이 가장 높고, 산업용 전자제품과 철강제품은 각각 26.9%와 31% 증가
 - 산업용 전자제품의 대인도 수출은 2006년에도 전체 대인도 수출의 27.8%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

〈표 A-26〉 한국의 대인도 5대 수출품목

(백만 달러, %, 전년동기비 %)

품 목 명	2005년			2006년 1~10월		
	금액	비중	증가율	금액	비중	증가율
총계	4,598	100.0	26.6	4,665	100.0	24.9
1. 산업용전자제품	1,299	28.3	34.0	1,297	27.8	26.9
2. 수송기계	674	14.7	-6.9	535	11.5	-9.4
3. 철강제품	528	11.5	67.4	523	11.2	31.0
4. 석유화학제품	373	8.1	66.2	313	6.7	-2.6
5. 기초산업기계	173	3.8	37.1	255	5.5	85.4

자료: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 인도로부터의 수입은 광물·농산물 부문에서 크게 증가
 - 광물성 연료와 금속광물의 수입증가율은 각각 92.2%, 181.6% 증가했고 농산물 수입은 68.7% 증가

〈표 A-27〉 한국의 대인도 5대 수입품목

(백만 달러, %, 전년동기비 %)

품 목 명	2005년			2006년 1~10월		
	금액	비중	증가율	금액	비중	증가율
총계	2,112	100.0	14.2	2,852	100.0	65.5
1. 광물성연료	835	39.5	92.1	1,314	46.1	92.2
2. 금속광물	159	7.5	7.5	337	11.8	181.6
3. 농산물	140	6.6	-64.7	206	7.2	68.7
4. 섬유사	226	10.7	-20.1	208	7.3	13.4
5. 철강제품	227	10.8	26.2	154	5.4	-16.1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투자관계

－ 대인도 투자의 지속적 증가

- 한국의 대인도 직접투자는 2005년 급증한 후 2006년 9월 현재 2005년 전체 투자액을 능가하는 1억1,3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투자건수도 55건으로 증가
- 2006년도에는 수송기계와 석유화학 부문에 대한 대인도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

－ 인도의 대한국 투자 정체

- 2004년 인도 타타그룹의 대우상용차 인수 등 인도의 대한국 투자가 크게 증가한 이후 최근까지 투자건수는 증가하였으나 투자금액은 정체 상태

〈표 A-28〉 한국과 인도 양국간 직접투자

(천 달러)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대인도투자	35,204	11	43,040	8	21,208	10	48,946	29	112,700	32	113,614	55
대한국투자	239	6	767	16	697	16	52,647	30	3,736	68	2,073	38

자료: 산업자원부(<http://www.mocie.go.kr/index.jsp>)
한국수출입은행(<http://www.koreaexim.go.kr>)

(2) 경제현안과 주요 정책

【인도경제의 고속성장과 국영기업 민영화】

- 인도경제 고속성장의 지속에 장애가 되고 있는 주요 요인은 열악한 인도의 사회간접자본 수준
 - 인도경제는 2006년 2분기(7~9월)에 9.2%의 GDP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고속성장을 구가하고 있으며 당분간 지속될 전망
 - 그러나 인도의 열악한 전기, 도로, 철도, 공항 사정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IT부문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 인도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출은 GDP의 3.5%로 중국의 10.6%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
- 재정적자의 악화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조세시스템 개선과 재정수입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
 -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적자도 GDP의 3%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
 - 재정에 포함되지 않는 유가 및 전기에 대한 보조금도 GDP의 약 10% 수준으로 중앙·지방 정부 모두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상황
 -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인도 GDP의 2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및 이를 통한 재원의 확보가 현재 인도정부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 2004년 좌파연합정권의 탄생 이후 국영기업의 민영화 중단으로 지속 성장의 전제 조건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난망한 상황
 - 연립정권의 한 축인 좌파정당과 노조의 반대로 13개 국영기업 민영화 방안이 백지화
 - 민영화 수입의 감소로 재정적자가 더욱 악화되고 있어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의 부족이 초래되고 있고 국영기업의 부실 방치로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됨.
 - 노조 등 이익집단의 영향을 받는 좌파정당에 의해 시급한 경제개혁이 좌초되고 있음을 보여 줌.

【인도의 중국과의 FTA에 대한 전망】

- 중국과의 교역 급증에 따른 중국·인도(친디아) 경제통합 가능성
 - 중국과의 교역량은 1998~1999 회계연도에 15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200억 달러에 달할 전망
 - 세계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두 국가간의 경제동맹 혹은 경제통합은 아시아 및 글로벌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2006년 11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의 인도 공식 방문을 통해 2010년까지 양국간의 교역량을 현재의 2배인 4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
- 중국·인도 FTA 협상 개시에는 실패했고 양국간 협력관계의 증진에도 여러 장애 요인 존재
 - 양국간의 국경분쟁, 중국의 파키스탄과의 동맹관계 및 인도 주변국들과의 군사적 협력관계 등 정치적인 장애요인 존재
 - 인도는 현재 항만 및 통신 분야의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좌절시키는 등 중국의 직접투자에 배타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 이익집단의 압력에 의해 중국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의 인하도 주저하는 양상이며 이와 같은 인도의 태도는 후진타오 방문 시 FTA 협상 개시 요청을 거부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4.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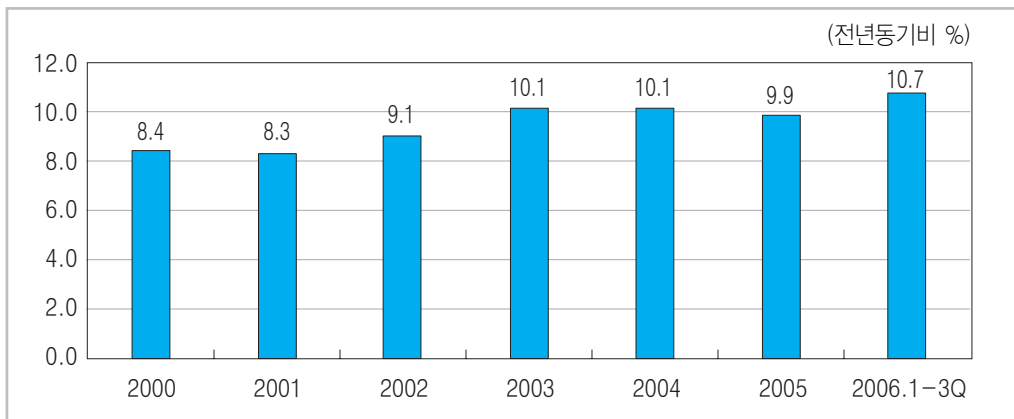
(1) 경제동향

【경제성장 및 생산】

■ 2006년 1~3분기 중국경제 10.7% 성장

- 2006년 1~3분기 중국의 GDP는 전년대비 10.7% 성장한 14조1,477억 위안으로 올해 상반기 10.9% 성장에서 0.2%p 하향 조정
 - 전년동기 대비 0.8%p 증가 (2005년 1~3분기 GDP증가율: 9.9%)
 - 중국의 경제성장률: 9.9%('05년) → 10.9%('06년 상반기) → 10.7%('06년 1~3분기)
- 2005년 10% 아래로 떨어졌던 중국의 GDP증가율은 2006년, 2003~2004년의 10.1%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반등
 - 이는 1995년 10.9%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11차 5개년 계획 첫째를 견실한 경제성장으로 출발한 것을 의미

〈그림 A-16〉 중국의 GDP증가율 추이



자료: 중국국가통계국(www.stats.gov.cn)

- 동 기간 1인당 도시가처분 소득은 8,790위안으로 1인당 농촌순수입인 2,762위안의 3.2배
 - 12개월 단순 환산치는 1인당 도시가처분 소득 11,720위안으로 2005년 대비 11.7% 증가 (1인당 농촌순수입은 3,682위안, 2005년 대비 13.1% 증가)

〈표 A-29〉 중국의 1인당 소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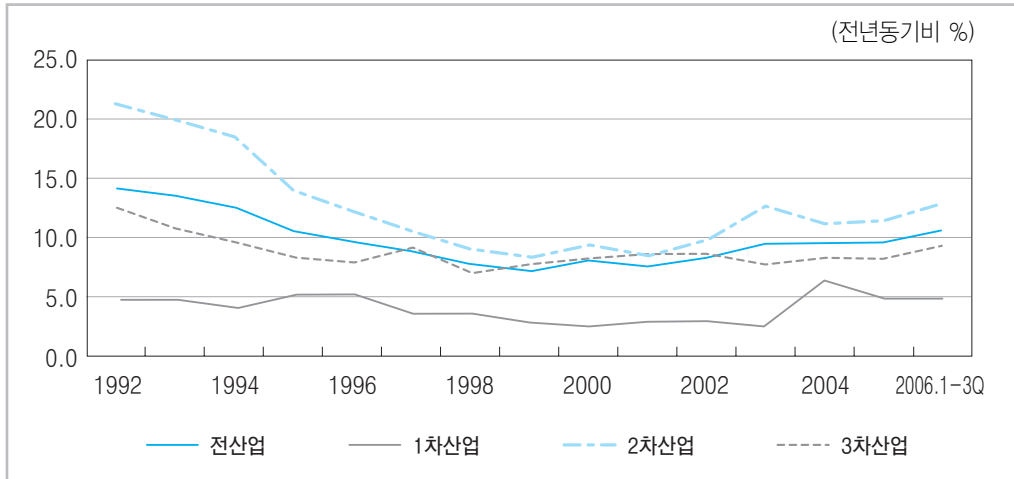
(위안, 달러, 배)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3분기
1인당 GDP	8,214 (1,132)	9,111 (1,270)	10,561 (1,486)	14,026 (1,703)	
1인당 도시가처분 소득(A)	7,703	8,472	9,422	10,493	8,790
1인당 농촌순수입(B)	2,476	2,622	2,936	3,255	2,762
A/B	3.1	3.2	3.2	3.2	3.2

자료: 중국국가통계국(www.stats.gov.cn)

- 2006년 3분기까지 현재 중국의 견실한 경제성장은 2·3차 산업의 꾸준한 호조에 기인
 - 2001년 이후 중국은 공업 및 건설업 중심의 2차산업이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며 10% 내외의 경제성장을 이룩함.
 - 1990년대 초반 20% 이상의 초고성장을 구가하던 2차산업이 10년 정도 하락추세를 유지하다가 2001년 이후 증가추세로 반전
 - 2001년 이후 2차산업 성장률 추이: 8.4%('01년) → 9.8%('02년) → 12.7%('03년) → 11.1%('04년) → 11.4%('05년) → 12.9%('06년 1~3분기)
 - 2006년 1~3분기 산업별 성장률: 4.9%(1차산업), 12.9%(2차산업), 9.2%(3차산업)

<그림 A-17> 중국의 산업별 성장률 추이



■ 중국 산업생산의 증가는 민간기업의 생산증가세에 주로 기인

- 2006년 10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생산증가율은 국유기업 12.5%, 민간기업 20.6%, 집계기업 10.1%로 집계
- 올해 상반기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생산증가율이 다소 하락
 - 2006년 국유기업 생산증가율 추이: 13.1%(상반기) → 12.5%(10월)
 - 2006년 민간기업 생산증가율 추이: 28.1%(상반기) → 20.6%(10월)
 - 2006년 국유기업 생산증가율 추이: 13.6%(상반기) → 10.1%(10월)

〈표 A-30〉 중국의 기업형태별 생산증가율 추이

(전년동기비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구성비 ³⁾
				1~6월 ²⁾	7월	8월	9월	10월	
전산업	16.7	16.3	15.9	18.4	16.7	15.7	16.1	14.7	
국유기업	14.1	13.7	10.7	13.1	12.7	12.1	12.4	12.5	35.2%
민간기업				28.1	25.5	23.1	23.3	20.6	48.3%
집체기업 ¹⁾	11.6	9.8	12.4	13.6	12.9	10.1	14.2	10.1	16.5%

주: 1) 집체기업은 도시와 농촌의 행정·경제단위가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과 농민 또는 도시노동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

2) 1월부터 6월까지의 월별 전년동기비 증가율을 단순 산술 평균치

3) 2004년 총생산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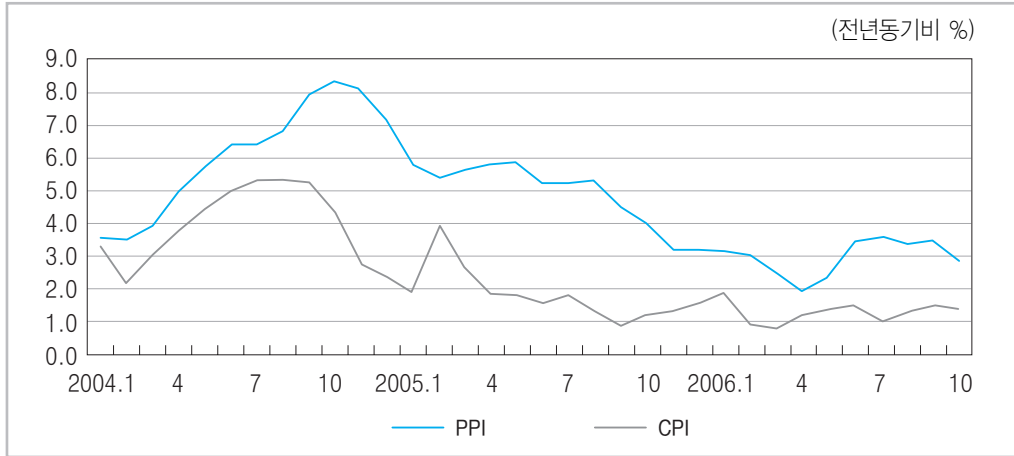
자료: 중국인민은행, 통계계보(www.pbc.gov.cn)

【경제안정성】

■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세 유지

- 2006년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주요 품목인 식료품가격의 상승률이 2005년 큰 폭으로 하락한 데 이어 2006년에도 소폭 하락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
 - CPI 상승률: 3.9%(2004년) → 1.8%(2005년) → 1.4%(2006년 10월)
 - 식료품가격 상승률: 9.9%(2004년) → 2.9%(2005년) → 2.1%(2006년 1~10월)
- 2006년 생산자물가의 상승률 또한 전년대비 점차 둔화
 - 2006년 하반기 들어 소폭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세 유지
 - PPI 상승률: 2.7%(2006년 1~6월) → 3.4%(2006년 7~10월)

〈그림 A-18〉 중국의 물가증가율 추이



〈표 A-31〉 중국의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전년동기비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10월
식료품가격	3.4	9.9	2.9	2.1
원자재, 연료구입가격	4.8	11.4	8.3	5.6
공산품출하가격	2.3	6.1	4.9	2.9
고정자산투자가격	2.2	5.6	1.6	

주: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총통화량은 2006년 하반기 들어 증가세 주춤

- 11월말 기준으로 총통화량(M2)은 33조7,50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15.4% 증가
 - 당초 연간 증가율 목표치였던 15%보다 0.4%p 상회하는 수준
 - 2005년 5월 14.6%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
 - 총통화량 증가율의 꾸준한 감소는 금융기관들의 대출 증가율의 둔화에 기인

- 반면 협의의 통화량인 M1의 증가율은 상반기 12.7%를 기록한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며 11월말 16.8%를 기록
 - 9월말 M1 증가율(15.7%)이 M2 증가율(15.5%)을 역전한 이후 3개월 연속 M1 증가율이 M2 증가율을 상회
 - 2006년초 M2 증가율이 M1 증가율을 7.3%p 상회한 가운데 11월말 현재 증가율이 역전된 1.4%p 하회하는 수준
 - 이는 기업들의 요구불예금과 현금보유액의 꾸준한 증가에 기인

〈표 A-32〉 중국의 통화량 추이

(전년동기비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M1	12.7	16.8	18.7	13.6	11.8	12.7	15.3	15.6	15.7	16.3	16.8
M2	14.4	16.8	19.6	14.6	16.3	17.4	17.0	16.6	15.5	15.7	15.4

자료: 중국인민은행, 통계계보(www.pbc.gov.cn)

【대외거래】

■ 2006년 하반기에도 대외교역은 꾸준한 증가세 유지

- 2006년 3분기 대외교역 규모는 4,767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5.5% 증가
 - 수출은 2,627억 달러로 28.6% 증가, 수입은 2,140억 달러로 21.9% 증가
- 무역수지는 487억 달러의 흑자로 전년대비 200억 달러 증가한 규모이며 중국의 대외교역 사상 분기별 흑자규모로는 최대
 - 국내 수입 수요도 증가 추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수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무역수지의 규모 또한 증가

〈표 A-33〉 중국의 수출입 추이

(억 달러, 전년동기비 %)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1	2,667	7.6	2,436	9.1	231
2002	3,256	22.1	2,953	21.2	303
2003	4,384	34.6	4,129	39.8	255
2004	5,933	35.3	5,602	35.7	331
2005	7,621	28.5	6,602	17.9	1,019
2005 1분기	1,559	34.7	1,393	12.2	166
2005 2분기	1,865	30.9	1,633	16.0	232
2005 3분기	2,042	29.1	1,755	19.6	287
2005 4분기	2,157	21.7	1,822	22.1	335
2006 1분기	1,972	26.5	1,740	24.9	232
2006 2분기	2,323	24.6	1,934	18.4	389
2006 3분기	2,627	28.6	2,140	21.9	487
1월	651	28.4	555	25.4	96
2월	541	22.2	516	29.3	25
3월	780	28.2	669	21.1	111
4월	769	23.9	665	15.3	104
5월	731	25.1	601	21.7	130
6월	823	23.3	668	18.9	155
7월	803	22.6	657	19.7	146
8월	908	32.7	720	24.6	188
9월	916	30.6	763	22.0	153

자료: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중국국가통계국(www.stats.gov.cn)

■ 대미환율은 꾸준히 낮은 하락세를 동반하며 안정세 유지

— 중국은 2005년 7월 위안화의 미국 달러화 페그제에서 복수통화 바스켓으로 전환

한 관리변동 환율제 채택

- 2005년 7월말 대비환율은 6월말 대비 8.2765에서 8.1056으로 2.1% 절상한 이후 $\pm 0.3\%$ 범위 내에서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최근 3개월 0.5% 내외의 하락률을 기록
- 11월말 기준 대비환율은 7.8436으로 전년동기 대비비 2.9% 하락

〈표 A-34〉 달러 대비 환율 추이

(RMB/USD)

2005년			2006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8.0840	8.0796	8.0702	8.0608	8.0415	8.0170	8.0165	8.0188	7.9956	7.9732	7.9585	7.9087	7.8792	7.84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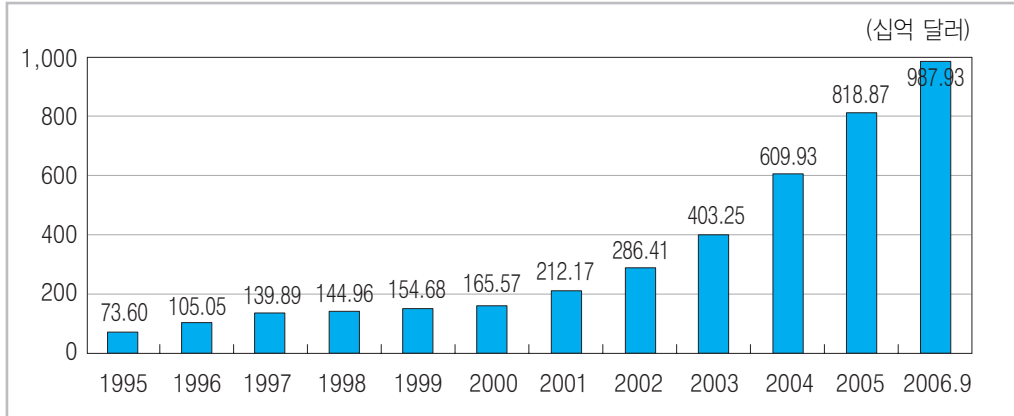
주: 환율은 각 월말 기준

자료: 중국국가외환관리국(www.safe.gov.cn)

■ 중국의 외환보유액 1조 달러 돌파

- 10월 6일 현재 중국은 외환보유액 1조 달러 돌파
 - 지난 2월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일본의 외환보유액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규모가 된 이후 10월 6일 현재 단일 국가 보유 규모로서 사상 최대인 1조 달러를 돌파
 - 지난 2004년 이후 3년 연속 연간 2,000억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 증가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 급격히 증가하는 무역흑자와 외국인직접투자(FDI)로 인해 외환보유액 급증
 - 금년 3분기 중국의 무역흑자는 분기 단위 사상 최대의 규모
 - 외국인직접투자도 4월까지 185억 달러가 유입하며 전년대비 5.8% 증가, 지난해 FDI 규모도 당초 603억 달러에서 외국기업들의 지분 취득을 반영해 724억 달러로 상향조정

<그림 A-19> 중국의 외환보유액 추이



자료: 중국국가외환관리국(www.safe.gov.cn)

【한국과의 교역 · 투자관계】

■ 한중교역 규모는 꾸준한 증가세 유지

- 한중교역 규모는 11월말 현재 작년 수준인 1,000억 달러를 초과
 - 대중국 수출이 633억 달러, 수입 441억 달러, 흑자규모는 192억 달러
 - 수출입 증가율은 지난 3년간 약간의 감소세를 보인 것에 이어 금년 들어서도 감소세를 보이며 11월 현재 수출 12.2%, 수입 25.1%를 기록
- 한중교역은 2004년 규모가 794억 달러를 달성하며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
 - 2012년 양국간 교역 규모 2,000억 달러 달성 목표 추진

<표 A-35>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추이

(백만 달러, 전년동기비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11월
수 출	금 액	35,109.7	49,763.2	61,915.0	63,292.9
	증가율	47.8	41.7	24.4	12.2
수 입	금 액	21,909.1	29,584.9	38,648.2	44,092.7
	증가율	25.9	35	30.6	25.1
무역수지		13,200.6	20,178.3	23,266.8	19,200.2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품목별 동향

- 대중국 수출: 올 1~11월 중 반도체(1위 품목)의 수출은 73.2억 달러로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
 - 석유제품의 수출은 동 기간 동안 전년대비 63.4% 증가율을 기록하며 수출품목 2위로 부상
 - 반면 컴퓨터의 수출은 전년대비 실적이 감소하며 전년 2위에서 3위로 하락
 - 그 외 무선통신기기와 합성수지는 꾸준한 수출 증가를 이루며 4, 5위 품목을 유지

<표 A-36> 한국의 대중국 수출 5대 품목

(백만 달러, %, 전년동기비 %)

품 목 명	2005년			2006년 1~11월		
	금액	비중	증가율	금액	비중	증가율
총계	61,915.0	100.0	24.4	63,292.9	100.0	12.2
1. 반도체	7,114.0	11.5	117.0	7,315.5	11.6	13.0
2. 석유제품	3,253.5	5.3	23.0	4,670.0	7.4	63.4
3. 컴퓨터	5,072.0	8.2	-5.1	4,300.1	6.8	-8.0
4. 무선통신기기	3,707.7	6.0	5.8	3,945.8	6.2	14.2
5. 합성수지	3,670.0	5.9	19.8	3,612.4	5.7	8.5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대중국 수입: 전반적으로 컴퓨터, 반도체, 의류 등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철강판의 수입증가율은 2005년에 비해 감소
 - 2005년 수입 5위 품목이었던 석탄의 수입 감소로 인해 전자응용기기가 수입품목 5위로 새롭게 부상

〈표 A-37〉 한국의 대중국 수입 5대 품목

(백만 달러, %, 전년동기비 %)

품 목 명	2005년			2006년 1~11월		
	금액	비중	증가율	금액	비중	증가율
총계	38,648.2	100.0	30.6	44,092.7	100.0	25.1
1. 컴퓨터	3,324.0	8.6	42.1	3,818.4	8.7	27.1
2. 반도체	1,901.8	4.9	36.7	2,780.0	6.3	61.8
3. 의류	2,187.7	5.7	4.5	2,649.6	6.0	31.0
4. 철강판	1,982.1	5.1	106.3	2,329.4	5.3	24.4
5. 전자응용기기	1,450.0	3.8	35.2	1,444.3	3.3	7.9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투자관계

- 2006년 대중국 직접투자액은 9월말 현재 32억118만 달러(신고기준)
 - 1988년 대중국 직접투자가 처음 이루어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여 2006년 9월말 현재 17,290건 247억4,523만 달러에 이룸(1988년, 2건 340만 달러)
- 2006년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액은 9월말 현재 258건에 3,080만 달러(신고기준)
 - 2005년 6,841만 달러 투자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
 - 1989년 대한국 직접투자가 처음 이루어진 이후 2005년말 현재 5150건 12억 8,614만 달러에 이룸 (1989년, 1건 280만 달러)
 - 2004년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액은 11억6,476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중국의 풍부한 외환보유고와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지원에 힘입어 상해기차의 쌍용차 동차 인수 및 시노켄의 인천정유 인수 등에 기인

〈표 A-38〉 한국과 중국 양국간 직접투자

(천 달러, 건)

	대중국 투자		대한국 투자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2001년	998,502	1,138	70,422	812
2002년	2,095,537	1,546	249,401	442
2003년	2,808,370	1,838	50,230	522
2004년	3,683,236	2,248	1,164,768	596
2005년	3,584,172	2,322	68,410	672
2006년 1분기	444,553	196	12,231	84
2006년 2분기	300,018	191	9,372	93
2006년 3분기	1,186,594	601	9,192	81
2006년 1~3분기	3,201,180	1,736	30,795	258

자료: 산업자원부(www.mocie.go.kr),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2) 경제현안과 주요 정책

[중국의 대외 양국간 경제 협력 노력 강화]

■ 중국-칠레 FTA 협정 발효

- 2005년 11월 중국과 칠레간에 체결한 FTA(자유무역협정)가 10월 1일부터 발효
 - 양국간에 상호 관세율 인하계획에 따라 향후 10년간 97% 이상의 교역품목에 대해 무관세율을 적용
 - 10월 1일부터 중국은 대칠레 수출품목 중 컴퓨터, 자동차, 카메라 등 공산품 5,891개(전체의 75%)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
 - 칠레는 대중국 수출품목 중 마늘, 야채 등 농산품 2,805개(전체의 37%)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
- 중국과 칠레간의 교역액은 2000년의 20억 달러에서 2005년의 71억 달러로 5년간

2.5배 증가

- 올해 상반기 양국간의 교역액은 전년동기 대비 12.7% 증가한 37.6억 달러에 달하여 중국은 칠레의 제2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

- 중국-칠레 FTA의 발효에 따라 무역 및 투자분야에서 중국정부는 대칠레와 라틴아메리카지역에 대한 무역구조 다양화 및 ‘走出去(중국기업 해외진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

■ 중국-싱가포르 FTA 협상 개시

- 10. 26(목)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싱가포르 FTA 협상에서 양국은 FTA 일정 및 범위에 대한 의견을 교환
 - 금년 8. 25(금)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싱가포르 협력 연합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우이(吳儀) 중국 부총리와 Huang Gencheng(黃根成) 싱가포르 부총리는 중국-싱가포르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
 - 2005년 양국간 무역액: 331.5억 달러

■ 2010년부터 중국-ASEAN FTA 협정 발효

- 10. 30(월)~11. 1(수) 중국 광시(廣西)자치구의 난닝(南寧)에서 개최된 중국-ASEAN 정상회담은 2010년부터 중국-ASEAN FTA를 시행하기로 재확인
 - 중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선발 6개국은 2010년까지 화물무역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후발 4개국과는 2015년까지 무관세 교역을 실현하기로 합의
 - 또한 2010년까지 농업, 정보산업, 메콩강 지역 개발, 운송(쿤밍-싱가포르 철도, 아시아 고속도로망 구축), 에너지, 문화, 관광, 보건위생을 포함한 10개 부문을 우선 개방하기로 합의

■ 중국-EU 경제무역 협력을 위한 8개항 합의

- 11. 7(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1차 중국-EU 경제무역 합동 위원회에서 보시라이

(薄熙來) 상무부 부장과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경제무역 협력을 위한 다음의 8개항에 합의

- 1985년 양측이 체결한 「무역 및 경제협력 협정」을 수정하여 금년 내 「동반자 협력 협정」 체결
- 우호적인 협상을 통한 무역마찰 해결
- 광둥(廣東) 장쑤(江蘇) 등 지역에 지적재산권 침해 고발센터를 설립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경험 및 기술 공유
- 중국-EU 무역협력 웹사이트를 개설해 중소기업 간 협력 촉진
-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정부 실무부처간 교류 확대
- 합동위원회 산하 농업, 첨단기술, 중소기업 실무팀 구성
- 철강무역 관련 비공식 대화채널 마련
- 중국-EU 무역 프로젝트 내 무역 전문가팀 구성

■ 중국-러시아 에너지·통상 분야 협력 강화

- 11. 9(목)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러시아 프라도코프 총리는 베이징에서 에너지, 통상 등 분야 총 13개의 협력협정을 체결

- 협정 주요 내용

- 양국간 교역액을 2010년까지 600~800억 달러로 확대
- 중국의 대러시아 투자액을 2005년말 9.7억 달러에서 2020년까지 120억 달러로 확대
- 러시아 동시베리아 송유관 1단계 노선에서 중국 따칭(大慶)으로 지선을 연결해 연간 3천만 톤의 원유 공급
- 러시아 가스의 중국 공급을 위한 가스관 2개를 5년 내 건설
- 2008년부터 연간 36~43억kWh 규모의 러시아 전력을 중국에 공급

■ 한-중 FTA 산관학(産官學) 공동연구 개시

- 11. 17(금) 한국 외교통상부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과 상무부 보시라이(薄熙來) 부장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APEC 각료회의에서 양자회담을 개최

- 내년 초부터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하고,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범위, 산업별 영향, 민감 품목 처리방안 등을 연구

■ 중국-인도 양국간 투자촉진 및 보호 협정 체결

- 11. 21(화)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인도 싱 총리는 뉴델리에서 정상회담을 개최
 - 양국간 교역규모 확대를 위한 공동 연구그룹을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13개의 합의안을 체결
 - 또한 양국은 금년 2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교역액을 2010년까지 400억 달러로 늘리고, 중국 광저우(廣州)와 인도 콜카타에 영사관을 추가 개설키로 합의

■ 중국-파키스탄 FTA 협정 체결

- 중국과 파키스탄은 2005년 4월부터 총 6차에 걸친 FTA 협상 끝에 의견일치를 보고, 11. 24(금) 양국간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
- FTA 협정의 주요 내용
 - 1단계: 협정 발효 후 5년 내, 양국 관세품목의 85%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고, 그중 36%의 품목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
 - 2단계: 협정 발효 후 6년째부터, 추가 관세인하를 통해 무관세 제품이 양국 관세 품목 및 무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도달
 - * 중국의 주요 관세인하 품목: 축산물, 수산물, 채소, 광산물, 방직품 등
 - * 파키스탄의 주요 관세인하 품목: 소·양고기, 기계전자 제품 등
 - 또한, 「중국-파키스탄 경제무역 협력 5개년 발전 계획」을 체결하고, 2011년까지 양국간 무역액을 150억 달러로 확대하는 동시에, 인프라, 농업, 제조업, 정보기술, 서비스업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정

■ 내년부터 아이슬란드와 FTA 협상 실시

- 12. 4(월)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와 아이슬란드 외교부의 중국-아이슬란드 FTA 협상 개시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고, 2007년 1분기부터 1차 협상을 실시하기로 합의
 - 상무부 위광저우(于廣州) 부부장은 금년 1~10월 양국간 무역액은 약 1억 달러에 달하며, 향후 수산업, 지열에너지, 엔지니어링, 조선업, 알루미늄, 통신 등 분야의 협력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
 - 아이슬란드는 유럽국가로는 최초로 중국의 완전시장경제지위(mes)를 인정한 바 있음.

■ 中-美 경제 전략대화 개최

- 12. 14(목)~12. 15(금)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의 국무원 우이(吳儀) 부총리와 미국의 헨리 폴슨 재무장관 외 양국 주요 경제부처 인사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전략대화 개최
 - 장기적 의제로는 중국 내수확대, 금융개방, 산업구조조정, 에너지 문제 등
 - 단기적 의제로는 인민폐 평가절상, 무역불균형,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해 논의
- 합의 내용
 -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국측은 인민폐환율 유연성과 내수확대를 추구하고, 미국측은 국내저축 확대에 힘쓰기로 합의
 - 그 외, 의료서비스 개선, 자원개발, 환경보호, 첨단기술, 무역, 지적재산권보호, 시장경제지위와 베이징에 뉴욕증권거래소 대표처 설립, 항공서비스 등에 대해 토의
 - 제2차 中-美 경제 전략대화는 내년 5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

【중국의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조치 시행³⁾】

■조치의 내용

- 11월 1일자로 804개 품목에 대해 가공무역 금지 조치를 발표하고 11월 22일부로 시행
 - 이번 발표로 가공무역 금지대상 품목은 이전 시행품목을 포함하여 총 1,274개로 증가

- 본 조치 관련 주요 규정 시행 과정
 - 가공무역 금지목록 발표(2005. 12. 27 발표, 2006. 1. 1 시행)
 - 일부 상품 수출 증치세 환급률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목록 확대(2006. 9. 14 발표, 2006. 9. 25 시행)
 - 일부 상품 수출입 잠정세율 조정 통지 발표(2006. 10. 27 발표, 2006. 11. 1 시행)
 - 가공무역 금지목록 추가 발표(2006. 11. 1 발표, 2006. 11. 22 시행)

■조치의 배경

- 대내적 요인
 - 자원난 및 환경오염 대책, 비효율적인 과잉생산 능력 조정 등의 필요성 증가
 - 첨단산업의 육성 및 낙후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선별적 외자 유치 정책으로 노선을 전환

- 대외적 요인
 - 무역수지 확대에 따른 외환보유액 증가의 부담을 해소하고 통상마찰 및 위안화 평가절상의 압력을 완화할 필요 증가

3) 「중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조치의 의미와 영향」, KOTRA 동북아팀, 2006. 11 발췌 및 요약

■ 한국에의 시사점

- 교역 측면에서 한-중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전체 수출입 중 가공무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절반 정도이며 실제 목 록상의 제품 분류 또한 HS 10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비중은 크지 않을 것으 로 판단

- 투자 측면에서 또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가공무역 방식으로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주로 상주하고 있는 산둥성, 랴오닝성 등에서 일부 피해가 예상
 - 우리 기업의 대중 투자 진출 중 가공무역 금지품목에 해당되는 투자의 비중은 크 지 않은 것으로 파악

- 정부 차원에서 통상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교역 및 투자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 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음.

〈부록〉

주요 경제지표

경제성장률 · 소비 · 투자

	경제성장률		1인당	소비		투자		
	GDP	제조업	GNI	민간	정부	총고정투자	설비	건설
	전년동기 대비(%)		US \$	전년동기 대비(%)				
2002년	7.0	7.6	11,499	7.9	6.0	6.6	7.5	5.3
2003년	3.1	5.5	12,720	-1.2	3.8	4.0	-1.2	7.9
2004년	4.7	11.4	14,193	-0.3	3.7	2.1	3.8	1.1
2005년	4.0	7.0	16,291	3.2	4.3	2.3	5.1	0.3
4/4	7.5	11.4		5.5	4.2	9.1	9.6	8.4
2003년 1/4	3.7	5.8		0.7	4.0	4.7	2.3	7.7
2/4	2.2	3.3		-1.5	3.7	4.2	-0.4	7.9
3/4	2.4	4.2		-2.0	3.5	2.7	-4.6	7.7
4/4	3.9	8.6		-2.0	3.5	4.3	-2.0	8.3
2004년 1/4	5.3	11.9		-1.3	3.7	2.4	-0.1	4.9
2/4	5.5	13.6		-0.3	4.8	4.7	6.4	3.8
3/4	4.7	11.7		-0.7	3.7	2.9	6.8	1.0
4/4	3.3	7.7		0.9	2.9	-1.1	2.4	-3.3
2005년 1/4	2.7	5.1		1.6	3.2	0.4	2.9	-2.2
2/4	3.2	5.0		3.0	4.2	2.0	2.7	1.6
3/4	4.5	7.4		4.0	5.1	1.9	4.3	0.3
4/4	5.3	10.2		4.2	4.8	4.2	10.2	0.9
2006년 1/4	6.1	9.9		4.8	5.3	3.9	6.9	1.2
2/4	5.3	9.3		4.4	5.2	0.8	7.4	-3.9
3/4	4.8	8.8		4.0	5.8	3.8	9.9	-0.6

무역 · 국제수지

	무역				국제수지		외환보유액 ¹⁾	대미환율
	수출(FOB)		수입(CIF)		상품	경상	(기말)	(기말)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원/달러	
2002년	1,624.7	8.0	1,521.3	7.8	147.8	53.9	1,214.1	1,200.4
2003년	1,938.2	19.3	1,788.3	17.6	219.5	119.5	1,553.5	1,197.8
2004년	2,538.4	31.0	2,244.6	25.5	375.7	281.7	1,990.7	1,043.8
2005년	2844.2	12.0	2612.4	16.4	334.7	165.6	2103.9	1,011.6
2004년 12월	232.0	17.6	209.7	19.0	29.4	22.1	1,990.7	1,035.1
2005년 1월	224.5	18.3	194.5	20.0	44.9	38.8	1,997.0	1,026.4
2월	204.0	6.6	184.0	5.3	15.9	9.5	2,021.6	1,008.1
3월	239.5	13.1	227.8	19.1	30.7	10.5	2,054.4	1,024.3
4월	228.7	6.5	212.4	12.8	23.3	-9.9	2,063.8	1,001.8
5월	231.2	11.0	211.6	18.3	26.1	13.6	2,061.0	1,002.5
6월	237.1	9.5	212.9	14.8	3.7	22.4	2,049.9	1,024.4
7월	232.4	10.6	215.1	17.0	31.7	14.5	2,056.9	1,025.7
8월	233.4	17.9	220.0	21.4	15.9	-4.9	2,067.1	1,031.0
9월	245.2	17.7	227.2	24.9	28.3	16.9	2,067.3	1,038.0
10월	253.5	11.9	226.5	11.0	31.1	26.9	2,073.1	1,042.7
11월	258.3	11.9	238.5	17.4	31.8	22.0	2,082.3	1,036.3
12월	256.3	10.5	241.9	15.4	18.1	5.4	2,103.9	1,013.0
2006년 1월	232.6	3.6	230.6	18.6	14.8	1.0	2,169.3	972.0
2월	237.9	16.6	234.8	27.6	8.3	-7.8	2,159.5	969.0
3월	268.5	12.1	258.9	13.7	2.91	-4.3	2,173.4	975.5
4월	256.0	11.9	243.8	14.8	18.8	-16.1	2,228.9	945.7
5월	279.2	20.7	260.8	23.3	28.2	13.6	2,246.9	947.4
6월	279.5	17.9	259.9	22.1	27.2	9.4	2,243.6	960.3
7월	257.7	10.9	255.2	18.7	16.2	-3.9	2,257.2	953.1
8월	273.0	17.0	270.4	22.9	14.4	-6.4	2,270.2	959.6
9월	296.7	21.0	278.5	22.6	31.7	14.1	2,282.2	945.2
10월	280.9	10.8	257.1	13.5	26.6	17.3	2,294.6	944.2
11월	309.4	19.8	268.7	12.7			2,342.6	929.9

주: 1) 가용외환보유액 기준

물가·실업·이자율

	물가 ²⁾		실업률 (계절조정)	제조업 명목임금	통화 ³⁾		회사채 수익률	주가지수 80.1.4=100
	생산자	소비자			신M2	M3		
	전년동기 대비(%)		(%)	전년동기 대비(%)			연%, 평균	기간평균
2002년	-0.3(2.3)	2.7(3.7)	3.1	11.9	11.5	12.9	6.59	757.0
2003년	2.2(3.1)	3.6(3.4)	3.4	8.7	7.9	8.8	5.43	679.8
2004년	6.1(5.3)	3.6(3.0)	3.5	9.5	4.6	6.1	4.71	832.9
2005년	2.1(1.7)	2.7(2.6)	3.7	8.1	6.9	7.0	4.69	1,073.6
12월	5.3(5.3)	3.0(3.0)	3.7(3.5)	22.7	5.9	6.9	3.73	873.1
2005년 1월	4.1(0.2)	3.1(0.7)	4.2(3.8)	-4.7	6.3	7.0	4.11	903.4
2월	3.2(0.6)	3.3(1.3)	4.3(3.7)	27.7	6.4	6.8	4.63	964.5
3월	2.7(1.0)	3.1(2.1)	4.1(3.6)	8.5	6.6	6.4	4.48	988.2
4월	2.9(1.7)	3.1(2.2)	3.8(3.7)	11.7	7.0	6.6	4.28	955.4
5월	2.0(1.1)	3.1(2.0)	3.5(3.7)	7.4	7.0	6.6	4.12	939.0
6월	1.6(0.6)	2.7(1.6)	3.6(3.8)	11.0	7.4	7.1	4.18	991.3
7월	2.0(1.4)	2.5(2.1)	3.7(3.8)	6.6	7.9	7.5	4.52	1,058.7
8월	1.4(1.7)	2.0(2.4)	3.6(3.7)	9.7	7.7	7.6	4.75	1,101.8
9월	1.6(2.2)	2.7(3.1)	3.6(4.0)	5.8	6.5	6.9	4.92	1,171.0
10월	1.7(2.4)	2.5(2.9)	3.6(3.9)	10.3	6.5	6.9	5.20	1,190.9
11월	1.1(1.8)	2.4(2.3)	3.3(3.5)	7.6	6.6	7.2	5.50	1,253.3
12월	1.7(1.7)	2.6(2.6)	3.5(3.5)	0.9	7.0	7.3	5.49	1,338.8
2006년 1월	2.1(0.6)	2.8(0.8)	3.7(3.4)	24.6	7.3	7.2	5.50	1,379.3
2월	1.7(0.6)	2.3(1.0)	4.1(3.5)	-11.4	7.2	7.4	5.33	1,341.7
3월	1.4(0.6)	2.0(1.5)	3.9(3.5)	5.8	6.6	7.0	5.30	1,331.7
4월	1.5(1.5)	2.0(1.6)	3.5(3.5)	3.7	6.8	7.4	5.24	1,415.9
5월	2.6(2.1)	2.4(1.8)	3.2(3.4)	7.9	7.1	7.6	5.05	1,388.8
6월	3.2(2.1)	2.6(1.6)	3.4(3.5)	3.7	7.7	7.3	5.17	1,249.2
7월	2.8(2.5)	2.3(1.8)	3.4(3.5)	6.0	7.7	7.3	5.18	1,278.6
8월	3.4(3.4)	2.9(2.7)	3.4(3.5)	5.3	7.5	7.4	5.10	1,316.0
9월	3.1(3.6)	2.4(3.0)	3.2(3.5)	-0.1	8.9	7.9	5.02	1,356.5
10월	1.9(2.6)	2.1(2.4)	3.3(3.5)		10.1	8.8	4.93	1354.0
11월		2.2(1.9)					5.05	1403.9

주: 2) () 안은 전년말월 대비 증가율

3) 평잔기준

산업활동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전산업	평균	도소매 판매액	소비재 출하 ⁴⁾	국내기계 수주 ⁵⁾	설비투자 추계	건설 수주	건설기성		
		가동률(%)						공공	민간	
전년동기 대비(%)										
2001년	0.7	75.3	6.7	2.6	-1.0	-9.1	22.1	10.0	4.4	14.6
2002년	8.0	78.4	8.3	8.3	21.0	8.4	33.0	11.2	-8.1	24.5
2003년	5.0	78.3	-1.1	-34	-8.7	-2.3	19.3	16.6	10.7	20.6
2004년	10.5	80.4	-0.6	-1.4	6.8	1.4	-3.9	11.1	5.3	14.4
2005년	6.3	79.8	2.6	2.1	1.5	3.4	9.5	5.7	-0.7	9.8
12월	4.6	79.7	-0.0	-6.2	-9.9	-1.8	39.9	-0.2	-10.3	5.7
2005년 1월	14.6	81.9	-2.8	0.9	0.7	15.50	9.1	3.6	-0.8	5.4
2월	-7.2	77.2	-1.4	-11.4	-18.7	-3.7	-20.6	-3.3	-1.0	-4.2
3월	4.8	80.9	1.6	-3.4	-3.2	1.9	71.6	4.7	-1.2	7.3
4월	3.6	78.8	1.7	-3.7	-10.0	0.3	25.8	7.8	-1.2	12.3
5월	3.9	78.0	4.2	1.4	-14.5	8.4	51.7	10.5	4.5	13.7
6월	4.0	80.1	3.1	3.8	-12.2	-3.7	37.1	10.6	6.0	12.8
7월	6.8	80.5	3.3	4.1	26.2	4.3	6.3	4.5	-1.6	7.1
8월	6.6	78.6	5.3	6.3	18.3	-0.3	18.3	5.0	-10.0	10.7
9월	7.6	79.0	3.5	4.8	0.1	-1.6	27.8	4.3	-7.7	7.9
10월	7.7	79.3	2.3	4.9	0.7	1.6	-35.3	2.6	-3.3	5.3
11월	11.8	82.1	5.7	8.1	11.7	6.6	3.6	3.0	-2.4	7.5
12월	11.3	79.4	5.4	8.7	42.8	12.6	-17.0	11.3	5.2	5.5
2006년 1월	6.9	83.5	4.1	2.8	2.0	0.1	10.9	2.5	-10.3	8.5
2월	20.6	80.9	2.8	12.3	38.7	2.4	22.2	9.2	-12.8	18.2
3월	10.0	81.5	4.0	5.5	-0.1	9.6	-34.5	5.9	-7.5	11.8
4월	9.9	79.0	3.8	4.2	15.3	7.1	-18.8	2.0	-4.6	5.2
5월	12.1	80.6	4.5	6.4	12.6	2.5	-17.9	1.0	-3.2	2.7
6월	10.9	82.0	3.9	5.0	34.8	3.0	-7.7	1.1	-4.3	3.7
7월	4.5	76.8	0.4	-2.2	-2.7	4.1	7.3	-0.7	-0.2	0.1
8월	10.9	80.7	3.9	2.7	15.2	11.0	14.9	3.4	9.1	2.5
9월	16.5	84.1	8.0	13.7	34.7	15.5	94.1	16.0	19.1	14.3
10월	4.6	81.6	2.8	-0.3	35.0	6.1	1.5	7.4	19.5	3.7

주: 4) 내수용

5) 내수용, 선박 제외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판1쇄 인쇄/2006년 12월 25일

1판1쇄 발행/2006년 12월 31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노성태

편집인/허찬국

등록번호/제318-1982-000003호

(150-75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대표) 3771-0001 (직통) 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6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